# 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6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2월 16일(음력 11월 1일) 수요일(주간)


## "보상보다 명예회복"

### 10·27법난심의위 새 위원장 영담 스님

### "역사교육관 부지 조계사 결정 수정할 것"

"보상보다 명예회복이 중요하다."

12월 9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7차 10 · 27법난심의위 회의에서 새 위원장에 선출된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의 취임 일성이다.

영담 스님은 이날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이 단순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며 "10.27법난으로 훼손된 불교계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지난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재임시 10 · 27법난 역사교육관 부지가 조계사로 내정된 데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영담 스님은 "조계사로 결정된 부지선정 부분을 전면 재수정 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아닌 종단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1500억 예산 규모에 맞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부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율된 내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교육관부지 선정과 함께 향후 심의위가 △피해자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역사교육관 건립의 양대 과제를 축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법난 이후 시간이 흘러 피해 입은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얼굴을 알리기 꺼리는 분들이 있지만 설득을 비롯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매듭을 짓겠다"며 "향후 심의위 활동방향으로 종단 내 조력자 처벌과 역사자료 수집, 관련 법개정 추진 등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역사교육관 전시 자료에 대해 "10 · 27법난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억불정책 등 역사 속에 종교가 억압된 사실을 중점적으로 알리겠다"면서, 친일문제와 같이 법난 당시 종단 내 조력한 스님에 대한 진상조사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끝으로 영담 스님은 "법난 명예회복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마찰 없이 진행해 당국과 새 출발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종단과 불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2면

노덕현 기자

▶9 소녀시대 ▶14 태응 스님 ▶19 박노해 사진전



**"자비심도 가득 담았어요"**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원우회는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자비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선재의 선물보내기 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과 아름다운동행, 원우회 회원들이 저소득가정 어린들을 위해 마련된 선물의 포장작업을 진행했다. 박재완 기자

##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출범

### 조계종 포교원, 통합 포교종책 개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계종 기구로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2월 9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어린이 청소년 위원회'(위원장 혜총) 발족식을 개최했다.

혜총 스님은 발족식에서 "위원회를 통해 어린이 ·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계층 포교에 대해 종단이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고 포교종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어린이 · 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승계하고,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한 포교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원은 2010년 어린이청소년 포교 분야에 책정된 예산 6억 4356만원(포교 후원기금 1억 3000만원 포함)에서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59만원을 책정했다. 2011년까지 초기 사업 안정을 위해 포교후원 기금의 일부를 지원해 장기적인 포교전략 수립과 각 단체의 조직적 통합, 안정적 포교를 전개해 나간다.

위원회는 2010년 2월 중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설치 종령을 검토하고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에 위원회 종령 제정안을 상정, 조계종 중앙종회 승인을 통한 종령 기구화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각종 콘텐츠, 교육교재, 유관 단체의 관리시스템을 위원회의 사업을 중심으로 집결 ·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포교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포교부장은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그 외 임원은 파라미타, 동련 대표자, 임원 및 이사진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지현 스님(동련 이사), 지현 스님(좋은벗풍경소리 이사), 성일 스님(신흥사 청소년수련원 시설장), 원택 스님(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이사), 정련 스님 (동련 이사) 등을 위촉했다. 이상언 기자

사람

황채운 반갑다연우야 단장



## 1만여 명에 자비의술 보시

의왕(醫王)인 부처님의 뜻을 이어 약사여래의 화신처럼 인술을 펼쳐온 이들이 있다. 불교계 대표 의료봉사단체인 '반갑다연우야'는 2006년 설립돼 매월 5~6회 이상 진료봉사를 펼치며 활동 개시 3년 여 만에 1만 여명에게 도움을 전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은 황무지 같던 불교계 의료봉사 현실을 굳은 신심 하나로 오늘까지 이끌어온 '반갑다연우야' 황채운 봉사단장의 역할이 컸다.

"제 역할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남모르게 봉사하시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부각되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느새 1만 여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진행했는지 저도 놀랍습니다. 그동안 얼굴에 주름은 늘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며 마음공부를 하고 있어 행복하기만 합니다."

황 단장은 '반갑다연우야' 외에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서울 봉은사 수석 부회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년 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놀랄 만큼의 변화도 체험했다. "봉사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남들이 그것을 몰라준다'고 서운해 할 때가 있었어요. 20년 봉사를 하면서 그런 상(相)은 물론이고, 아만과 아집이 줄어든 걸 느껴요."

봉사를 통해 주는 것 보다 '감사'한 마음을 몇 배를 더 받고 있다는 황 단장은 "'너(수혜자)'가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보살행을 권유했다. 틈이 날 때면 철야정진, 의료봉사, 반찬봉사 등을 하면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그녀의 자비로운 손길이 보다 많은 이에게 다가갈 때 이웃의 아픔 또한 사라지리라. 이상언 기자


법구경

그대는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나니
왜 등불을 찾지 않는가.

현대불교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황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포하는
밑거름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후원
060-700-1080


社告

##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십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산지역 포교에 앞장설 참신한 지사장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분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
전화: (02)2004-8200 팩스: (02)737-069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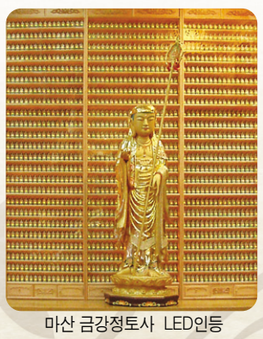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일밤 '헌터스'와 불살생

12월 6일 첫 방송을 마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새 코너 '대한민국 생태구조단, 헌터스'(이하 헌터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먹잇감이 부족해진 겨울철, 멧돼지들이 민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치고 심지어 농촌 어르신들을 공격하는 일까지 빈번해지자 멧돼지를 포획하는 버라이어티가 등장한 것이다.

'헌터스'는 일간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지던 멧돼지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농민들의 감정을 여실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멧돼지 피해 현황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버라이어티의 특성 상 멧돼지의 포획과 일련의 과정이 결국 살생을 오락화 희화화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헌터스'에서 포획 후 119에 넘겨진 멧돼지는 방사될 수 없어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환경연대와 사단법인 보리 등 불교계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멧돼지와 인간이 공존 상생하는 컨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프로그램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멧돼지 또한 생명이며,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농작물 또한 생명이란 점에서 불교계는 이러한 '버라이어티'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좀 더 구체적인 불교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장에서는 인간의 개발로 멧돼지의 개체를 조절하는 맹수류가 사라진 점, 산림자원 목적으로 유실수 등이 사라지며 산림의 먹잇감이 줄어든 점이 근본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절충점으로 TNR사업이 꼽히고 있다.

실례로 서울시는 유기동물 중 길고양이의 개체를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TNR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lease)를 통해 계획적으로 고양이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TNR사업의 동물 불임수술에 대해 불교계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사회는 격변하며 그 답을 어디에선가 구하고 있다. 헌터스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라고 시청자들에게 반문한 나레이션이 불교계를 향해 던진 화두로 들리고 있다.

<범망경>은 "만약 세상에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方便)을 써서 구호해 그 괴로움을 풀어 주어야 한다"고 설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로운 방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 원봉 스님 중앙종회의장 선출

## 태고종 101차 종회… 2010년도 예산 54억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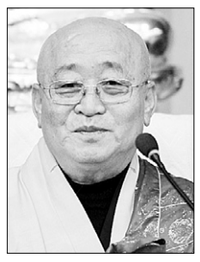
태고종 중앙종회의장에 원봉 스님이, 중앙사정원장에 운곡 스님이 선출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12월 9일 제101차 정기종회를 열고 중앙종회의장과 사정원장 선출, 2010년 세입세출안과 총무원 부원장 등 중앙종무기관 간부 선출 서면결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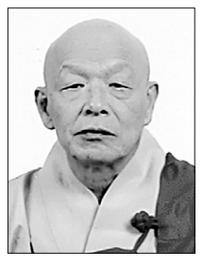
제적인원 48명중 40명이 참석한 이날 종회에서는 단독 추천 받은 종회의장 원봉 스님(종회의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중앙사정원장에는 운곡 스님(전 종회의장)이 선출됐다.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영우 스님(26표), 상허 스님(21표)이 선출됐다. 다득표한 영우 스님은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으며, 중앙사정원 부원장에는 일운 스님(봉원사 주지)이 선출됐다.

중앙종회의장에 선출된 원봉 스님은 이날 "지난 총무원장 선거는 전 종도의 단합을 한 차원 더 높이는 희망의 자리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3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이날 종회는 더욱 뜻깊다"며 "종단 이해 걸려있는 사안에 지혜를 모아 한국불교전통종단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원봉 스님.



운곡 스님.

이날 중앙종회는 2010년도 총무원 예산으로 약 54억 7080만원, 동방불교대학 예산 44억 2730만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총무원 부원장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간부 선출에 대한 서면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또한 '종단제도개혁위원회법 제정안'도 통과돼 종단 기구조직 개편 및 재산관리 제도 등 종단 전반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태고종 종단사간행위원회(위원장 수열)는 종단의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종단사 전산화DB와 홍가사 연구서적을 종회에 앞서 봉정했다.

노덕현 기자

# 내부 조력자 조사·청산 등 과제 '산적'

##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기의 과제는?

1980년 10월 27일 새벽 2시. 조계종 총무원 이하 전국의 주요사찰 5731곳에 신군부의 계엄군이 난입해 당시 총무원장인 월주 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수년 동안 언론을 통해 불교를 비위집단으로 매도한 10 · 27법난.

근대 한국불교사상 최대 수난이 발생한지 30년 후인 2009년 12월 9일,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기 체제를 맞았다.

1기 심의위는 법제정 이후 1여년에 불과한 짧은 활동기간에도 지원단 조직 확립, 피해신청 접수 및 조치(41명 접수/30명 조치), 피해사실 조사 등 적지않은 성과를 낳았다. 또 매주 원로 스님 등을 방문해 피해신청 의사를 독려하고 역사교육관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백서제작전담반을 구성해 기록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정부에 의한 종교편향의 청산은 또 다른 과제를 낳고 있다.

◇내부조력자 조사 및 청산= 10 · 27법난 당시 불교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세력 가운데는 신군부 정권뿐만 아니라 불교계 내부 인사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조력자를 밝히는 것은 차후 불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선 심의위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조력자 처우에 대한 사법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박충신 지원단장 등 일선 관계자들은 "피해 사실 조사로 원로 스님 방문시 종단 내 예전 일을 들추기 꺼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렇듯 관계자 증언 및 기록 확보에 동참을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도 시급한 문제다.

◇역사교육관 사업 조사 확정=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올해 10 · 27법난 관련예산은 약 36억원. 이 중 역사교육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예산은 5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조계사로 내정됐던 종단의 방침이 심의위와 새 집행부의 전면 재수정으로 변경이 불가피 한 만큼 후보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관련 법안 재정비= 역사교육관 건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담당 법인 설립과 법적 근거 마련이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 2010년 6월까지로 위원회 활동을 명시한 10 · 27법난 특별법은 3년 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중이다. 관계자들은 각 당이 합의한 점을 들어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등이 명시된데 비해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소속 종단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점이 미비점이다. 특히 차후 기념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법난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조명되고 피해 배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 28년이 지난 후인 2008년 3월부터였다. 10 · 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 불사는 30년의 세월을 넘어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범종단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다.

노덕현 기자

# "승가교육 근간 세우기 주력"

## 조계종 교육원 제8기 교육위원회 구성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승가교육 발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제8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7기 교육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일 제8기 교육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제8기 교육위원회는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법안 스님(미래연구소 소장), 정호 스님(무설연구소 소장), 원소 스님(불학연구소 연구위원), 명법 스님(운문승가대 교수),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위원회는 '선(禪)의 현대화' '불교의 세계화' 등 현대적 승가상에 남다르게 고민하는 다양한 경험 · 관심 · 사고의 소유자들로 꾸려졌다는 평가다. 특히, 홍사성 편집인은 재가자로서는 처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인 스님은 "교육원의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이란 새 모토에 부합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며 "교육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승가교육의 방향과 근간을 바로 하는데 주력하겠다. 한국속 불교의 틀을 깨고 넘는데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 포교연구실장 정호 스님 등 인사

## 조계종 포교원, 8일 신규 종무원 임명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2월 8일 포교원장실에서 포교원 신규 교역직 종무원 임명식을 개최했다.

신규 교역직에는 포교연구실장에 정호 스님(용인 대각사 주지), 포교국장에 남전 스님(전 용주사 포교국장),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원명 스님(광명 금강정사 주지, 광명불교환경연대 대표)을 임명했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 신도국장 정무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은 모두 재임됐다.

혜총 스님은 임명장 전달에 앞서 "33대 총무원 집행에 포교원도 적극 동참해 포교원, 총무원, 교육원이 힘을 합쳐 대작불사를 이룰 것"이라 "포교원 복무에 최선을 다해 종단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언 기자

# 서호노인복지관 등서 소외계층 격려

## 자승 스님, 직지 대모 박병선 박사도 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을 찾아 직접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12월 10일 수원 서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연말 독거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나눠드리는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오른손을 다친 와중에도 자승 스님은 직접 밥과 국, 반찬을 어르신들에게 드리며 건강을 기원했다.



10일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박병선 박사를 위로하는 자승 스님.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수원 성빈센트 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직지(直指) 대모 박병선 박사를 위로했다.

자승 스님은 "박 박사님의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와 인연을 맺고 큰 일을 하셨다"며 "하루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완쾌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박 박사에 쾌유를 기원하는 금일봉과 함께 2005년 조계종이 발간한 <직지> 영어본과 한글본을 선물했다.

박 박사는 "지장보살의 가피로 원장 스님이 와 주신 것 같다"며 쾌차 후 조선의궤 2집에 대한 집필 의사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금강산 방문 재개’ 불교평화연대 성명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다. 우리는 단결해야 살 수 있다.”

불교자비평화실천중앙협의회(이사장 황정, 이하 불교평화연대)는 7일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방문을 재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불교평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불교는 60년 분단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조석으로 부처님 전에 발원하고, 상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노력해왔지만 현 정부가 아직도 금강산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속히 금강산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민족이 60년을 기다려 성사된 금강산 방문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현 정부가 대승적 정치결단을 내려 남북 형제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불교평화연대는 “앞으로도 우리조국의 통일과 단결을 발원하는 불공을 드릴 것”이라며 현 정부에 금강산 방문 재개를 촉구했다.

박선주 기자

# 초심으로 돌아가 북 돕기 ‘앞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월 이후 옥수수 1만톤 북에 지원” 밝혀

북한이 남측 당국의 옥수수 만 톤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민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영담)은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9월 이후 옥수수 1만톤을 북한에 지원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사업을 통해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1996년 설립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 단체는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9월 1일 1차로 옥수수 4500톤을 중국 단둥~북한 남포항 해로(海路)를 통해 지원한 데 이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나머지 5500톤의 옥수수를 단둥~신의주간 철도(육로)를 통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돈 40억원어치다. 이 단체는 또 최근 옥수수 1000톤을 추가 지원한 사실도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이 9~11월 추진한 ‘북한돕기 캠페인’으로 총 1만톤의 옥수수를 북에 전달했다. 이는 올 한해 민간단체차원의 원조 중 최대 규모이다.

강영식 사무총장은 “어려워만 지는 북한경제와 현 정부들어서 위축된 대북지원 사업을 보며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북한돕기 캠페인을 진행하자 결정했고, 이에 지난 6월부터 동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사무총장은 “영담 스님이 6월 23일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창립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도 우리가 다시금 북한돕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번 옥수수지원으로 단체 내부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간도 1만톤을 지원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민간단체 차원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원조 중 최대 규모이다.

또, 이번 옥수수 지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와 종교계가 동참했으며 단체 회원들도 십시일반으로 참여했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고 북한이 긴급지원을 호소하던 1996년 6월 21일에 창립된 한국의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6대 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조직이다.

2007년에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NGO 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적지원 · 평화 · 남북통합 NGO로 거듭났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 혜총 스님 등 대원상 선정

## 청안 스님·박성배 교수 등… 시상식은 23일


혜총 스님.


청안 스님.


박성배 교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2월 8일 신라호텔에서 제135차 이사회의를 열고, 제7회 대원상 수상자를 선정 · 발표했다.

대원상 대상 승가부문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 스님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고, 재가부문은 박성배 美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 교수가 수상했다.

단체부문은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대표 법등)이 불교미디어콘텐츠 부문은 하훈(NamuArt 대표)가 수상했다. 특별상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대표 도경)와 이경재 실상사 작은학교 교장, 김영수 불교조각실 Dharma 대표가 뽑혔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원상(大圓賞)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자 마련된 상이다. 진흥원은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과 전파를 위해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4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법당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대상은 각 1000만원, 특별상은 각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조동섭 기자

# 사찰에너지 관리 지침 등 ‘필요’

##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 환경위 ‘사찰에너지 개선’ 토론회

종교기관 최초로 사찰에 신 ·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와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가 공동으로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에너지 사용방안 개선과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표는 △사찰 에너지진단 및 사찰에너지효율화방안 (서백호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사찰내 신 · 재생에너지 적용방안(윤선우 LG전자 차장 등) △사찰림의 대체벌목과 조림, 사찰림 활용방안 강구(신준환 국립산림과학원 부장 등) △신재생에너지적용 및 조림에 따른 사찰경관 연구(이애경 동국대 교수)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주경 스님, 장명 스님(중앙종회 의원),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가 맡는다.

서백호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은 ‘사찰 에너지 진단 및 사찰에너지 효율화 방안’ 발표문을 통해 컴퓨터, 조명관리, 보일러, 열관리 등 총체적인 사찰 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찰에너지기구의 효율적 관리, 사찰에너지시스템 관리를 위한 지침 및 관리체계 마련,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 활용, 에너지 설비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활용 등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윤선우 LG전자 차장과 이명규 LG전자 과장은 조사대상인 10개 사찰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발표를 통해 “사찰에 고효율 공기열원 히트펌프와 신 · 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적용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신준환 국립산림과학원 부장과 천정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조사대상 10개 사찰의 임상도와 바이오매스 추정결과를 정리하고 특히 양산 내원사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사례를 분석, 사찰림의 임목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신 · 재생 에너지적용 및 조림에 따른 사찰경관연구’를 맡은 이영경 교수는 “태양광 시설 설치는 전통사찰의 경관에 매우 부정적이므로 설치 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며 ‘신 · 재생 에너지 이용 시 사찰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2010년 1월 정책연구를 마무리 짓고, 최종보고서를 발간한다.

박선주 기자

# ‘코리안 특급’의 비결은 ‘명상’

## 박찬호 선수 서울대서 특강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불자 선수 박찬호(사진). 서른 일곱, 야구선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코리안 특급’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명승부를 보여준 그가 자신이 부상과 부진을 거듭하면서도 재기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마음공부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박찬호는 11월 26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내가 경험한 메이저리그’를 주제로 특강했다. 박 선수는 “부진에 빠져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면서 “그때마다 팬들의 응원 메시지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부진을 극복했다”고 밝혀 청중을 감동시켰다.

“시골이었던 공주에서 그저 야구를 잘하고 싶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시련과 고통이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나를 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서 찾은 ‘나’는 박찬호 선수를 되살렸다. “‘야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가짐은 박찬호를 변화하게 했다. 구원투수로 2번 등장해 3회 무실점의 쾌거를 얻어냈다. 그 페이스가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박찬호를 이끌었다. 박 선수는 리그에서 인정받는 투수로 재평가됐다.

이에 앞선 9월 11일 MBC 스페셜 ‘박찬호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 편에서도 박찬호의 자기수행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프로그램에서 박찬호는 “젊었을 때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절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도 배웠다.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때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고 말해, ‘코리안 특급’의 원동력이 마음공부에 있음을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자연에 대한 폭력 참회하자”

## 종교환경회의 15일 ‘4대 교단 공동 기도회’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강행되는 현시점을 생명의 위기로 진단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개발사업 저지를 발원하는 ‘4대 종단 공동 기도회’를 개최한다.

오영숙 수녀(사랑의 씨튼 수녀회)의 사회로 진행되는 기도회의 1부는 청화 스님(前 대한불교조계종 육원장)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해 △4대 종단 입장발표 및 기도회 △각 종단별 의식 △기도 △생명의 노래 △공동선언문 낭독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는 종교인 행진 및 한나라당 대표 면담 자리가 마련된다.

종교환경회의는 “생명은 종교 본연의 자리이며 생명을 보살피는 일은 종교인의 신성한 의무다”며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회개하고 자신과 시대를 정화하기 위해 4대 종단 공동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각 종단별 주요 지도자와 신도들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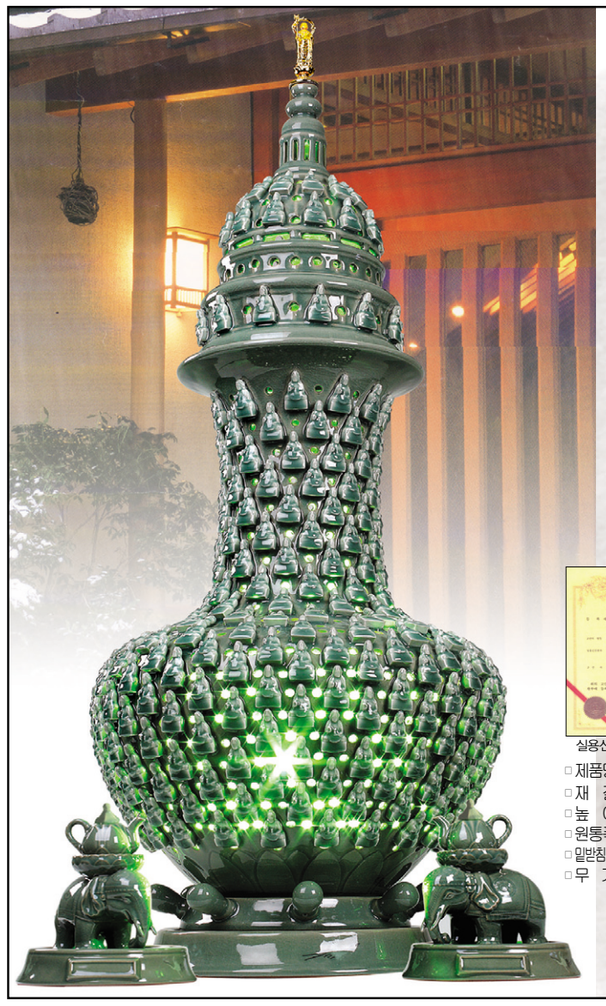
종교환경회의는 종교 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해 지역사회 공동체 · 친환경적인 생명살림의 초석이 되고,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통해 문명사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2001년 창립한 4대 종교(불교,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단체들의 연대모임이다.

박선주 기자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빚,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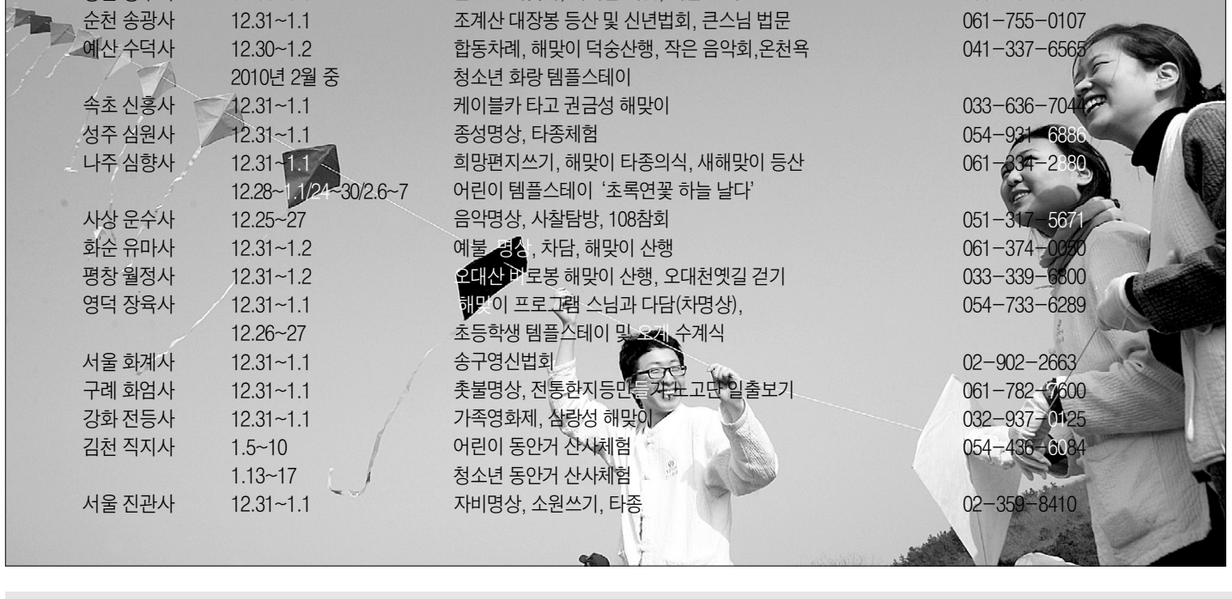
# 새해 새희망 새꿈 바로 이곳에…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해넘이 · 해맞이 템플스테이' '어린이 · 청소년 영어 · 한문 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영동 반야사는 2010년 호랑이 해를 맞아 호랑이 산신령에게 소원을 기원하는 '백화산 호랑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예산 수덕사는 합동차례, 서산마애불 등의 문화유적지 순례, 산사작은 음악회, 온천욕 체험 등 종합 문화체험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인제 백담사는 12월 25~27일 '차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윷놀이,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해넘이 해맞이 행복' 템플스테이, '꿈 · 희망 · 도전 · 행복 템플스테이'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평창 월정사는 스키캠프, 대관령 눈꽃축제, 가족 바로세우기 심리치유 등으로 지역문화와 겨울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올해는 고즈넉한 사찰에서 2010년 새해를 뜻 깊게 맞아보자.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사찰 | 일정 | 프로그램 | 연락처 |
|---|---|---|---|
| 공주 갑사 | 12.31~1.1 | 새해 타종, 새벽예불, 고구마 흰 떡 구워먹기, 소원지 작성 | 041-857-8981 |
| 경주 골굴사 | 12.27~1.31 | 초중학생 수련회, 선무도, 승마, 한문공부, 영어회화 | 054-744-1689 |
| 서울 금선사 | 12.31~1.1 | 삼각산 해맞이 산행, 촛불명상 | 02-395-9911 |
| 김제 금산사 | 12.31~1.1 | 새해 발원문 쓰기, 해맞이 산행, | 010-6589-0108 |
| 보성 대원사 | 12.29~31 | 단식명상, 용서 화해 감사하기 명상 | 061-852-1755 |
| | 1.22~24/29~31 | 부모님과 나를 인정하기, 서예, | |
| 해남 대흥사 | 12.31~1.1 | 두륜산 산행, 108배하며 염주만들기 | 061-534-5502 |
| 성주 도솔암 | 1.1~3 | 산속에서 즐기는 전래놀이, 한글 반야심경 암송, 자기 돌아보기 | 054-931-0175 |
| 해남 미황사 | 12.31~1.1 | 해넘이 노을감상, 달마산 해맞이, 연등의식 | 061-533-3521 |
| | 1.3~9 | 한문학당, 문화답사 | |
| 영동 반야사 | 12.31~1.1 | 호랑이산신령에게 편지쓰기, 탑돌이 | 043-742-4199 |
| 영월 법흥사 | 12.31~1.1 | 소원등 날리기, 장작패기, 가마솥에 호박죽 쑤기 | 033-375-9173 |
| 인제 백담사 | 12.31~1.1 | 가족연만들기, 새희망 연날리기 | 033-462-6969 |
| 가평 백련사 | 12.31~1.1 | 잣나무 숲길 걷기 명상 | 031-585-3855 |
| | 1.19~21 | 어린이 영어캠프 | |
| 장성 백양사 | 12.31~1.2 | 백양사 암자 순례, 스님과 차담, 해맞이 오름 | 061-392-0434 |
| | 1.17~20 | 어린이 영어캠프 | |
| 부산 범어사 | 12.31~1.1 | 연등만들기, 희망편지 쓰기, 해맞이 타종 | 051-508-5726 |
| | 1.5~8 | 어린이 영어캠프 | |
| 진천 보탑사 | 12.31~1.1 | 새해기도, 탑돌이 | 043-533-6865 |
| 서산 부석사 | 12.31~1.1 | 해넘이 노을감상. 도비산 해맞이. 새해 타종식. 연등의식 | 041-662-3824 |
| | 1.17~23 | 어린이 겨울 충효한문학당 | |
| 동해 삼화사 | 12.31~1.1 | 타종식, 철야정진 | 033-534-7661 |
| | 12.28~30 | 어린이 겨울캠프, 썰매타기, 명상, 부모은중경 독송 | |
| 고창 선운사 | 12.31~1.1 | 천마봉 해맞이 등반 | 063-561-1422 |
| 창원 성주사 | 12.31~1.1 | 불모산 해맞이, 가마솥 체험, 예절 교육 | 055-262-0108 |
| 순천 송광사 | 12.31~1.1 | 조계산 대장봉 등산 및 신년법회, 큰스님 법문 | 061-755-0107 |
| 예산 수덕사 | 12.30~1.2 | 합동차례, 해맞이 덕숭산행, 작은 음악회,온천욕 | 041-337-6565 |
| | 2010년 2월 중 | 청소년 화랑 템플스테이 | |
| 속초 신흥사 | 12.31~1.1 |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 해맞이 | 033-636-7041 |
| 성주 심원사 | 12.31~1.1 | 종성명상, 타종체험 | 054-931-6886 |
| 나주 심향사 | 12.31~1.1 | 희망편지쓰기, 해맞이 타종의식, 새해맞이 등산 | 061-334-2380 |
| | 12.28~1.1/24~30/2.6~7 | 어린이 템플스테이 '초록연꽃 하늘 날다' | |
| 사상 운수사 | 12.25~27 | 음악명상, 사찰탐방, 108참회 | 051-317-5671 |
| 화순 유마사 | 12.31~1.2 | 예불, 명상, 차담, 해맞이 산행 | 061-374-0850 |
| 평창 월정사 | 12.31~1.2 | 오대산 비로봉 해맞이 산행, 오대천옛길 걷기 | 033-339-6800 |
| 영덕 장육사 | 12.31~1.1 | 해맞이 프로그램 스님과 다담(차명상), | 054-733-6289 |
| | 12.26~27 | 초등학생 템플스테이 및 오계 수계식 | |
| 서울 화계사 | 12.31~1.1 | 송구영신법회 | 02-902-2663 |
| 구례 화엄사 | 12.31~1.1 | 촛불명상, 전통한지등만들기 자묘고관 일출보기 | 061-782-7600 |
| 강화 전등사 | 12.31~1.1 | 가족영화제, 삼랑성 해맞이 | 032-937-0125 |
| 김천 직지사 | 1.5~10 | 어린이 동안거 산사체험 | 054-436-6084 |
| | 1.13~17 | 청소년 동안거 산사체험 | |
| 서울 진관사 | 12.31~1.1 | 자비명상, 소원쓰기, 타종 | 02-359-8410 |



# "불교는 행복 네비게이션입니다"

## 서운사 불교문화센터 서진 스님 '정토삼부경' 첫 강의

"불교는 행복을 향한 네비게이션입니다."

생활 속 행복찾기를 위한 포교에 앞장서는 서울 서원사 불교문화센터에서 12월 2일 <정토삼부경> 첫 강의가 진행됐다. 서진 스님(사진)이 전하는 <정토삼부경>은 비유부터 신선했다.



서진 스님은 "<정토삼부경>은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이루어진 정토교의 소의경전으로<무량수경(無量壽經)> <관(觀)무량수경> <아미타경(阿彌陀經)> 세 경전을 지칭한다"며 "<무량수경>에는 법장 비구의 48대 서원과 장엄한 극락세계의 광경, 그리고 어떤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행복 네비게이션의 원리, 용도, 사용법, 사용의 실례 등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관무량수경>은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의 왕자이자 아자세왕의 생모인 위제희부인을 대상으로 설해진 경이다. 유폐된 왕비 위제희 부인을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극락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르침인 16관법 수행을 일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성제, 팔정도가 발전해서 나온 경전으로 행복의 네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미타경>은 <무량수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집약해 놓은 아주 짧은 경전"이라고 말했다.

서진 스님은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현대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복해 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며 "행복한 삶은 불행, 슬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삶속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모든 인과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인 업에 달려있다. 스스로를 바꾸기 전에 주변 환경만 고치려 한다면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년간 정토학 연구에 매진해온 스님은 이번 강의를 통해 <정토삼부경>이 불교 경전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치, 역사 등을 알림과 동시에 경전을 통해서 자신을 반조할 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진 스님은 "<정토삼부경> 강의는 삶의 관점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주변의 환경까지도 변화를 주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는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서울 서원불교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02)983-7484

이상언 기자

## 신행게시판

**●위빠사나 기본 · 집중수행=**보리수선원은 2010년 1월 11~16일, 2월 12~18일 위빠사나 기본수행을, 1월 16~23일, 2월 13~20일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기본수행은 참가비 7만원, 집중수행은 15만원이다. (02)517-2841

**●집중수련법회=**한국테라와다불교 마하보디선원은 경주에서 12월 19~27일 집중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20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54)746-9750

**●마음바꾸기 명상클리닉=**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상담연구원은 12월 17일부터 5주 과정으로 부천 파드마요가명상센터에서 마음바꾸기 명상클리닉을 실시한다. 염지관명상 및 호흡, 느낌에 대한 강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실질적 대처능력 실습, 동작명상, 감정형 영상관법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치유전문 종사자를 비롯한 누구나 참가가능하며 수강료는 20만원이다. 모집은 선착순 10명. (010)5555-7103

**●제12회 마음공부포럼=**안양 한마음선원은 12월 20일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제12회 마음공부포럼을 실시한다. 포럼은 현대인의 삶속에서 불법의 의미, 생활 속 참선 수행과 실천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선착순 입장으로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031)471-6926

**●철야 참선법회=**봉화 축서사는 12월 19일 저녁 9시부터 축서사 대웅전에서 철야 참선법회를 실시한다. 무여 스님의 법문에 이어 신참자와 구참자 참선교육이 따로 진행된다. 동참금은 1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54)672-7579

## 의료봉사연합 지도법사

## 명진 스님 위촉



불교계 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총단장 구자선) 1만명 무료진료 기념 자선 콘서트에서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 · 사진)이 의료봉사활동연합체 공동지도법사로 위촉됐다.

명진 스님은 "불자로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불자"라며 "3년 6개월 동안 80여명의 봉사단, 250여 정기후원회원 등이 1만여 명을 진료한 것을 치사하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갑다연우야, 마하의료회(회장 손경수),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한국불교선재마을의료회(회장 이강훈)가 함께하는 의료봉사활동연합체는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새터민을 대상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청화스님이 전하는 희망과 행복찾기




312쪽 값 12,000원

스님은 책에서 특별히 가르치거나 훈계하려 하지 않는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인생에 대한 바른 안목을 얻고, 인격적으로 허물없는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 연합뉴스

이 책은 때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로, 때로는 시인의 감성과 출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해 성찰과 행복, 각성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스님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 불교방송

힘든 세상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행복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인간의 삶 쪽에서도 불교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 현대불교

청화스님산문집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개미 T. 02-704-2546, F.02-714-2365

# 종교 초월한 자비탁발 나선다

## 옥천불교사암련 15일 옥천읍내 일원서

충북 옥천군 내 스님과 불교신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탁발정진을 실시한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는 12월 15일 오후 1시 청주 종교인 사랑방 회원(청주 수동성당 곽동철 신부, 학림교회 이근태 목사, 청주 노동교회 조순형 전도사, 청주 관음사 현진 스님, 보은 관기교회 배영도 목사, 보은지역 자활센터장 성낙현 목사, 청주 삶터교회 김태종 목사, 원불교 청주 상당교당 박신유 교무, 청주 용암동산교회 최현성 목사) 등과 함께 옥천읍내 일원에서 탁발정진을 봉행한다.

탁발정진 기도에 앞서 참가자들은 옥천군청에서 군정발전 기원문을 낭독한 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군민 동참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옥천경찰서와 옥천역, 옥천재래시장, 농협옥천군지부 등을 방문해 탁발을 한다. 이번 탁발을 통해 모은 성금과 각 신도회 자비보시 성금은 군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혜철 스님은 "나라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정성을 모아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해에는 탁발을 통해 어려운 가정 100가구에 연탄과 쌀 부식 등을 제공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 안일사, 남구청 '사랑의 김장나누기' 동참

대구 안일사(주지 선광)는 12월 4일 대구 남구청이 주최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광 스님이 기증한 배추 2000여 포기로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등 지역단체 봉사자들이 김치를 담궈 결혼 이주여성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선광 스님은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5~6차례 봉사하고 있는 안일사 신도들의 자비나눔 봉사활동을 다음 해에는 더욱 알차고 폭넓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마음 편하면 세계가 편안"

## 은해사, 일타 대종사 10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12월 8일 영천 은해사에서 봉행된 일타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 모습.

12월 8일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에서 '동곡당 일타 대종사 10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행사에서는 식순 의식에 따라 일타 대종사의 행장소개(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와 평소 육성녹음 법문 '한마음이 편안하면 세계가 편안해진다'는 법어 청취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 종회의원 스님, 총무원 교역직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 주지스님, 문중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됐다.

50여 년간 일타 스님을 모신 문도대표 혜인 스님은 "누구에게나 섭섭함 없이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정을 듬뿍 주셨던 은사스님을 기억할 때마다 스님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고 회고했다.

일타 스님은 1929년 9월 충남 공주에서 출생해 1942년 양산 통도사에서 고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4년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하루 3000배씩 7일 기도한 스님은 오른쪽 네 손가락을 연비하며 "오로지 중노릇만 잘하겠다"고 발심했다.

스님은 30대 젊은 나이에 대법사로 추앙 받아 전국 여러 사찰에서 걸림 없는 교화의 길을 열어 보였다. 일타 스님은 1976년부터는 해인사 율주로서 <사미율의> <불교와 계율> 등 계율 관련 서적을 출간해 일제 강점기부터 무너졌던 한국불교 계율 정립에 힘을 쏟았다.

이후 해인사 지족암에 선방을 열고, 은해사 조실로 주석한 스님은 1999년 11월 29일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미국 LA 고려사 포교 등 한국불교의 세계 전법에도 앞장서왔다.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 폐지 주워 후원금으로 보시해

## 이효정 할머니 선행에 웃음꽃 만발


대전 서구노인복지관장 장곡 스님(왼쪽)에게 이효정 할머니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몸을 움츠리게 하는 쌀쌀한 날씨, 어려운 살림에도 본인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노보살이 있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12월 7일 이효정 할머니(77)의 선행으로 웃음꽃이 만발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10여만 원을 복지관에 후원금으로 선뜻 전달했다.

장곡 스님은 전달식에서 "이 후원금은 가진 자들의 몇 천만 원 보다 값진 것"이라며 "좋은 일에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이효정 할머니는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어르신이다.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시니어클럽, 지역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번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

이 할머니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타인에게 도움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폐지를 모아 본인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마음을 냈다.

이효정 할머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나면 갑자기 몸이 더 안좋아졌지만 병원에 갈 치료비가 없어도 절대 모아둔 돈은 쓰지 않고 모았다. 다행히 그때마다 무료진료 연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 보광당 도훈 스님 열반

## 청도 금용사, 29일 다비영결식 봉행


11월 29일 청도 금용사에서 봉행된 도훈 스님 영결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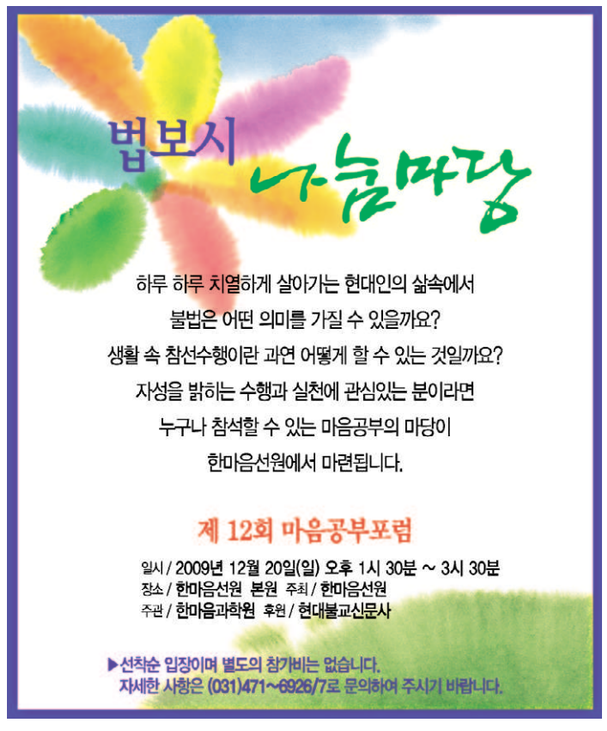
청도 금용사 보광당 도훈 스님이 11월 27일 열반해, 금용사 경내에서 29일 다비 영결식이 봉행됐다.

맏상좌 효준 스님(금용사 주지)은 영결식에서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교와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결식장에는 종도스님, 청도사암연합회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청도 금용사에서는 12월 3일 초재를 시작으로 스님의 49재가 봉행된다.

도훈 스님은 세수 77세로 1957년 대성암 영신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산 스님으로부터 보광당의 법호로 비구니 구족계를 받은 도훈 스님은 견성암 양진암 등 제방 선방에서 20여년 동안 참선 수행정진을 해왔다. 이후 스님은 청도 금용사에 주석하면서 수행 정진에 힘써온 스님이다. (054)372-5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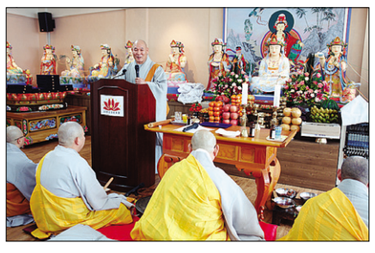
손법천 대구지사장



# "원력 가득한 도량으로 만들자"

## 보문시현사 33응신목관세음보살 점안


법화종 대구 보문시현사에서 봉행된 33응신목관세음보살 점안법회 모습.

대한불교법화종 대구 보문시현사(주지 일우)는 12월 5일 경내에서 '33 응신목관세음보살'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법화종 지역교구 원장스님, 종도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화종 중앙종회 의장 도정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으로 중생의 고통을 멸하게 하는 화신으로 도심 사찰에서 모시기 힘든 부처님을 장엄하게 봉안하게 돼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우 스님은 "바른 믿음과 신행으로 33관음을 봉안한 우리 절을 원력과 홍심이 가득한 법화의 꽃이 활짝 핀 도량으로 심안의 점을 찍어 나아가는데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그 동안 각자의 서원을 담아 부처님 모시는 불사에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무상보리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해 가겠다"며 성원해준 대중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자비화합 소리…'

## 경북불교대 개교 10년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개교 10주년을 기념한 합창단 연주회가 12월 4일 '자비화합 소리 위를 걷다'를 주제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연주회에서는 불광사 합창단 40명이 3부로 나눠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의 주인' '인생의 무상함' 등 9곡의 찬불가로 청량한 음성공양을 펼쳤다.

또 특별출연으로 경북대 예술대 교수의 단소 독주, 한국전통연희단의 판굿 등도 무대에 올려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경북불교대학 학장 돈관 스님(은해사 주지)은 "불광사 합창단이 더욱 더 굳건한 신심으로 자비화합하고 열반의 불꽃처럼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해 외 WORLD

# 마하보디대탑 관리권 놓고 대립

## 인도행동위원회, 비하르주정부에 운영권 강력 요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불교유적지를 불자가 관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인도 보드가야에 있는 마하보디대탑이다.

인도 언론인 시피닷컴(sify.com)은 최근 보도를 통해 "인도 불교계 스님들이 비하르주 보드가야에 위치한 마하보디대탑과 사원에 대한 관리권을 비하르주(州)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하보디대탑은 2550년 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에서 11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적지로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신성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교유적을 비하르 정부는 1949년 관리규정을 세워 불교계가 운영권을 요구할 때마다 규정을 언급하며 거부해왔다. 게다가 정부가 규정의 개정작업까지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 불자들과 스님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다.

인도행동위원회 위원장 브하단트 아난드(Bhadant Anand)회장은 "비하르 정부가 인도 불자의 마하보디대탑의 운영권 요구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대탑.

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우리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위원회는 네트워크를 강화, 조직을 인도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대탑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난드 회장은 "우리는 위원회 입회를 위한 멤버들을 결성해 인도 전지역에 위원회사무소를 배치하고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여론을 모으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난드와 같은 인도 스님들은 정부의 마하보디대탑 관리 규정 개정 지연에 대해 "대탑을 비불자들에게 맡겨놓는 것은 정부의 음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우리는 왜 비불자들이 성스러운 붓다 사리를 관리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난드는 "사원, 교회, 이슬람 성지 등은 모두 해당 종교계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마하보디대탑과 사원만은 그렇지 못한가"라며 "1949년 이후 불교계는 마하보디 관리에 대한 권리가 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원을 운영하는 '보드가야사원 운영위원회'는 불자 네 명과 힌두교인 네 명이 보디가야 지역 행정관과 3년간 관리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나은 기자

# 파키스탄 불교유적지 파괴 '위험'

## 우상 숭배 반감 지닌 탈레반 반군 문화유산 포격 위협

파키스탄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탈레반 군에 의해 간다라 유적 등 고대 불교 유산이 파괴될 위험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 펀자브주(州)북서쪽에 위치한 인근 불교유적지 탁실라(Taxila)의 박물관 큐레이터 압둘 나시르 칸은 최근 "우상 숭배에 반감을 지닌 탈레반 군 때문에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은 곧 있으면 파괴될지도 모른다"라며 "탈레반 반군은 문화의 적이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내버려 둘 순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0㎞ 떨어진 소도시인 탁실라는 기원전 5세기부터 2세기까지 불교 중심지로 고고학 유산이 많은 곳이다.

음악 · 예술 · 여성교육 ·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탈레반은 불교유산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어서 2001년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1500년이 된 바미안석굴의 불상 2개를 폭파해 파괴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파키스탄 탈레반이 북서부 지역과 이슬라마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면서 문화유산 역시 포격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어졌으며 진행중이던 20여개의 외국의 연구개발 활동도 중단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내전이 격화된 스와트 지역의 경우 박물관 건물이 포격을 맞아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 선진 다문화사회 정착에 총력

## (사)한국다문화센터 창립 1주년 기념식 ·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 창단공연

중국, 일본, 베트남, 파라과이 등 7개국 다문화가정 어린이 33명이 한데 모여 무지개빛 희망가를 불렀다.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 12월 4일 출범한 (사)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김의정)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강대 매리홀에서 기념식과 함께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 창단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보선 스님, 무원스님(한국다문화센터 정책자문단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진영 의원(한국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 김세형 매일경제 이사 등 내빈을 비롯해 200여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는 한국다문화센터 2기 임원진 선출과 법무부로부터 컴퓨터 200대를 받는 전달식, 2009년 다문화사업 후원사 감사패 전달 시간 등을 가졌다.

2부 행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 '레인보우코리아'의 창단공연이 진행됐다. 합창단 어린이들은 '개구리' '푸르다' 등 동요와 '도라지' '경복궁타령' 등 민요를 합창했으며 가수 서영은, 경찰악대의 찬조출연이 이어졌다.

정치와 종교를 초월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문화 글로벌 사회


7개국 다문화가정 어린이 33명이 12월 4일 한국다문화센터 창립 1주년을 맞아 합창공연을 선보였다.

를 선도하기 위해 창립된 한국다문화사회센터는 창립 이래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센터는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1:1 멘토링 △국회다문화포럼 개최 △다문화통합기본법 발의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 창단 △다문화정책자문단 출범 등의 사업에 주력해왔다.

센터는 자녀(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및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부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대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케피터즈(kepitez) 봉사단'을 출범시켜 3~8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상대로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다.

멘토링을 받는 자녀 연령층은 두 살 배기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양하며 방과 후 학습지도 형태로 진행됐다.

김성회 사무총장은 "제1기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중적으로 학습 소외를 겪는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보살필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선발하는 2기는 화상(온라인교육) 멘토링을 통해 자녀의 학년별,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다문화센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코리아'는 7월에 창단돼 매주 2회 2시간씩 합창 및 안무연습을 해오고 있으며 'KBS 사랑나눔콘서트' '드림하모니 합창제' 등에 출연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전국 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를 계획해 다문화사회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센터는 또한 다문화정책자문단을 8월 발족해 국회다문화포럼에 대한 정책적 서포트를 비롯, 한국의 다문화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점검을 진행해오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교육 △문화 △건강 △법률과 인권 △언론 △거버넌스(민관학 통합 연계망)의 6개 분과별로 매월 토론회를 열어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김성회 사무총장은 "중도편입, 학교부적응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교육과 일반인의 다문화이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사업 외에 2010년에는 이들을 위한 '다문화마을'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다문화관련 교육기자재,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종합연구센터와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선진 다문화사회를 만들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 소액대출 심포지엄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12월 22일 사회복지정책포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개최한다.

7회를 맞는 이번 포럼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주제로 다룬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최홍관 팀장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1부 발제를, 오정민 前 사회복지법인 내원마하병원 기획행정실장이 '불교계 복지시설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운영과 실제'를 발표한다. 이나은 기자

# 송산노인복지관 '최우수' 평가 받아

## 보건복지가족부 · 경기복지미래재단 등에 '최고 점수'

전국노인복지관 평가에서 불교계 복지관이 최우수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암사에서 운영하는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석봉)은 12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주관하는 전국노인복지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경기복지미래재단(이사장 서상목)에서 시행한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는 등 불교계 최우수 복지관으로서 자리를 다지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39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6개 분야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된 것이다.


송산노인복지관이 특화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1 · 3세대 밴드봉사대의 활동 모습.

운영위원장 일면 스님과 석봉 스님은 "이번 전국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정부시 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노인복지관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실사로 1999년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해왔다. (031)852-2595

이나은 기자






# "청정한 마음의 본성에서 보리심 생긴다"

## 보광 스님, '정토교에서의 깨달음 문제' 한국정토학회 학술세미나서 발표

정토교는 염불 등으로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해 극락왕생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신심을 바탕으로 하는 타력신앙 정토교에서 깨달음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한국정토학회(회장 태원)는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승불교에서의 깨달음의 문제'를 주제로 제1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은 주제발표 '정토교에서의 깨달음 문제'를 통해 "발보리심이 정토왕생의 정인(正因)이며, 깨달음의 첫걸음"이라 강조했다.

보리심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말한다. 부처의 지위에 들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자로는 무상정진도의(無上正眞道意), 무상도심(無上道心), 도심(道心) 등이라 한다.

스님은 "보리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청정한 마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현상에 의해 생기는 연사보리심(緣事菩提心)과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해 생기는 연리보리심(緣理菩提心)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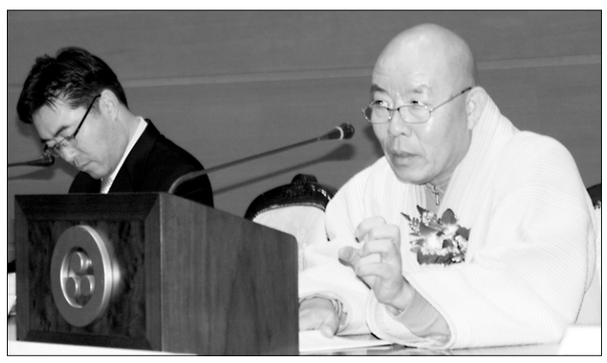
대표적인 보리심은 사홍서원으로, 연사보리심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 공덕과 가피를 체험하거나 믿음으로써 생기는 불심이며,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좋아서 불교를 종교로 갖게 된 것은 연리보리심이다.

하지만 일본 다까미 다이슈 교수에 따르면, 보리심은 대승불교만이 갖는 대표적인 용어로 대승불교 이전에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이란 용어가 없었다.

다까미 교수는 저서 <보리심의 연구>에서 "발보리심과 같은 적극적인 표현은 대승불교에서 나온 용어이지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대승불교의 시작은 발보리심부터이다"라며 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발보리심을 설명했다.

<무량수경>에는 법장 비구가 국왕으로 있으면서 세자재왕여래의 설법을 듣고 무상정진도의를 내 출가한 이야기가 있다. 스님은 "보리심으로 인해 국왕이 법장 비구가 되고, 법장보살이 되고, 아미타불이 된 것"이라 말했다.



12월 7일 한국정토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보광 스님(오른쪽)이 '정토교에서의 깨달음 문제'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사회자 황순일 동국대 교수.

정토교 수행법인 염불에서의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마음가짐도 강조됐다.

보광 스님은 "보리심 없는 염불은 녹음기가 아무리 염불하더라도 녹음기가 왕생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면서 "정토교에서의 발보리심은 극락과 아미타불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내는 것이며, 이 보리심이 깨달음과 왕생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태원 스님도 '발심과 법인에 의한 깨달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보리심 자체가 보살심의 종자이고, 일체 모든 법을 출생하는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보리심을 낸 후에만 어떠한 과(果)를 증득할 수 있다"며 "정토경전 외 다른 경전은 발보리심으로 인한 정각 · 삼매 · 도중생(度衆生)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토경전은 왕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일체개고' '제법무아' '제행무상' '열반적정' 등이다.

태원 스님은 "발심 후 깨닫기 위한 수행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법인"이라며 "법인은 <법구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열반경> <보살지지경>으로 발전했고, 수행은 위빠사나적인 수행법으로 관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법인의 관은 나와 다른 객관의 대상은 고(苦) 아닌 것이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며 "법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일체개고'라 했고, 고통이 시간적으로 항상 변하는 것을 '무상'이라 했으며, 공간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것을 '무아'라고 했다. 고통인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고'가 '공'인줄 알게 돼 청정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권탄준 금강대 교수가 주제발표 '화엄에서의 증득의 문제'를,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묵조선의 깨침에 대한 구조와 그 내용'을, 안준영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염불선에서의 깨달음의 문제'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불교 중흥한 문정왕후 재조명

## 리영자 교수, 불교학술대회서 기조강연



문정왕후는 허응당 보우 선사(1507~1565)와 조선 중기 불교를 부흥시킨 역사적 인물이다.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불교 중흥책은 조선 중기 불화를 조선 전시기를 통틀은 최고 수준의 불화로 제작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서산 · 사명 등 고승이 배출되는 토양을 이뤘다.

불교 중흥에 괄목할 만한 토대를 이룬 업적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조선왕조실록> 등에 부정적으로 기술됐다.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11월 28일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50회 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했다.

리 명예교수는 기조강연 '문정대비의 불교부흥과 한국불교'에서 "조선조 불교사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정대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늘날 한국불교가 이 정도나마 지탱되는 것은 문정대비를 비롯한 몇몇 대비들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몇몇 사료를 비롯해 대중매체에 부각되는 문정대비는 중종의 후비로서 아들 명종의 정치적으로 대행한 자로 비춰진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들 매체에서 문정대비는 수렴청정하며 윤원형 등 윤씨 가족의 영달을 추구하는 간탐 어린 궁중여인으로만 묘사됐다.

리영자 명예교수는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후 승관제도를 만들 때 최고 통솔자인 승통 다음에 '도유나랑'이라는 비구니승을 통솔하는 직책을 둔 것은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면서 "고려 · 조선시대의 여성불교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행사에는 '허응보우의 불교중흥'(고영섭 동국대 교수), '문정왕후의 불교중흥정책'(김상현 동국대 교수), '허응당 보우 선사의 정토관'(동국대 보광 스님), '보우의 불교사상과 유 · 불 융합조화론'(이봉춘 동국대 교수)이 발표됐다.

발표자들은 "불교 중흥의 업적을 토대로 문정왕후와 보우 선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야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조동섭 기자

# 단청의 오방색 학술적 조명돼

## 태경 스님, 연륜연대 · 미술사 학술대회서 발표

단청 등에 쓰이는 청 · 백 · 적 · 흑 · 황의 오방색과 채색의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처음 시도됐다.



태경 스님이 연륜연대 미술사 학술대회서 발표하는 모습.

태경 스님(동국대 박사)은 12월 5일 충북대 목재연륜소재은행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한국목조각상의 수종과 연륜 분석 그리고 미술사적 해석'을 주제로 개최한 연륜연대와 미술사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했다.

스님은 주제발표 '불복장의식에 나타난 오방색과 채색의에 관한 시론'을 통해 "불교에서의 색은 물질적 존재의 총칭을 뜻한다"며 "영어의 'color'보다 훨씬 광의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태경 스님은 <조상경>을 통해 오방색의 종류와 단을 만들 때 채색하는 방법인 채색의에 대해 설명하며, "채색의는 단청에서 채색방법으로 쓰는 도채와 동일하다"는 특이점을 도출했다.

스님은 단청의 빛깔이 <묘길상대교왕경>의 오방색과 가까운 것은 △공의 체득을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의 얼굴색을 불화 · 단청 등에서 사용하는 색의 하나로 정했다는 점 △채색의의 방법으로 불복장의식의 완전한 성취를 그려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비유 이해하려면 의도 바로 알아야"

## 황순일 교수,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주장

"비유를 통해 어떤 내용이 지시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를 사용한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만 한다."

초기경전의 열반에 관한 서술을 예시로, "사전의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비유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12월 4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초기부파불교에서의 비유와 열반'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열반을 '세가지 불(三火)'의 소멸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때, 세가지 불이란 용어 자체의 의미파악보다 이 용어를 통해 탐냄, 혐오, 어리석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번뇌들이 지시된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순일 교수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려면 의도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이미 와수반두(=세친) 등에 의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와수반두의 '물고기와 물결' 비유가 대표적인 예.

와수반두는 <성업론>에서 "신체와 음성의 외적인 변화는 그 마음의 의도를 알게 한다.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결을 일으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물위의 물결이란 외형을 보는 것보다 그 아래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적 언어적 변화를 보고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유에 사용된 용어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비유를 통해 지시된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금동 한국외대 교수가 '깔리다싸의 서정시에 나타난 비유 고찰'을, 최연철 동국대 외래교수가 '비유, 그 불교적 증지에 관한 고찰'을, 최경아 동국대 외래교수가 '자아와 개인에 대한 정의 고찰' 등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 문화재청 명승 8개소 재분류

##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은 명승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8개소를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했다고 12월 7일 발표했다.

이번에 '명승' 지정된 '속리산 법주사 일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 일원' '두륜사 대흥사 일원'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부여 구드래 일원' '서울 백악산 일원' 등 8개소는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관리돼 오던 곳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인정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 재분류됐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재분류 지정된 '명승'의 각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 ·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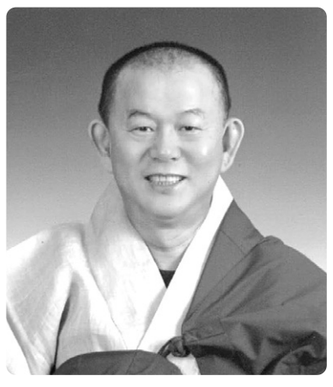
이어 8일에는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 됐다.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春川 淸平寺 高麗禪園)'은 아늑한 분지형을 이룬 입지 환경 속에 계곡, 영지(影池), 소(沼), 기암괴석, 폭포 등이 어우러진 절경을 간직하고 있는 명승지이다. 또,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사상이 내재된 곳으로 이제현, 나옹, 김시습, 이황 등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 머물며 글을 남겼다.

청평사는 경내에 한국 전통 연못의 대표적인 조경시설인 '영지'(조선 초 '쌍지'로 개축), 보물 제164호 회전문, 강원도 기념물 제5호 청평사지, 문화재자료 제8호 청평사 3층석탑 등이 있다. 조동섭 기자


#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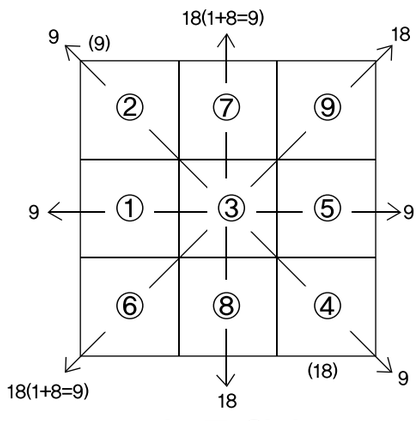
집중 2주완성
저자 : 법화 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월 · 수 · 금 : 오후 2시 – 5시
토 · 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짚어 5분안에 길흉,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 이사방위, 신통법, 조상천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함
■ 사찰 포교당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구단구궁법은 법화 종헌 큰스님께서 만든 특단의 학문입니다.
■ 법화 종헌 큰스님은 본 대학에서만 직강함.
◈ 특전 ◈ ■12월 등록자 수강료(2주) 35만원 ■방문시 교재판매 ■www.psa.or.kr 홈페이지 참조




구단구궁 원리도

◈ 년비결문구수가 ④ ③ ②가 나왔을 때 월·일·시의 해당 구궁문구수를 알아보는 그림

※월(月)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 해당월(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해당비결문구수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① | ② | ③ | ④ | ⑤ |

※일(日)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 날 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비결문구수 | ⑥ | ⑦ | ⑧ | 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날 짜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비결문구수 | 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① | ② |
| 날 짜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비결문구수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 | | | |

※시(時)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 비결문구수 | ② | ⑦ | ⑨ |
|---|---|---|---|
| 해당 시간 | 19~21시 | 11~13시 | 15~17시 |
| 비결문구수 | ① | ③ | ⑤ |
| 해당 시간 | 17~19시 | 21~23시 | |
| 비결문구수 | ⑥ | ⑧ | ④ |
| 해당 시간 | 09~11시 | 13~15시 | 23~01시 |

부산불교전법대학 –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051)467-4665 010-7725-1024

## 일주문



**파라미타청소년 게임중독예방**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12월 12일 풍문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예방을 위한 공개 포럼을 실시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최우수기관 선정**

마하야나불교문화원 이사장 법혜 스님이 위탁운영하는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이 복지부 '2009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종교구 연꽃마을 방문법회**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12월 11일 국군장성부인회 성보회와 함께 안성 연꽃마을 파라밀요양원에서 봉사를 겸한 방문법회를 봉행했다.



**월정사 만월야구단 창단**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2월 9일 직접 구단주로서 불자사회인야구팀 '만월야구단'을 창단했다.



**선본사 경산장학회 장학금 기탁**

경산 갓바위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12월 7일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갑사 2010 희망이웃사랑 성금 기탁**

공주 갑사 주지 태진 스님은 12월 4일 오전 10시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2010 희망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대한2100 토론회 주최**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12월 3일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 2100' 토론회를 주최했다.



**평화재단 북한전문가포럼 개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빈곤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



**해동불교임제종 법계고시**

해동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스님은 12월 6일 청암사에서 법계고시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061)644-7273



**오영교 총장 경영상 대통령표창**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최근 2009 국가품질경영상 교육부문 대통령표창과 2년 연속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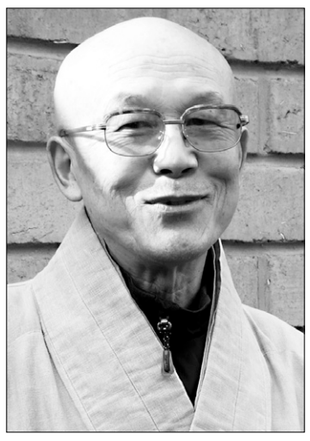
# 마음의 때 벗기고, 몸의 살 빼는 수련

## 활인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 청소년을 위한 단기출가 참선단식수련 실시

"청소년을 위한 간화선 수행 지도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삶의 목표와 인생관을 자리 잡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올 겨울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참선 전문 도량 안성 활인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이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다. 70년대부터 청소년 지도로 유명했던 스님은 청소년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대효 스님은 12월 24~28일, 30일~2010년 1월 3일, 1월 9~13일, 16~20일, 2월 6~10일, 2월 20~24일 활인선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단기출가 참선 단식수련을 실시한다. 이번 수련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간화선을 지도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참가하도록 해 가족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모든 과정은 청소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수련 전 과정을 보호자들이 참관하거나 동참하되 부모님은 자녀에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님은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수련하면서 고뇌를 함께 나누고 자녀의 교육관과 부모로서의 자리를 찾도록 할 것"이라며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청소년 선 수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수련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효 스님.

대효 스님의 수련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식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 접근하는 이들도 있지만 수행을 마친 이들은 스스로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 대효 스님은 단식 수행의 효과에 대해 "체중감량은 물론이고 유소년기부터 생기는 각종 성인병 예방,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불안, 집중력, 기억력, 통찰력, 인내심도 향상 시켜 준다. 자신감으로 창의성 능력 개발과 성격 개조도 가능하다"며 "밥을 먹어야만 배가 차는 것이 아니다. 잠시의 배고픔은 참선을 통해서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간화선과 단식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효 스님은 40여 년 간 선(禪)수행 지도로 수많은 출 · 재가 수행자들의 삶에 빛을 밝혀왔다. 1970년 말 제주도 교육청, 제주지방 검찰청 후원으로 제주도 지역 각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선 수행을 지도하는 등 청소년 수행 포교에 누구 보다 적극적이었다. 대효 스님은 "청소년들을 지도해보면 어른에 비해 기존의 지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 참선 수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다"며 "청소년 스스로가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간화선 체험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 · 연구 중이라는 스님은 "청소년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상처받고 방황하는 청소년 사회문제는 불교를 통해 새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효 스님은 단기 출가 수련에서 법문, 점검, 행선, 좌선, 예불, 선어록 독송, 요가 등을 직접 지도한다. 참가비는 현장에서는 접수비 50만원(사전 접수 40만원)을 받고 전 과정을 마치면 20만원을 되돌려 준다. (031)671-2280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석가산 스님 종정 추대 9일 진천 화랑관 법회



9일 봉행된 가산 스님 종정 추대 법회.

대한불교전통조계종(총무원장 능인)은 12월 9일 충북 진천 화랑관에서 '석가산 스님 종정 추대 법회'를 봉행했다.

각암 스님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원각종 종정 혜철 스님, 중국 육조사 방장 대원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 및 종단 임원과 사부대중 7백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능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시대 거승 가산 스님을 종정으로 받들어 정법을 만방에 떨치자"고 밝혔다.

종정으로 추대된 가산 스님은 종정 상징물을 봉헌 받고 법어를 통해 "애국애족, 정법안장, 대각자존의 의제를 통해 용성 조사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053)325-5288

# "문화재 등 불교 현안 지속 관심"

## 박근혜 국회의원, 조계종 총무원 예방



박근혜 한나라당 국회의원(사진)은 12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현안 해결에 더욱 나설 것을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는 사고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안부를 시작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박 의원의 안부인사에 자승 스님은 "원래 어릴 때 왼손을 썼는데 어른들께서 왼손을 쓰면 고집이 세다고 하셔서 오른손을 썼다. 양손을 자유롭게 써 일상생활엔 큰 불편함이 없다"며 "큰 부상이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양손을 쓰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다"고 화답하며 "압도적으로 종도들의 신뢰를 받으신 것에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예방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발의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에 대해 치하하며 불교계를 비롯한 민족문화 발전에 더욱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은 정부와 민간 합작 기금으로 문화재 보존 및 재해 긴급보수 등에 사용하는 법으로 박 의원의 첫 발의 법안으로 일명 '박근혜 제정법안 1호'로 불린다.

자승 스님은 "물심 양면으로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격려했으며 박 의원은 "현재 문화재보호기금이 400억 수준으로 향후 5000억까지 늘리는데 힘을 쏟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화재는 훼손 후 복원이 쉽지 않을뿐더러 예산 배정에서도 순위가 밀려,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하며 "불교계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문화부장 효탄 스님 등이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 불기협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 대상에 금강신문 이강식 · 최동진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과 공로상을 받은 불교언론 20년 이상 근속 기자들.

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 이하 불기협)는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정무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이 참석해 교계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시상식에는 임연태 본지 부국장과 이경숙 前 부국장을 비롯해 이학종(미디어붓다), 김선두 · 이준엽(불교신문), 사기순(월간 불광) 등 교계언론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자 7명에 대한 공로상이 수여됐다.

또 한국불교기자협회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금강신문 이강식 · 최동진 기자의 '사원 경제 새 모델을 찾아서' 가, 기획해설보도 부문에 금강신문 이강식 · 최동진 · 배희정 기자의 '스러졌다 살아 난 옛 절' 이, 편집보도 부문에는 불교신문 김병순 기자의 '산사가는 길' 이 수상했다. 특별상 부문은 BTN의 '여기는 부처님 세상' 이 '신인기자상' 은 주간불교 김도원 기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근현대 고승의 진영을 수채화로 표현한 작품 전시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 2009유심문학의 밤 문인들 한자리 모여



감사패를 전달받는 유심 신인작가.

원로 문인들과 신인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갖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8일 열린 '2009 유심문학의 밤'에서는 당대의 원로 시인들과 유심에서 등단한 신인들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학정신을 고취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유심에서 배출한 박방희, 김택희, 김향미, 김종규, 성승철, 김영주 등 7명의 시인들에게 격려차원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한 해 동안 유심에 실렸던 시 중 '올해의 좋은 시'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유심문학의 밤에는 원로시인 고은, 이승훈, 오세영, 신달자, 한분순 씨 등이 참석해 후배 문인들을 격려했다.

이은정 기자


#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세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 (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지구촌공생회 우물 홍보대사 위촉식



지구촌공생회의 생명의 물 홍보대사로 나선 '소녀시대'가 12월 8일 KOICA 연수센터 강당에서 월주 스님으로부터 위촉패를 받고 사인을 하고 있다.




# "아름다운 마음 나눌래요"

## '생명의 우물 1000' 홍보대사 소녀시대 위촉
## 공생심으로 살면 세상에 평화와 행복 넘쳐나

"어머머 소녀시대잖아? 완전 예뻐, 대~박!"

톱스타의 등장은 어디서나 화제거리가 된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기자들의 포토라인까지 넘어선 사람들은 어떻게든 소녀시대를 보려고 까치발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의자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 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그들을 담고 있던 경기도 성남 김형모(41)씨는 "소녀시대가 얼굴만 예쁜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다. 소녀시대 팬으로서 소녀시대가 홍보대사로 있는 지구촌공생회 활동에 관심 좀 가져야겠다"고 말하며 연신 흐뭇해한다.

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을 나비에게 주고 나비는 꽃의 번식을 돕는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독립된 삶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서로 돕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손을 내미는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새로운 손님을 맞이했다.

지구촌공생회의 '생명의 우물 1000' 홍보대사에 요즘 최고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가 위촉된 것.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 제3세계의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겠다는 당당한 의지를 밝힌 소녀시대는 그야말로 밝고 건강한 소녀였다.

12월 8일 KOICA 연수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월주 스님은 "대한민국의 국위를 떨치고 있는 소녀시대가 지구촌공생회의 활동에 깊은 이해와 참여의사를 밝힌 것에 감사드린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구촌공생회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져 좋은 뜻이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소녀시대를 환영했다.

소녀시대 태연은 "공인으로써 해야 할 일을 찾던 중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지구촌공생회의 아름다운 뜻에 공감해서 참여하게 됐다"며 "홍보대사를 맡게 된 만큼 앞으로 저희도 소외된 이웃돕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월주 스님은 "자비행(慈悲行)을 생활화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평화로운 기운이 함께해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 지구촌 모든 이들이 공생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염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멤버들 모두 종교가 다르지만 이념과 종교를 떠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하자는 뜻은 같았다. 앞으로 해외봉사활동 참가 뿐만아니라 본업인 방송활동을 통해서도 지구촌공생회의 활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촌공생회의 홍보대사가 된 소녀시대는 2003년부터 수인성 질환으로 영유아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몽골과 케냐 등지에서 펼치고 있는 생명의 물 사업을 홍보하게 된다.

'2009년 UNDP 인간개발보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인구 중 (2007년 기준) 65%만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에 많은 지원이 있지만 대도시의 소수에게만 집중되다보니 농촌이나 낙후된 지역은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구촌공생회는 물 부족으로 질병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캄포트 · 따께오주에 우물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그곳이야말로 설상가상 이었다. 늘 식수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우기에는 빗물을 모아 활용하고, 건기에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을 지구촌공생회가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2005년부터 진행해온 '생명의 우물1000' 사업이 이제 대망의 회향을 향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2010년 1월 우물 1000개째를 완공하게 된다.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사무처장 일화 스님,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총재, SM 엔터테인먼트 한세민 이사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부처님 집 짓겠다 발원"

### 1억 기부 송명례 보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이보다 더 잘 맞을 수 있을까? 지구촌공생회에 별똥별처럼 빛나는 보시금이 쏟아졌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송명례(71 · 사진) 보살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팔아 지구촌공생회에 기부하기 위해 12월 9일 오전 10시경 지구촌공생회의 사무실을 찾았다.

송 보살의 인생은 한 마디로 '인간극장'이 따로 없다. 14세에 여섯 식구의 가장이 된 송 보살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을 지고 사춘기를 보냈다.

"어찌나 힘이 들었는지 죽고 싶은 마음이 한 두번 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도 남편을 사별하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를 하며 그녀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지 대화 중간중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가 65세에 부처님께 귀의 했는데 그때부터 부처님 집(암자)을 지어드리자고 발원했어요. 그러던 차에 월주 스님이 운영하는 지구촌공생회를 알게 되었죠. 그래도 부끄러워서 선뜻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9월에 지구촌공생회에 전재산을 기부한 '나눔의 집' 김화선 보살님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화평 스님(지구촌공생회 사무국장)은 "뜻 깊은 돈을 이렇게 보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송 보살의 인생이 담겨있는 1억1000만원의 기금은 네팔에 학교를 세워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박선주 기자



# "동참은 자율적으로 정진은 뜨겁게"

## 미타선원, 내년 2월 28일까지 스님 및 신도 30여 명 화두타파 '일심'

12월 1일 전국 사찰에서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가던 날, 부산 도심의 한 사찰에서 40여 명의 재가불자들도 함께 결제했다.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3개월간 스님 및 신도 30여 명이 시민선방인 안심당에서 동안거에 들어갔다.

'모두가 함께하는 겨울(冬)안거 수행정진'이란 제목에는 그간 상설 운영 중인 시민선방을 이용하는 선객들은 물론, 미타선원의 신도들과 지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길 바라는 주지스님의 바램이 담겨있다.

매일 오전 5시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9~12시 입선 및 사시불공, 오후 1~6시 자율정진 및 공덕 쌓기, 7~8시 저녁예불 및 기도, 8~9시 참선 및 기도, 10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느 한 순간도 흐트러짐 없는 수행의 연속이다. 만약 3개월 동안거 기간 동안 집안일이나 직장일 등을 병행해야 할 경우에는 스스로 시간을 정해 참선 수행하고 귀가할 수도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마음으로라도 정진의 기운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부산 미타선원 재가신도들이 12월 1일 동안거 결제를 시작으로 용맹정진하고 있다.

자녀들을 다 키운 후 남은 생을 수행하며 보내기로 한 류정희 씨(69, 법명 불일심)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자성불을 찾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가불자를 위한 동안거인 만큼 시간과 장소, 일상 등의 제약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그 속에서 지켜야 할 규율도 있다. 첫째, 시간 엄수. 입선에 들어가기 10분 전 목탁 소리가 들리면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선방에 들어선다. 둘째, 선방에 앉을 때는 기본 예법인 법복을 갖춰 입고, 드나들 때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셋째, 동안거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울력을 수행의 일부분으로 알아 최선을 다해 임한다.

김춘덕 씨(74, 법명 법성혜)는 "동안거 역시 일종의 공동체생활이기에 늘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에게서 좋은 점을 본받아 숙연하고 또 한결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사실 재가불자들을 위한 동안거 수행프로그램은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1박 2일부터 일주일, 보름 정도의 용맹정진도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타선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겨울(冬)안거 수행정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도심에 위치해 집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지리적 여건에 구애를 받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상설 운영하는 시민선방 문화가 정착돼 있어 일체 묵언수행을 하는 등 도반을 위한 배려가 일반화 돼 하루 중 언제라도 좌복 위에 앉으면 삼매에 들 수 있다. 또, 미타선원의 행복선수행학교(교장 월암, 벽송사 선원장)에서 간화선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 이론과 실참을 겸비한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림 스님은 "이번 겨울 안거 수행정진은 미타선원 수행의 심장이라 부를 만큼 모든 신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어르신들이 정진하며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모습은 후배불자들과 도반들에게 희망을 준다"며 "현재 청소년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 참선수행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만큼 시간과 장소, 기타 환경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참선을 배울 수 있는 도량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 누구보다 치열한 용맹 정진으로 뜨거운 겨울을 보낼 미타선원 겨울안거에 모인 40명의 선객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모였지만 목표는 단 하나, 내 안에 감춰진 자성불을 찾는 것이다. 이들처럼 깨달음을 구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결제 중 언제라도 동참할 수 있다. (051)253-8687~8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초심자 · 청소년 장좌불와 정진

## 여래선원, 28일 입제 5박6일 동안 수행

전문 수행자인 구참 수좌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철야용맹정진에 불교수행 입문자와 청소년들이 도전에 나선다.

부산 화명동 참선도량 여래선원(선원장 황갑규)에서 초심자와 청소년을 위한 새해맞이 5박 6일 장좌불와 참선 용맹정진을 마련한다.

12월 29일 오후 8시 입재해 1월 3일 오후 6시 회향하는 일정으로, 주말과 공휴일 기간을 이용해 직장인 불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 역시 용맹정진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며 각오를 다질 수 있다.

'장좌불와'란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화두만을 참구하는 수행을 말한다.

얼핏 오랜 세월 수행해온 고수 선객들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도 정진일 것 같지만, 사실 초심자들이 반드시 선정의 힘을 얻기 위해 거쳐야할 수행의 첫 걸음이라고 한다.

황갑규 선원장은 "혼자서도 수행 잘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아직 제대로 된 참선 수행정진을 느껴보지 못한 초심자와 청소년에게 바른 수행법과 자신감을 고취시켜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진기간에는 하루 중 18시간 좌선하고 나머지 6시간을 공양하며 단 1분 1초도 잠들지 않는다. 범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혼자가 아닌 여러 도반이 있기에 누구나 무리 없이 원만회향 할 수 있다. 특히, 책상 앞에 앉으면 1시간도 채 안돼 딴 짓하는 집중력 부족한 청소년과 수험생에게는 인내심을 기르는 집중 수련을 특별 지도한다.

준비물은 법복이나 간편한 복장과 세면도구, 발우이고, 참가비는 8만원이다. (051)362-0339

박지원 기자

# "북한 어린이 위해 빵공장 건립할 것"

## 지원 스님, 참여불교운동본부 신임이사장 선출


지원 스님.

민간 대북지원단체 참여불교운동본부(이하 본부) 신임 이사장으로 지원 스님(부산 문수사 주지)이 선출돼, 오는 12월 20일 오후 4시 부산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간 임기에 돌입한다.

신임 이사장 지원 스님은 "남북관계가 냉랭한 때에 이사장 소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냉각되어 있을 때 민간 · 종교단체에서 물꼬를 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본부에서 실시한 '자비의 신발보내기' '환경자전거 보내기' 및 남북 학생 간 문화교류를 위해 사생대회 및 백일장 등의 계보를 잇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북한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빵공장' 건립에 관한 청사진을 펼쳤다.

스님은 "특히 북한의 영 · 유아들은 도움이 절실한데 1차적인 문제는 역시 먹는 것이다. 이에 빵공장을 건립하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에 이르는 지속적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금마련과 본부 홍보를 위해 이 · 취임식부터 6일간 국제신문사 4층 제2전시실에서 효산 스님 불화 및 선서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더불어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 ·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불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불교의 교세도 강하고, 사찰도 많다. 많은 동포들의 정서에는 불교와 그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법회 등과 같이 불교계의 교류는 활발한 만큼, 남북 어린이들 간 자매결연을 맺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가슴으로 같은 민족임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어 통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홍법사 묘행공덕회

#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생각해요"

대게 내가 다니는 절 안에서 스님과 도반들을 위해 행하는 봉사활동은 절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다. 반면 서로 다른 인연으로 절에 모인 신도들과 팀을 이뤄 절 바깥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은 알아주는 이도 없거니와 자칫 불협화음을 이루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찰 신행학교 졸업 동기들이 마음을 모아 묵묵히 노인무료급식과 의료봉사를 이어와 지역사회로부터 봉사단체상과 우수봉사자상 6명 까지 휩쓴 봉사단체가 있다. 바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묘행공덕회가 그들이다.


(왼쪽부터) 송양순 2대회장, 손금년 3대 현 회장.

묘행공덕회(회장 손금년)는 2005년 초 홍법사 신행학교 2기 졸업 동기 약 30여 명으로 구성돼 졸업 후에도 사찰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신도 스스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신행학교에서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매월 두 차례 사찰 인근 경로당에서 무료급식 및 한방 의료봉사를 하고, 지장재일이나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공양간 살림을 도맡고 있다. 무료급식의 경우 약 40여 명의 어르신과 경로당 직원 15명, 봉사에 참여한 회원 15명 등 70인 분의 공양을 준비해 힘들고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소풍이라도 온 듯 즐겁다고 한다.

손금년 회장(61, 법명 대비행)은 "나는 시부모님을 모셔보지 못해서 이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내 부모님과 같이 공양하는 것이 큰 보람이고, 기쁨"이라며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 인지 시험해 볼 겸 나도 한번 해보자"는 새로운 서원이 생겼다.

어르신들의 밥상을 5년 넘게 마련하다 보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까지 알 정도다. 식단은 가장 인기 있는 미역국, 소고기국, 조개시락국 등 3가지 국과 제철나물 반찬, 생선구이, 김치, 떡, 과일 등으로 마련된다.

오랜 봉사활동은 묘행공덕회 회원들의 마음가짐과 생활태도 등 삶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끔 법회 날에만 절에 들러 밥을 먹고 내가 먹은 그릇만 겨우 설거지를 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묘행공덕회 활동 이외에도 맡겨지는 소임은 뭐든지 열심이다. 법당에 들어갈 틈도 없이 공양간, 종무소, 절 마당 등. 곳곳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것이 곧 기도며 수행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송양순(61, 법명 대각심) 전임 회장은 금정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의 날 시상식에서 "아직 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뜻밖에 시상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더 많은 어르신들게 더 맛있는 공양을, 더 자주 대접해드리는 게 내년 목표"라고 밝혔다.

묘행공덕회를 창립하고 이끌어 준 주지 심산 스님은 "우리 절이 아닌 절 바깥 지역과 사회의 이웃을 위한 봉사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내년에는 현재 월 2회 이던 봉사활동 횟수를 늘리고, 한방진료와 함께 오랫동안 더욱 안락한 환경을 갖추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어나가자"고 격려했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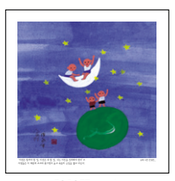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C762-111904.1.1910:54AM페이지1(1,1)



# 작은 정성 나누면 큰 기쁨

## 광주생명나눔, 2009 나눔의 밤 행사 성황

소아암백혈병 환우를 위한 나눔의 밤 행사가 펼쳐져 훈훈함이 더해지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4일 생명나눔의 집으로 알려진 콜럼버스 웨딩홀에서 '2009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생명나눔 2009나눔의 밤 행사 기념 사진.

행사는 지난 1년간 생명나눔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이사, 나눔의집, 후원회원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기념식, 광주전남본부 2009년 성과발표, 전달식, 시상식, 축하만찬으로 진행됐다.

생명나눔 홍보가수 주권기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콜럼버스시네마(대표 임장택)에서 1년간 모집한 헌혈증서 3000매와 돼지저금통 50개 전달식과 미르치과병원(원장 윤창)과 16개의 나눔의집에서 모금한 치료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전달식에 이어 감사패가 콜럼버스시네마, 주권기팬카페에 수여됐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자원봉사자상은 김정연, 강숙영, 공지웅씨가, 대상은 위재균(전남대 재학)씨가 수상했다. 이어진 기도 시간에서는 후원회장 김진여성씨의 낭독으로 환우 환치를 위한 기도문이 낭독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2004년 발병했으나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원을 통해 완쾌한 정아영(19)양이 참석해 소감을 이야기 했다. 정아영양은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도움으로 병이 완쾌됐고, 이번 2010학년도 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500여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해 주었다"며 "자원봉사는 사회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들을 모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큰 스님의 진면목 계승하자"

## 청화 대종사 6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한국 현대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인 청화 스님의 열반 6주기를 추모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벽산문도회(회장 용타)는 12월 5일 전남 곡성 성륜사(주지 대만)에서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무주당 청화스님 열반 6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예불, 큰스님 육성법문, 인사말, 축사, 종사영반(다례재)의 순으로 진행됐다.

용타 스님은 "큰스님의 사상과 수행정신을 올바로 이어가는 것이 스님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추모사에서 "큰스님의 사진을 통해서도 자비한 진면목을 볼 수 있다"며, "이번 다례재를 통해 스님의 진면목을 발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활동에 모범을 보인 정진열 자원봉사단장 등 봉사자와 후원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한편, 행사 후에는 벽산문도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근기에 맞는 수행 꾸준히…"

## 범각 스님, 원각사서 초청법회 봉행

광주의 도심포교당 원각사(주지 현고)는 12월 6일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도심에 사는 일반인에게 불교 선지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는 200여 시민과 불자들이 참여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범각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다. 언제부터인가 지혜보다 지식을 갈망하는 이들이 늘어간다"고 안타까워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팔만 가지 법문은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각사 김창규 기획국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원각사는 매월 불교의 선지식을 초청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불교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강진 포교사단 송년의 밤 행사

전남지역에서 가장 포교 활동이 활발한 곳 중 하나인 강진에서 포교사와 스님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져 화제가 되고 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강진분회(회장 윤중근)는 12월 3일 강진 모 식당에서 강진사암연합회(회장 법정, 무위사 주지) 회원 스님들과 같이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9년 행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강진불교의 포교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태고총림 선암사 보수불사 종료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가 경내 팔상전 등 법당 및 시설물 보수를 마쳤다. 이번 보수불사로 기둥이 썩고 뒤틀렸던 팔상전이 전체 보수된 것을 비롯해 일제 강점기 견치석으로 돼 있던 진영당 석축은 자연석으로 교체됐다. 또, 문화재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을 위해 경내 곳곳에 CCTV가 설치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 고창군민 복운 노래자랑 열려

## 경로당 어르신 솜씨 발굴 경연대회도 열려…

전북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 관장 무공)은 12월 5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9 고창군민 복운(福雲) 노래자랑'을 개최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법만 스님(왼쪽 · 선운사 주)이 어르신 솜씨 발굴 경연대회 수상자에게 선물을 전하는 모습.

이번 노래자랑은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9명의 참가자가 다양한 끼와 장기를 선보였다. 지역주민 300여명의 열띤 호응과 응원 속에 진행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여성난타그룹 '두드림' 공연과 한국연예인협회 전주지부 회원들이 흥겨운 무대를 이끌었으며 '청춘고백'을 부른 안사룡씨가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으로부터 운영위원장을 수상하는 등 입상자와 참가자들이 HDTV, 내비게이션, 청소기, 전기밥솥,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과 선물을 받았다.

이어 12월 8일에는 고창군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가한 '고창지역 솜씨발굴 경연대회'도 열렸다.

관내 각 경로당을 대표한 3인1조 총 10개팀이 참가한 이번 솜씨자랑은 전통음식인 송편 만들기로 진행됐으며 금상 무장면 경로당, 은상 청룡경로당, 동상 덕산경로당이 입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무공 스님은 "이번 노래자랑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자리가 됐다"며 "올해 처음 갖는 노래자랑인 만큼 다음 해에는 더욱 풍성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역 군민의 잔치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Healing Start' 금산사

## 금산사, 불교문화체험 템플라이프 실시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기존의 템플스테이와 달리 숙박은 하지 않고 산사의 일상을 체험하는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템플라이프를 실시한다.

'Healing Start 금산사, 나를 바꾼다'를 주제로 진행될 템플라이프는 자연이 그대로 담긴 발우공양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스님에게 세상살이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참가자들은 다담시간과 참선의 바른 자세와 호흡법을 배우는 참선체험 시간과 1400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금산사 도량을 거닐며 불교상식과 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은 "'나를 바꾼다'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나들이 나온 가족이나 여행객, 참배객 등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해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산사 템플라이프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진행되며 인원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063)542-0048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군산 관음사 가족법회

# "이젠 40가족 이룬 대가족 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예불을 올리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겨운 광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 군산 관음사 가족법회 현장이 바로 그곳.

가족 중 한 사람만 절에 다녀도 자신의 종교는 불교라고 이야기 하다가 결혼과 함께 배우자의 종교에 따라 타 종교로 개종해 버리는 현실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군산 관음사 가족법회 회원들은 가족간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며 함께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관음사에 가족이 함께 법회를 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지난 2001년부터다.

관음사 가족법회는 몇몇 거사들이 "절에 오면 보살님들만 계시니 멋쩍은 마음에 주지 재곤 스님에게 가족이 함께 법회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이 계기가 돼 구성됐다.

처음 몇 가족 십 수 명으로 시작됐던 가족법회가 이제는 40 가족이 넘는 대가족으로 발전했다.

관음사에서는 일요일이면 법당에서 이리 저리 뛰어노는 아이들을 말리는 부모들을 오히려 스님이 나무라는 광경도 목격된다. "어릴 적부터 법당이 친숙해져야 성장해서도 자연스럽게 법당을 찾게 된다"는 것이 재곤 스님의 생각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평소 관음사 법당에는 거사님들과 보살님들의 비율이 어느덧 비슷해져가고 있다.



지난 5월 성지순례에 함께한 군산 가족법회 임원들.

관음사 가족법회에 가족이 함께 절을 찾게 되자 회원끼리의 자발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행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관음사가 위치한 군산 나운동은 인구밀도당 교회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곳에 매년 초파일을 즈음해 연등의 물결이 넘치는 것도 관음사 가족법회 회원들이 발 벗고 나서 연등을 걸어놓은 덕분이다.

매년 현충일이면 군경합동묘역을 가족과 함께 찾아 참배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에 대해 말없는 가르침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한편 우란분절에는 승화원을 찾아 천도재를 지내기도 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관음사 인근 공원의 청소와 환경정비에도 가족법회 회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또, 가족법회 회원들은 재곤 스님과 함께 공군 호국군성사 법당에도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관음사 가족법회 회원들은 "매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재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족 간의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신행생활을 이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족 간에 합심해 기도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난방기구 전문업체 대동 해모로 2010년형 출시!
통신판매신고번호 광진0123호
온풍+강력난방 전기난로 88,000원
난로, 히터, 온풍기의 장점만 살린 전기난로의 결정판 –
연료식 난로의 강력한 화력 + 전기히터의 청결함 + 온풍기의 대류방식을 모두 적용한 웰빙 전기히터!!
*국내 생산제품*
올 겨울 추위걱정 싹~ 후끈 후끈 합니다.
초강력 난방능력으로 전기료 절약!!
난방비 90% 절감!
1일 8시간 사용시 3kw기준
1,612원 (누진세 미적용)
온풍 대류기능
실내 가습
주전자의 물을 올려두면 가습이 되어 건조하기 쉬운 겨울철 습도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강력 화력
고구마도 익히는 강력한 화력으로 동급최강의 난방능력!
33m² (10평형)
49.5m² (15평형)
★ 360도 전방향 입체 난방
★ 공해없는 청정난방 (무취,무연,무소음,무독)
★ 다양한 온도조절로 경제적
★ 동급최고의 난방능력
★ 초절전 설계의 경제난방
★ 첨단 안전장치로 안전난방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짐)
★ 복고풍 디자인의 정겨움
★ 물을 올려 두면 가습기로
★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편리
★ 국내산으로 무상1년 A/S보장
해모로 온풍형 히터 / 3000
• 모델명 : DD-3000
• 정격소비전력 : 220V/ 2900W
• 규격 : 270×340×630mm
• 무게 : 4.1kg • 난방면적 : 49.5m²
▶현금할인가 : 98,000원
3大만족
✓ 강력한 화력!
✓ 저렴한 가격!
✓ 유지비 절감
동시만족!
해모로 온풍형 히터 / 2000
• 모델명 : DD-2000
• 정격소비전력 : 220V/ 1800W
• 규격 : 270×340×570mm
• 무게 : 3.6kg • 난방면적 : 33m²
▶현금할인가 : 88,000원
품질과 A/S를 확실히 보증합니다.
* 무상A/S 1년 *
제조원 대동해모로
일반형 (온풍기능없음)
16.5m² (5평형)
33m² (10평형)
원통형 히터 / 2000
• 모델명 : 7200/2000 • 난방면적 : 16.5m²
• 정격소비전력 : 220V/ 1800W
• 규격 : 320×320×550mm • 무게 : 3kg
▶현금할인가 : 78,000원
원통형 히터 / 3000
• 모델명 : 7000/3000 • 난방면적 : 33m²
• 정격소비전력 : 220V/ 2900W
• 규격 : 320×320×610mm • 무게 : 3.5kg
▶현금할인가 : 88,000원
가정용 근적외선 웰빙히터
TS-950HS
23.1m² (7평형)
난방각도 270° 좌·우 회전 90° 상·하 높이조절
수직으로 회전가능함
• 정격전압 : AC 220V/60Hz
• 정격소비전력 : 강 : 950W, 약 : 475W
• 제품규격 : - Head : 470×210×180(mm) - Base : Ø380mm(원형)
• 높이 : 최장~1,000mm (250mm 높낮이 조절)
• 제품중량 : 약3.4kg
• 난방면적 : 23.1m² (7평형)
• 타이머 부착
• 전도안전장치 부착 첨단 안전장치로 안전난방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짐, 화재의 위험이 없습)
• 제조원 : (주)태서전기
▶현금할인가 : 135,000원
주문전화 전국어디서나 080-223-7000
※신용카드 구입 가능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 양유정)
농 협 302-0127-6837-61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 구름 위에서 무진공양 올리니 법계가 따뜻하네

## ㉔ 비어있지 않은 절터 굴산사지

겨울비가 내리는 날 강릉시 구정면(邱井面) 학산리(鶴山里)로 스며듭니다. 마을 중간쯤에 차를 세우고 가늘게 내리는 빗줄기에 몸을 맡깁니다. 마을의 중심을 지키는 키 큰 소나무들이 겨울비를 맞으며 승천을 시도하는 듯합니다.

굴산사지(掘山寺址). 신라말의 대가람 굴산사는 지금 겨울비에 젖는 조용한 마을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 당우의 반경이 300m가 넘었고 상주 승려는 200명이 넘었다는 절터는 평범한 마을의 논과 밭으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군데군데 옛 영화의 징표가 있어 다행입니다. 굴산사를 창건하여 구산선문의 사굴산파를 이루었던 범일(梵日, 810~889)국사도 오늘까지 대관령 서낭신으로 추앙되고 있으니 빈 절터가 그냥 비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넘어 온 대관령 방향의 웅장한 산세는 한 폭의 병풍으로 둘러져있습니다.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운무가 병풍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산은 묵직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승천하는 운무만 세상이 살아 있음을 알리는 듯합니다.

먼저 우물터를 만납니다. 석천(石泉)이라 부르는 이 우물터는 마을의 중앙에 있는데 범일국사의 탄생과 관련 있는 설화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사각형의 우물은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고 그 위에 머리를 잃어버린 돌부처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물을 지키는 신력을 가졌다고 믿기에 그렇게 허전하게나마 모셔둔 것 같습니다.

마을의 한 처녀가 아침에 우물에서 물을 뜨는데 바가지에 해가 담겨 있었다. 처녀는 물을 버리고 다시 뜨니 역시 해가 들어 있었다. 기이하게 생각하여 물을 마셨는데 그날로부터 태기가 있었다. 이윽고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 동네 뒷산 학바위 아래 버렸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못해 다음날 가보니 새와 짐승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비범하게 생각하여 다시 데려다 길렀는데 후에 스님이 되어 도를 이루었다. 그가 범일국사다.

학산리에 전해오는 범일국사의 탄생설화는 전남 영암 구림마을에서 태어난 도선국사의 탄생설화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미 설화 속에 등장하는 '바가지 속의 해'가 국사의 이름 '범일'에 날일자를 들어가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뒷산의 학바위는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학바위에 올라서서 생각해보니 이 마을은 지명과 인명에 이미 굴산사의 체취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구정면의 정(井-우물), 학산리의 학(鶴-학바위), 굴산사의 굴(掘-우뚝함), 범일국사의 일(日-해) 이 글자들이 신라 이래로 굴산사 터를 지켜 오는 중요한 기표인 것입니다.






❶ 범일국사의 부도와 소나무. ❷ 범일국사 탄생설화의 현장인 학바위 ❸ 석천 ❹ 굴산사지 당간지주는 현존 최대의 크기를 자랑한다

### 지대석 비해 받침돌 작은 이유 구름 강조 위한 것

#### 학산마을 '석천' '학바위' 등 범일국사 탄생설화 흔적 고스란히 전해

### 청빈한 가풍 작은 몸돌이 상징, 화려한 좌대 '눈길'

이제 범일국사의 것으로 전해지는 부도(보물 제85호)를 친견할 차례입니다. 범일국사의 부도는 주인이 떠나버린 빈 집 곁에 서 있습니다. 205Cm 높이에 매우 화려한 조각이 돋보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빈집 마당을 지나 부도 앞에 이르러 선채로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선 채로 말라버린 고춧대들도 조석으로 부도를 향해 합장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1200년 전에 세운 부도와 지난 봄에 심어져 한 살이를 마치고 말라버린 고춧대가 한 풍경 속에 들어 있으니 그 둘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독창적인 기법이 눈을 끌어당깁니다. 가장 독특하게 보이는 것은 제법 넓은 지대석위에 화려한 구름문양의 좌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상당히 좁은 단을 받치고 하대석과 중대석 상대석을 차례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잘록한 받침돌 위에 올린 하대석은 각을 생략한 원형인데 구름문양이 매우 화려합니다. 중대석도 뭉글뭉글 피어 오르는 구름을 새기고 중간 중간 비천상과 공양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상대석은 두툼한 연잎이 위를 받치는 형상인데 연잎 속에 다시 꽃무늬를 돋을새김 하여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유산답사회가 1994년에 간행한 <답사여행의 길잡이 3> 동해 설악편(돌베개)의 사진(170쪽)에는 이 부도의 구름문양 좌대가 없습니다. 아마 그 후에 사지를 정비하는 과정에 발굴된 좌대를 끼워 넣은 듯합니다.

범일국사 부도의 하대석에 새겨진 구름 문양을 보다가 대관령 쪽 산위의 구름을 바라봅니다.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간 운무가 구름으로 떠 있는 그 장면에서 부도의 팔각받침이 작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대석과 중대석의 구름문양을 강조하기 위해 받침돌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침돌을 대폭 줄임으로써 하대석은 허공에 떠 있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시 구름이 흐르고 천인들이 공양을 올립니다. 그 공양을 연잎으로 받들어 올리니 몸돌의 법일국사 사리가 무량한 설법을 펼쳐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일국사를 향한 공양은 구름 위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무진 공양을 올리니 우주 법계는 언제나 따뜻하고 중생의 발길은 항상 부처님을 향해 갑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이 팔각으로 다듬은 몸돌은 범일국사의 청아한 가풍일 것입니다. 그런데 몸돌에 비해 옥개석이 지나치게 큽니다. 때문에 부도가 전체적으로 장엄한 맛을 내지 못합니다. 몸돌의 높이를 제한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역시 절제된 수행생활, 범일국사가 이룬 가풍의 일면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법일국사는 중국에 유학하는 동안 많은 선지식들을 만납니다. 마조선사의 제자인 제안선사에게 이 한 마디를 듣고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러나 범일국사와 굴산사에 대한 사료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마친 범일국사는 귀국하여 강릉지역의 막강한 토호세력 김순식의 지원 아래 굴산사를 창건해 선풍을 드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라가 망하고 궁예의 시대도 왕건의 고려창업으로 막을 내린 뒤 토호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고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굴산사도 피폐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대의 고승 범일국사의 탑호는 연휘(延徽)로 전해집니다. 부도를 세웠으니 탑비를 세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도 앞에는 한 그루 소나무가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300여년은 되어 보이는 소나무는 "여기 옛 스승의 아름다운 생애와 고준한 덕을 간직한 부도가 있노라"라고 외치며 성역을 지키는 신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뜰 앞의 잣나무'가 선승들의 화두라면 '부도 앞의 소나무'는 역사의 현장을 지키는 호법신장인 것입니다.

당간지주(보물 제86호) 앞에 섭니다. 주눅이 듭니다. 높이 5.4m의 웅장한 당간지주입니다. 물론 현존하는 당간지주 가운데 가장 훤칠합니다. 논 가운데 우뚝 선 이 당간지주가 굴산사의 앞마당쯤이었다면 학산리는 전체가 전각들로 가득 찬 대가람이었음이 분명하겠습니다. 지주의 키를 고려해 볼 때 여기 세웠을 당간대는 20m가 넘었을 것이고 그 끝에서 나부끼는 깃발은 또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갑니다.

지금 들판은 비어 있지만, 한 때 끊어지지 않는 염불과 식을 쥴 모르는 수행의 열기가 가득했을 도량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는 빗줄기 사이로 목탁소리가 건너옵니다. 굴산사라는 이름을 계승하고 있는 조그만 암자하나가 보입니다. 좁은 법당에는 석조비로자나부처님이 긴 세월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앉아 계십니다. 100세가 가까워 보이는 노보살님이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합니다. 무슨 경을 외는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노보살님의 정성어린 예불이 균형미와는 다소 거리가 먼 돌부처님을 빙그레 미소 짓게 합니다.

부처님이 미소 짓는 날, 일체중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의 진리로 통하는 날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행복을 감염시킨 행복 바이러스

붓다의 행복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일해야 하고, 사회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생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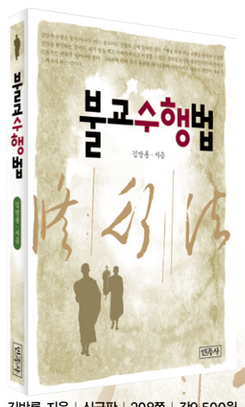
행복한 삶이란 즐겁게 사는 것이 기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라.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의 저자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스님이 쓰고
『1리터의 눈물』을 번역한 한성례 선생님이 번역한 행복 쓰나미.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 한성례 역 | 46판 양장 | 198쪽 | 값9,500원

모든 종교의 알맹이는 신앙과 수행이다.
그 중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의문이 생길 때
이 책은 수행법 전반에 대한 알기 쉽게 소개한 수행의 입문서이다!



김방룡 지음 | 신국판 | 208쪽 | 값9,500원

불교수행법

불교수행법의 핵심적인 문제만을 뽑아 소개
"절 수행 · 간화선 · 염불 수행 · 위빠사나 수행 · 간경 수행
사경 수행 · 계율과 참회 수행 · 사불 수행 · 조사선 · 주력 수행"

누구나 이 책으로 불교 수행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족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월서 스님의
## 주련 이야기 44

# 중생근기 따라 교화하라

**[원문]**
번뇌단진복지원(煩惱斷盡福智圓)
위극일생보처존(位極一生補處尊)
적광토중불유의(寂光土中不留意)
방대광명조불화(放大光明助佛化)
굉시칠변지언음(宏示七辯之言音)
보화오승지성중(普化五乘之聖衆)
–와룡산 유하사 용화전

**[번역]**
번뇌를 끊어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여
일생 동안 부처님을 보좌하고 계시네.
적광토(寂光土) 속에만 머물지 않고
대광명을 놓아 부처님 교화를 돕고
넓은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오승(五乘)의 성중(聖衆)을 교화(敎化)하시네.

**[선해(禪解)]**
겨울 문턱이다. 산사(山寺)의 추위는 어느 곳보다도 빨리 온다. 이때가 되면 과거 승가(僧家)에서는 한 해 울력을 해서 심은 채소를 일구어 김장을 담그는 일에 손이 바빠진다. 요즘에는 큰 사찰을 빼고는 김장을 하지 않고 사먹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손수 대중이 담아 먹었다. 그래서 김장을 담그는 일도 하나의 수행과정이다.

산사의 겨울나기는 그래서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기야 통도사와 같은 대사찰은 겨울 김장만 해도 몇 트럭분이나 된다.

동안거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구들장에 불을 너무 지펴 엉덩이에 진물이 배일 정도로 땀에 절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때도 있다. 때로는 문풍지에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목덜미를 휘감는다. 어지간한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배어나기 힘든 게 바로 동안거였다. 이렇듯 승가의 수행은 하안거 보다 동안거를 보내기가 더욱 힘들다. 소납의 수행 생활도 역시 그랬다.

그래도 돌이켜 보면, 그 때가 참으로 그리워진다. 나의 은사이셨던 금오 스님은 불철주야 오직 화두 참선에만 진작하셨다. 그래서인지 늘 겨울이 가까워오면, 은사 스님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떠오른다. 아마 그 때도 동안거였던 것 같다. 스무 살 때 발심(發心)을 위해 태백산에 들어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안거에 들어 간 스님은 두 분이더 계셨는데 그곳의 백리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나는 견성(見性)을 위해 지독한 참선 수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셋 중에서 둘은 견디지를 못해 포기를 하고 나중에는 나 혼자만 홀로 남게 되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하든지 해제를 보내야만 성공을 하기 때문에 나는 맹렬하게 수행에만 전념했는데 밤마다 지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러기를 세 달을 보낸 뒤 드디어 해제를 하루 앞두었다. 그런데 양치질을 하다가 산으로 올라오는 처녀를 발견 했다. 이런 깊은 산중에 웬 처녀인가 싶어 매우 놀랐는데 문제는 거처할 방이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만 해도 부처님이 나에게 어떤 무언의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크게 놀랐다. 결국 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처녀에게 방을 내주고는 나는 문밖에서 옷이란 옷은 모두 껴입고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눈보라는 몰아치고 바람은 차갑게 목덜미를 휘감는데 어찌나 추웠던지 달달 이를 떨며 밤새도록 목탁을 부서져라 쳤다. 그 순간 내 안에서는 크나큰 싸움이 일어났다. 너무나 추워 견디지를 못해 방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그런 나와의 지독한 싸움 끝에 마침내 해제 날 아침을 맞이했다. 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오히려 나를 시험한 그 처녀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이 계율은 하나의 질서 이다. 그 질서를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대로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계율을 어기게 되면 평생 씻지 못할 과오와 죄업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한 생각에 못 이겨서 계율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계율 어기면 평생 씻지 못할 과오 · 죄업에 시달려**
**번뇌 끊은 미륵불은 복덕 · 지혜 가득한 '일생보처'**

계율을 지키는 방법은 그러한 생각조차 놓아버려야만 한다. 집착과 번뇌, 망상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 후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소임을 8년 동안 맡은 적이 있다. 이 또한 나의 계율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승가도 동안거에 들어갔다. 안거 수행에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비워야만 한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와룡산 유하사(遊夏寺) 용화전이다. 이곳은 고운사의 말사로서 안동군 와룡면에 있는 고찰이다. 안동지역의 사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리 높지 않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아마도 신라시대에 사찰이 즐비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불교의 한 특징을 보여주듯 도심과 가까운 곳에 사찰들이 들어선 탓이리라. 게다가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는 조선시대의 불교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 속이 아닌 곳에서 민중과 함께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내려 온 것은 그만큼 신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마을 속 평평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는 유하사는 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용이 누운 모습을 하고 있다. 절의 이름을 유하사라 붙인 것도 여름에 용이 내려와 사람과 더불어 노닐었다는 전설 때문이다.

그런데 안동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신라시대 이전에 창건한 절임에 비해 유하사는 19세기에 지은 절이다. 처음에는 개인 사찰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절을 창건한 무심 스님과 평생 이곳에 주석하며 지금의 유하사를 만들어낸 분은 묘행 스님이다. 그래서 유하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번뇌단진복지원 위극일생보처존**: 번뇌를 끊어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여 일생 동안 부처님을 보좌하고 계시네.'

용화전은 미륵을 주존으로 모시는 당우이다. <대예찬>의 한 구절인 이 주련의 내용은 미륵불의 위신력 중에서도 부처님을 도와 중생을 널리 교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번뇌를 끊은 미륵불은 복덕과 지혜가 가득한 '일생보처'라는 말이다. 즉, 부처님이 입멸한 뒤에 성불해서 그 자리를 보충하는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불자들은 일생보처불로서의 미륵과 내세불로서의 미륵을 혼용하고 있다. 이 주련의 내용은 전자라 보면 된다.

**'적광토중불류의 방대광명조불화**: 적광토(寂光土) 속에만 머물지 않고 대광명을 놓아 부처님 교화를 돕고'

적광토(寂光土)는 적정상주(寂靜常住)인 진리의 지혜에 의하여 비추어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데 곧 법신불(法身佛)의 세계를 뜻한다. 즉 미륵불은 부처님의 보처불로서 법신불의 세계인 적광토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세상에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보살피며 교화하고 있는 것이다.

**'굉시칠변지언음 보화오승지성중**: 넓은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오승(五乘)의 성중(聖衆)을 교화(敎化)하시네.

칠변(七辯)은 여러 가지로 다른 중생의 근기를 말하고 오승(五乘)은 인승(人乘), 천승(天乘),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을 가리키는데 미륵불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오승이 가진 법으로써 교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유하사의 용화전의 주련 내용의 핵심은 미륵불 화현(化現)에 대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4**

# 성냄 · 기쁨 모든 것이 공하다

**[원문]**
空本無動 動用同心 心本無動 故經云 動而無所動 終日去來而未曾去來 終日見而未曾見 終日笑而未曾笑 終日聞而未曾聞 終日知而未曾知 終日喜而未曾喜 終日行而未曾行 終日住而未曾住 故經云 言語道斷 心行處滅 見聞覺知 本自圓寂 乃至嗔喜痛痒何異木人 只緣推尋痛痒不可得 故經云 惡業卽得苦報 善業有善報 不但嗔墮地獄 喜卽生天 若知嗔喜性空 但不執 卽業脫.

공은 본래 움직임이 없으므로 움직임과 작용이 마음과 같으나, 마음의 근본은 움직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길 "움직이되 움직인 바가 없다"하신 것이니라. 종일토록 가고 오되 가고 온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보되 본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웃되 웃은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듣되 들은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알되 안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기뻐하되 기뻐한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행하되 행한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머무르되 머문 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길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고 마음으로 행할 곳이 없어졌다"하셨느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 스스로 원적(圓寂, 깨달음)한 것이라 성내고 기쁘고 아프고 가려움이 어찌 본인과 다르겠느냐.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픔과 가려움을 찾지 못하겠도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길 "악업은 괴로운 과보를 받고 선업은 좋은 과보를 받는다"하셨느니라. 성을 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성품이 공(空)한 것임을 알아 집착하지를 않으면 바로 업력에서 벗어나리라.


양산 통도사 응진전 외벽에 그려진 달마도(19세기 후반).

**[해설]**
움직인 것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본래마음에서는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에 이르시길 "움직였지만 움직인 바가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일토록 가고 오되 가고 온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보되 본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알되 안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행하되 행한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머무르되 머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세계입니다.

'진짜 나'는 가고 오되 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본 것이 사실이 아니고 들은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누가 내 욕을 해도 욕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죠. 왜냐하면, 물질이 아닌 마음이 작용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쓸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말한 것이 아니고, 욕을 해도 욕을 한 것이 아니고, 본 것도 본 것이 아니니, 번뇌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번뇌라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로부터 얽히고 설킨 업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 업을 녹일 수가 있고 언젠가 수행을 통해서 하나가 됐을 때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둘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전생의 업력과 습이 남아 있기에 잘 안되는 것입니다. 꿀이 본래는 단 것이 아닌데 달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 하잖아요. 그렇게 각인이 되고 습이 되어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무수히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고 마음으로 행할 곳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자와 언어가 끊어진 자리, 즉 '체(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아픈 것도 없고 가려운 것도 없는데 전생의 습으로 인해 이것은 하면 좋고 이것은 하면 나쁘다 하는 생각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깁니다.

본래의 나는 아픔과 성냄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근본 실상과 하나가 되지 못해 보고 듣는 것에 끄달려 가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좋다, 나쁘다 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반드시 인과가 따릅니다. 누구보다 자신은 정확히 알잖아요. 착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착한 일이 오고, 악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나쁜 것이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상대가 나로 인해 아픔을 받았다면 내가 그 아픔을 인과로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반드시 돌아 온다는 얘깁니다.

"성을 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성품이 공(空)한 것임을 알아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업력에서 벗어나리라."

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도리는 바로, '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보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염불할 때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업에서 벗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모두 업이 됩니다. 그러나 십 분, 삼십 분 정진을 한다고 하면 그 순간은 분명 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7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0년 1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33-1959, 720-1836



빛깔과 향기가 살아있는 맛
# 삼광사와 함께하는 전통사찰음식 전시회

절제된 생활이 만들어낸 밥상인 전통사찰음식의 대중화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모시고자 합니다.

◆일 시 : **2009년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삼광사
◆주 관 :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주 최 :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문 의 : **삼광사 051)808-7111~5**

**프 로 그 램**

제 1 부 개 회 식 ..... 11 : 00
제 2 부 사찰음식 전시관람 ..... 12 : 00
발우공양 (오찬) ..... 12 : 30
제 3 부 공 연 ..... 13 : 00
다 도 (차, 한과, 떡 등 제공)

**※석용스님의 '마음으로 피운 꽃', 지화특별전**



# 기도란 부처님과 무언의 대화로 '구름' 걷어내기




**태응 스님**은 ...
1956년 울산 미타암에서 성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 57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통도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 강원을 마친 후 오대산 상원사에서 7년간 선수행. 조계사 주지, 통도사 주지, 제11대 중앙종회의원, 불교방송 이사, 불교텔레비전 초대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총재 역임. 캐나다 밴쿠버에 통도사 해외분원 서광사 창건. 지금은 산청 원각사 해동선원 주석.

## 원각사 해동선원장 태응 스님

### 출가한 형님 덕분에 '부처놀이' 하며 절에서 자라
### 폐교 개조 해동선원 주석… "근기맞게 수행해야"

먼 산에 봄물이 올라 분홍빛으로 물들어도, 가을엔 홍엽(紅葉)이 화려하게 수를 놓아도, 먼 산에 얹혀지는 그림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었다. 조실부모한 어린 소년의 가슴엔 항상 쓸쓸함과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행이라면 일찍 출가한 형님 덕분으로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란 것이다. 절에 또래의 친구도 없었을 뿐더러 보고 듣는 것이 예불 올리고 공양 올리는 것이라 혼자서 하루 종일 '부처놀이'를 했다. 예닐곱 살 때부터 흙으로 구멍을 파서 '석굴암'이라 하고, 모래를 담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고, 찰흙으로 부처님을 만들어 예불을 올리면서 놀았다.

열댓 살이 되자 형님은 출가를 권했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에 바깥세상이 궁금해 도시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했다. 성수 스님이 미타암 주지로 계셨고, 소년의 형님은 미타암에서 부전소임을 맡고 있었다. 형님은 소년에게 '성수 스님을 은사로 해 출가할 것'을 권했다.

"우리가 부모복도 타고나지 못했는데, 다른 복인들 뭐 그리 있겠노. 출가해 성수 스님처럼 도인이 되면 대통령도 안 부럽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훌륭한 스님을 만난 것도 큰 인연이니 지금이 출가할 때인 것 같다."

형님의 말에 소년은 출가를 결심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평생을 기도드리면서 사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활산성수 스님을 스승으로 불문에 발을 들여 놓았으니, 그때가 열일곱 살이었다.

미타암에서 시작한 행자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또 다른 한 명의 행자와 함께 도량을 청소하고 공양을 준비하는 등 절의 온갖 허드렛일을 했다. 일을 하면서 <천수경>을 외우는데, 다른 행자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외우는데 반해 소년은 두 줄 밖에 외우지 못했다. 이들을 가르치던 노스님은 소년에게 "짐승이 사람이 돼서 둔하다"는 말을 자주했고, 소년은 출가에 대해 회의를 품었다. 연애편지와 사진도 태우고 돈도 다 나누어주고 마치 죽으러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절에 들어왔는데, 이곳 또한 차별이 있고 경쟁이 있는 살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노스님에게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느냐고 여쭈었더니 '전생에 지은 업이 두터워서 그렇다. 참회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일렀다.

늦게 출가한 터라 할 일도 많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삼십 리 길을 걸어 장을 봐다 나르는 등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잠을 아껴 기도를 했다. 밤 아홉시에 취침 종이 울리면 전 대중이 잠자리에 드는데, 자는 척하고 있다가 5분정도 지나면 살그머니 빠져나와 굴법당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소멸 해달라고, 그리고 미혹에서 벗어나 혜(慧)를 달라고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혜가 밝아졌음을 스스로도 느낄 정도였다. 소년은 행자생활을 마치고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태응'이라는 불명을 받아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태응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원각사 해동선원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 어디로 눈길을 주어도 지리산의 원융한 자태가 한 눈에 들어온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해동선원에 들어서면 세상을 향해 우뚝 솟은 통일대불이 먼저 반겨준다. 통일대불을 중심으로 청동미륵반가사유상과 달마상, 십일면관음보살상과 나한상 등 100여위의 석조불보살들이 봉안돼 있어 야외전시관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스님은 "한 백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석불에 이끼가 끼고 바람과 시간에 풍화돼 또 하나의 문화재가 될 것"이라 했다.

스님은 통도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하고 몇몇 마음 맞는 도반들과 함께 강사자격증을 따서 앞으로 강사노릇을 하기로 했다. 은사스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강원에서 일대시교를 봤으면 실천을 해야지"하고 나무랐다. "참선공부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은사스님의 말씀에 강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접었다. 공부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은 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대산 상원사에 가기로 결심했다. 은사스님은 "깊은 산에 가서 십년동안 산돼지가 되던지 뭐가 되던지 내려오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고 다짐을 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칠년간 선수행에 전념했다. 월정사 주지 희찬 스님은 태응 스님의 됨됨이를 한 눈에 알아보았기에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월정사 복원불사를 위한 기도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그 중대한 임무를 맡아 적멸보궁에서 1000일 기도를 무사히 끝냈다. 스님은 "기도란 부처님과의 무언의 대화를 통해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이며,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최선의 인도(引導)와 보호를 받게 된다"고 했다.

스님은 평생을 수좌로 살아왔지만 참선 수행이 제일 좋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저마다의 근기가 다르듯이 화두참선, 염불, 기도, 절수행을 비롯해 그 사람에게 맞는 수행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평생 어떤 화두를 참구하시는지 여쭈었다.

"강원에서 <서장>을 공부하면서 조주 '무(無)자' 화두가 제일 좋다고 하기에 그것을 화두로 삼았어요. 옛날 중국에는 절에서 개를 많이 키웠는데,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지나가는 개를 가리키면서 '개에게도 화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조주 선사가 '무(無)'고 했는데, 질문을 던진 그 스님은 '무'라는 한 마디에 깨쳐야 하는데 깨치지 못해 그것을 화두로 해 공부한 것이지. 이렇듯 세상에 두두물물 화두 아닌 것이 없어요."

스님은 피었다가 지는 노란 국화를 가리키면서 '국화는 왜 하필 따뜻한 봄날을 두고 서리오고 차가운 가을에 피는지 의심해보라'고 일렀다. 그리고 자신에게 "국화는 왜 따뜻한 봄을 두고 가을에 피는가?"하고 물어보란다.

"자신에게 물으면 참선이 되지만 국화나 꽃들에게 물으면 그것은 삿된 것이라. 자기 안에서 의심을 품고 자기 안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화두지요. 생각을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 세상의 국토와 꽃과 중생이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고만 부자라. 화두도 방편이고 염불도 방편인데, 길은 달라도 목적은 같아요. 한 가지 방편에 집중해 알려는 마음, 친견하려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 정진하다 보면 분심(忿心)이 일어나고 그 분심에 용맹심을 더해 전력질주 하다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정진을 할 때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순경이 있으면 반드시 역경이 있게 마련이라 했다. '역경을 맞이했을 때 분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엔진으로 삼고 삶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대역전이 이루어져 큰일을 해낼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이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처 성품을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불교의 정법으로 코를 꿰어 가야 합니다. 고삐를 끌고 가는 힘이 강하지 못하면 주인 없는 소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아 곡식밭을 절단 내어버리기 십상이니 그 피해가 무한한 것이라. 화두참선이나 기도, 염불이 고삐기능을 하는데 이것으로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자신의 목적한 바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역대조사들도 다들 그렇게 살아왔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지극하면 이루어지듯이 '공부가 되나 안 되나' 조바심내지 않고 굳게 믿고 공부하면 진척이 있단다. 스님의 이 말씀은 '한 생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목숨 떼어놓고 참선수행과 기도수행을 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태응 스님은 조계사 주지와 통도사 주지, 불교텔레비전 초대사장,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한 종단의 어른이시다. 수좌의 길을 가던 태응 스님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위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런저런 소임을 맡게 됐다. 은사 스님께서 범어사 주지를 맡게 돼 말상좌로서 은사님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어




## 여러분의 오늘 운세는?
##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 갑골문자는 하늘의 계시로 기록한 점서(占書)이며 한자(漢字)의 모체로 신통력이 있다.
◉ 갑골문자를 모체로 한 한자(漢字)는 **변(邊)과 체(體)가** 역(易)을 근본으로 음양오행이 조화되어 철학적 가치가 있다.
◉ 백팔번뇌 파자비결은 한자의 변(邊)과 체(體)을 음양오행으로 파자(破字)하여 천부의 계시를 표의(表意)하였으므로 미신이 아니다.
◉ **격암유록 정감록비결도**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미래의 국운을 예지한 예언서이다.
◉ 누구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매년 매월 매일 매시의 운세를 **108장의 파자비결의** 신통력으로 볼 수 있다.

▶ 무료강의내용 ◀
파자비결 .생활풍수(실내인테리어) **월. 수. 금 2개월 무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160 플래티늄 빌딩 403호 송암출판사 강의실
**주문전화 02)2266-8823 H.P 010-7742-3111**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욕망에 허덕이는 마음 쉬어라



사 원주소임을 맡았다. 그 후에는 은사 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게 되자 태응 스님은 조계사 주지를 맡아 은사 스님을 보필했다.

여러 가지 소임을 맡아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여쭈었다.

"통도사 주지로 갔는데, 법당에 삼사백 명이 앉으니 꽉 차서 큰 설법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나 이 불사를 이루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찌어찌해 설법전 불사가 이루어지데요. 개원식을 하고나서 너무 좋아 혼자서 밤이 늦도록 도량을 돌았어요. 그리고 불교TV 방송국을 개국하고 나서 부처님 법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집집마다 들어간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스님은 십삼사 년 전, 캐나다 밴쿠버에 한국전통사찰인 '서광사'를 창건해 교민사회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숲이 우거진 6만여 평의 대지 위에 지하 100평 지상 50평의 대웅전은 미주 지역 최고의 사찰로 손꼽힌다. 스님은 '아직 해외포교는 걸음마 단계이며, 종단을 비롯해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 했다. '우리나라도 외국행자들을 유치해서 그들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해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서양인들도 명상이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아요. 세계의 정치인들이 인과법을 깨닫는다면 세계평화는 저절로 이뤄질 것입니다."

스님은 '미국이 너무 자국의 이익만 생각해 약소국가를 무시한 인과응보로 미국인들은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 함부로 세계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오바마를 당선시킨 미국이 대단한 국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떤 전쟁이 나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9·11테러로 인해 미국이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됐다. "한 번 전쟁을 일으키면 비싼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것이 인과응보인데, 그 인과는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진리가 감독하는 것"이라 했다. "부처님 당시 석가족이 몰살을 당했는데, 그것은 인과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부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면서 경전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

강대한 코살라국은 호시탐탐 가비라국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코살라국 군대가 가비라국을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한길가의 고목나무 아래 앉아계셨다. 군사를 이끌고 그 앞을 지나가던 코살라의 왕 '비루다카'는 말에서 내려 부처님께 예를 올린 뒤 여쭈었다.

"부처님! 잎이 우거진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 잎 하나 달려있지 않은 나무 아래 앉아 계십니까?"

"친족이 없는 것은 그늘이 없는 나무와 같은 법이오."

비루다카왕은 부처님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군대를 돌려 코살라국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비루다카왕은 또 다시 가비라국을 향해 진군해 왔고, 이번에도 부처님은 그늘이 없는 나무 아래 앉아계셨다. 부처님의 모습을 본 비루다카왕은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세 번째로 비루다카왕이 진군해 왔을 때는 부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세상에 지은 인과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비루다카왕은 무참없이 가비라국을 공격했다. 살생을 금하고 있던 석가족은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몰살당하고 말았다.

"인과법이 이렇게 무서운데 욕망을 위해서 고삐 풀어진 망아지처럼 날뛰어서 되겠어요? 인과법이 바로 진리인 것이라."

'인과법이 진리'라는 스님의 말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스님의 안온한 미소와 낮은 목소리로 자분자분 들려주시는 법문은 감로수와 같았다. 우리 중생들에게도 스님의 행복한 기운을 나누어주시기를 간청했다. 스님은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하고 웃었다.

"불교는 '끝없이 욕망하는 그 허덕이는 마음을 쉬어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허덕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허덕이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고 채워진 것은 언젠가는 비워지는 것이 세상사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또 고운 놈, 미운 놈이 다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사를 두고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게 됩니다."

곧 세납 칠십을 맞이하게 되는데도 스님은 매일 새벽 2시 30분이면 일어나 새벽예불을 올린다. 사시예불, 저녁예불까지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공양도 대중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결제기간 중에는 대중과 함께 정진한다. 24시간을 오롯이 깨어있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에 대중으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다른 소원은 없고 다음 생에도 회색 옷 입은 '율브리너(Yul Brynner)'가 될 계획"이라 했다. 세세생생 인욕의 회색 옷을 입고 수행자 길을 걷겠다는 스님의 원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73. 용봉 이재복 선생

태고종 선지식 가운데는 많은 학자들이 계셨으나, 중년층 선지식으로는 대전보문학교 이재복 교장선생님과 광주 정광고등학교 최태복 교장선생님이 존경을 받았다.

이재복 교장선생님은 선비이기 전에 문인풍이 몸에 배였고, 최태종 교장선생님은 철저한 철학자이면서도 종교적 구도자였다. 두 분 다 1960년대부터 1980년 때까지 수 10차례 만나 뵙고 강의도 많이 들었다.

용봉 이재복(1918~1991) 선생님은 15세에 갑사로 출가 이후 마곡사에서의 5년간의 수선안거 이후 대승사·김룡사·봉선사·마곡사 강원에서 수학하고 불교중앙전문강원 대교과를 수료한 후 혜화전문학교 불교과를 수석졸업했다. 이후 마곡사 불교전문강원 강사 등 학승으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오세창, 정인보, 이광수 고희동, 서정주, 조지훈, 김달진 등 당시 문학계 인사들과 교류했다. 해방 직후 보문중학원(현 보문학원) 설립을 발의해 마곡사와 충청지역 사찰의 출자를 이끌어냈으며, 공주사범학교와 보문·중고교 등지에서 오랜 기간 강단에 섰다.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재복 선생님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를 위한 포교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舊 조계종 충남종무원 원장, 대전불교연수원 설립, 전국불교종립연학회 불교교본편찬위원장, 태고종 종승위원장 및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동방불교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며 태고종 종무행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나는 1918년 충남 공주 계룡에서 태어났네. 생후 5개월 만에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보통학교와 중등교육을 마쳤으나, 당시는 일제강점기라 조선사람으로서는 길이 없었지. 그래서 15세에 공주 갑사 이은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마곡사, 대승사, 대원암, 봉선사, 금용사 등으로 돌아다니며 불연(佛緣)을 맺었지. 1935년 일본시찰단에 참여하였다가 일본불교가 한국불교보다는 앞섰다는 것을 느끼고



'불교성극단'을 조직해 전국을 순회공연도 하고…."

이 말씀은 필자가 대학 1학년 때 현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함께 하계순회강연을 갔다가 대전보문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들은 이야기다.

"대륜 큰스님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습니까?"

"1939년 내 나이 22세 때지. 대륜 스님 덕분에 박한영 스님, 김동화 박사님으로부터 불교공부를 수학할 수 있었지. 24세 때부터서는 육당 최남선 선생 서재에 머물며 정인보, 이광수 등 문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고. 그 때 나는 능금나무에 대한 시를 이렇게 지었어."

**죽음이란 또한 능금나무가지에서/ 한 알의 능금이 눈 감고 떨어지듯 고요한 거리/ 그 거리를 두고 인생은 / 참꽃처럼 취해 있느니.**

선생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죽음을 체험한 듯 한참 있다가 눈을 떴다. 그때 교감선생이 옆에 있다가 말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부터 충남불교청년회를 조직하고, 마곡사 등 여러 사찰을 동참시켜 보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줄곧 30여년을 외길로 교육사업에 종사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교육을 통한 인재불사에 불교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틈나는 데로 문인활동을 통해서 불교포교의 길을 넓혀갔다. 요즘 들으니 그동안 포교활동시 법문 테이프가 3000여 점, 문학작품이 1만여 점이 넘는다 하니 가히 그 열정을 되새겨 볼만하다.

2009년 5월 출간된 <용봉 스님 추모 전집>에는 선생님의 방대한 설법과 강의, 문학작품, 대장경 강화 등이 수록돼 있다. 전집은 △제1권 '빈 배엔 달빛만 가득하고'(불교강화 녹취집) △제2권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대장경강해자료집1) △제3권 '미움도 사랑도 벗으라네'(대장경 강해 자료집2) △제4~6권(대장경 강해 자료집) △제7권 '침묵 속의 끝없는 길이여'(문학집) △제8권 '아직도 그윽한 님의 향기'(추모, 유품집)의 전 8권으로 구성됐다.

사람들은 삭발염의하고 출가입산한 사람만이 출가한 스님으로 아는데, 이렇게 유발대처하고 가무음곡을 하는 선생님들 속에도 진짜 스님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재복 선생님은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도의(道義)를 재건하며 퇴폐한 사회를 정화하고, 변질된 청소년을 교화하는 데는 불교지도자 여러분이 각자 분수 따라 종교적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 교육불사 앞장선 선지식… 불교 생활화·현대화 적극 포교


##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 수월관음도

###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 자동차용호신불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김옥암 교수가 쓰는

# 자족의 경제학 <27>

# '생각대로 하고 싶다' 는 욕망먼저 버리자

## '우주의 리듬' 거스른 것에 대해 '미안하다' 참회해야

메테르링크가 그의 동화 <파랑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파랑새>에서는 주인공인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행복의 성 주변의 여기 저기를 헤매며 저편 산속까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방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진짜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끝내 실망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뜻밖에 집 안 가장 가까운 창가의 새장 속에서 지지배배 하며 그 행복의 파랑새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의외로 그와 같이 우리들 가까운 주변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불행의 원인인 마음속의 고통(四苦八苦)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고(苦)로부터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곧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의 고(苦)로부터 낙(樂)으로 이르는 길을 찾아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행복 추구자' 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행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 즉,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의 '최소한' 이 되는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학자 스미스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富)나 지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며, 그 행복은 보편적 수준(모든 사람에 동등하게)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는 그 '최소한' 도 유사한 개념일 것이다. 스미스의 경제학에서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경제경쟁' 을 강조한 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행복은 그 후 2백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축소되고 정지되었다고나 할까. 오직 욕망 충족의 시장경쟁만 가속화해 온 것이라고 이미 필자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불교의 목표는 고(苦)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즉 해탈(解脫)에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고' 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인은 이 '고' 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대로 하게 하자' 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이다.

그런데 불교는 이 '생각대로 하고 싶다' 고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생각했다. 그것은 '얻어지지 않는다' 든가 '공(空)' 개념으로 소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경제적 행복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보자.

*행복= 재화 / 욕망

위 식에서 분자를 크게 함으로써 행복이 성취 된다고 하는 것이 서양식이라고 한다면, 분모를 작게 하는 것이 동양식 혹은 불교식인 것이다.

'공' 이라든지, '얻어지지 않는다' 고 하면 조금 소극적이고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표현한다면 첫째로 살려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 둘째로 살려지고 있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이 불교의 중요한 사상이다. 요컨대 '연기(緣起)법' 의 현대적 표현인 것이다.

인간은 태양, 공기, 물 없이는 한 시도 살 수 없다. 확실히 우리들 인간은 우주나 동식물 등의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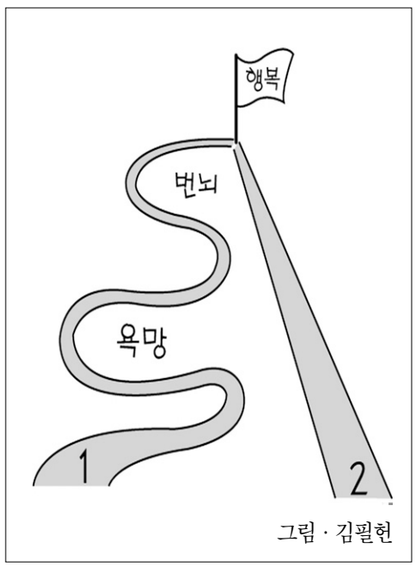


그림 · 김필헌

자연물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유아기에 어머니가 꼭 껴안고 알맞게 젖을 먹이는 것으로부터 기본적 신뢰감(안정감)을 얻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발육한다. 즉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서 '살려지고 있다' 고 하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사춘기에 달하면, 자아의 관념이 길러지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근대 서양문명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 하는 명제위에 선 합리론적 자아문명이다. 우리 한국인은 1960년대 이후 절대 '빈곤의 함정(Trap)' 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성장 만능의 개발철학에 몰두해왔기 때문에 '살려지고 있다' 는 불교 관념은 무시돼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살려져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살려지고 있다' 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무심코 참으로 '(매우) 고맙다' 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 말을 할 것이다. 인간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우주의 전 존재를 대표해 소리를 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살려지고 있다' 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자신, 이기심(ego)에 빠진 자기 자신 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가 "미안하다(부끄럽다)"고 하는 말이다. 이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보다 인생의 원점일 것이다. 불교에서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며, 부처님 덕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고맙다' 와 '미안하다' 고 하는 두 가지 깨달음은 석가모니부처님 입멸시의 가르침인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의 정신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이 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꼈을 때, 우리들은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 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그런 경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할 여지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는 파고들어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나날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고하는 욕망의 연속이다. 그 때문에, 우리들 범인들에게 가능한 것은 '~하고 싶다는 마음' 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다' 는 것의 내용이 우주의 리듬 · 법칙에 따르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의 리듬이나 법칙이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면, 낮과 밤이란 확실한 리듬이 있지만,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는 명확한 리듬이 없다. 인간에게는 개체유지 본능과 건강한 성장본능 등 우주법칙에 조화하는 리듬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는지는 리듬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생존경쟁이야말로 우주의 리듬 ·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경합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우주의 리듬 · 법칙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 논리로는 명확한 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업사회에 사는 인류가 이 우주의 리듬 · 법칙에 계속 반해온 결과, 현재와 같은 지구환경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은 확실하다. 대체로 문명, 특히 공업문명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의 집적이며, 우주의 리듬 · 법칙에 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인간은 '살려지고 있다' 고 하는 사실에 '고맙다' 고 감사하며, 이제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주의 리듬을 거슬러 살아온 것을 '미안하다' 고 참회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 지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닐까 싶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 ㉗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 허달의 불교와 코칭

## '창의력', 상상력과 패러다임 전환의 산물

23세기쯤 되어서, 인체 각 부분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게끔 과학이 발달하였다. 당연히 뇌(腦)도 마음대로 골라 바꾸어 넣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고객이 뇌 가게(Brain Shop)에 들러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적당한 뇌를 고르고 있는 중이었다. 진열장을 보니 단돈 $5,000의 싸구려 뇌부터 수만 불, 수십만 불 단위의 뇌까지 아주 다양하다. 익숙한 이름이 있어 가격표를 보니 '아인슈타인 $50,000' 이렇게 적혀 있다. 제일 비싼 뇌는 포장도 아주 호화롭게 되어있고 가격이 $300,000나 된다는데 아무래도 거기 적혀진 이름이 낯 설은 이름이다. 마침 가게 점원이 지나가기에 넌지시 물어보았다.

"저건 도대체 누구의 뇌인데 저렇게 비싸지요?"

점원이 말했다. "아, 이거요? 이건 20세기 한국 정치인 모 장군의 뇌인데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신품(新品)이거든요."

군사정권 시대에 유행하던 블랙 유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군 명칭을 떼어버리면 문민(文民) 정치인 범용으로 쓸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 책략이 나쁜 방향으로는 아주 뛰어난 정치인을 여럿 겪은 뒤라 이 유머는 그만 용도폐기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라. 고객 누구나가 자신의 뇌를 갈아 끼우기 위해 새 뇌를 산다면, 뇌 상점에서 인기 있는 뇌는 책략가의 뇌일까, 시인의 뇌일까, 아니면 과학자/철학자의 뇌일까? 내 개인적 소망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시인의 뇌를 고르겠다는 원매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교세라를 세계 100대 기업으로 일궈낸 뒤 탁발승으로 돌아간 이나모리 회장이 <카르마 경영>이란 책에서 주창한 바와 마찬가지로, SK의 '최종현 사장학' 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도(道)가 필요하다고 설파하고 있는데, 이 '일 道' 에서는 기업경영의 원칙과 함께 자발적, 의욕적 환경 하에서의 두뇌활용(Brain Engagement)이 강조된다. 두뇌활용이라는 용어는 과정(Process)에 주안점을 둔 표현일 뿐이고, 이 역시 목표하는 결과물은 창의력이다. 영구 존속을 목표로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려는 의제(擬制)된 인격체인 기업과, 길어야 3~40년 동안 공헌하다 결국은 떠나야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공간 괴리를 메울 수 있도록,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승-승(win-win)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승-승을 이루는 가치는 나누어서 줄지 않는 풍요로운 마음가짐(Abundance Mentality)에 합당한 가치여야 한다. 나누면 줄어드는 돈, 명예 같은 가치는 기업경영을 승-패/패-승의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기업과 구성원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시너지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궁극적으로는 와해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무엇일까? 전문코치들의 기업코칭 워크숍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다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윤추구' 라는 경제교과서의 정답보다 '사회적 공헌' 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어서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거기 모였던 전문코치들의 전력(前歷)이 그러했다. 학생 운동을 통해 사회를 정화하려는 데 매진하던 분들이 그 연장선 상에서 코칭에 입문해, 코칭을 통해 사회와 그 구성원 개조를 지속하려는 목표에 뜻을 두고 있거나, 기업 출신이라고 해도 대부분 HR 부서에 근무하던 분들이 구성원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측면에 가중치를 두고 기업코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코칭은 이윤추구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추구하는 것을 제1의(第一義)로 삼고, 기업과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성원,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승-승 할 수 있는 공통적 가치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 공통가치를 '창의력에 의한 성공체험과 그 선순환(善循環)' 이라고 놓고 보면 문제의 해답이 보인다는 것이 이른 바 '일 道' 의 착안점이었던 것이다.

개인 창의력은 상상력과 패러다임 전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집단창의력은 승-승과 공감적 의사소통을 추구하여 서로 다름을 축복 삼는 시너지의 현재화(顯在化)라는 점에서, 둘 다 기업코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주된 본령이다.

기업경영은 냉철한 결정에 늘 직면해야 하는 비정한 일이므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시인의 뇌를 사서 장착해서는 이에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분이 만약 있다면, 많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어째서 "Burning Yes(불타는 예스)"를 주창하는 낙관주의자들이며 기본적으로 감성주의자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봉행

# 유산아. 낙태아(수자령) 영가 49일 특별 천도재

*1. 아무리 어려워도 유산아(수자령) 영가 천도만은 꼭 해 줘야,*

유산아(태아령)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중에서 죽은 것이기에 이승의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크다.
그런 태아령은 빨리 삼도천(三渡川)을 건너서 불계(佛界)에 가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공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천도해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여진다.
비록 이름 없고 세상에 햇빛을 보지 못 한 낙태아, 사산아일지라도 불교적 생명관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한 생명체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지성으로 천도하고 영혼을 달래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생지장도량 철원 심원사에서는 유산아(수자령) 영가만을 위한 특별(유산아수자령영가만단독) 천도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다 같이 동참하시어 이 세상 빛과 이름을 갖지 못한 우리의 수자령 영가님에게 **불명(이름)을 지어 주고** 속세의 한없는 미련을 떨치고 서방정토에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천도공양에 두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유산아. 낙태아(수자령) 영가 특별 천도재 일정*

입재 : 2009년 12월 20일 (음 11월 5일) 일요일
초재 : 2009년 12월 27일 (음 11월 12일) 일요일
2재 : 2010년 1월 3일 (음 11월 19일) 일요일
3재 : 2010년 1월 10일 (음 11월 26일) 일요일
4재 : 2010년 1월 17일 (음 12월 3일) 일요일
5재 : 2010년 1월 24일 (음 12월 10일) 일요일
6재 : 2010년 1월 31일 (음 12월 17일) 일요일
회향 : 2010년 2월 7일 (음 12월 24일) 일요일

◆ 행사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철야 기도 합니다.
◆ 기도 동참금 : **한 가족당 동참금 기본 7만원 + 수자령 영가 1위 마다 2만원씩 추가**
◆ 입금계좌 : 농협 238-01-199000 / 국민은행 324501-04-042961 [ 예금주 : 심원사 ]
◆ 차량문의 : 하나관광 장 묵 기사 011-263-7809 하나관광 사무소전화 : 02)395-7781 (왕복 13,000원)
: 행사기간 중 조계사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전 7시 차량운행 합니다. 미리 예약 바랍니다.
◆ 자세한 것은 종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 033)455-5882, 455-3468 / 팩스 033)455-0419

대한불교조계종 철원 심원사 주지 정현 합장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2번지

#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 ‘공부하다 죽어라’ 들을 때마다 절절하고 새로운 말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 가야산 정진불 〈51〉

제12장 지리산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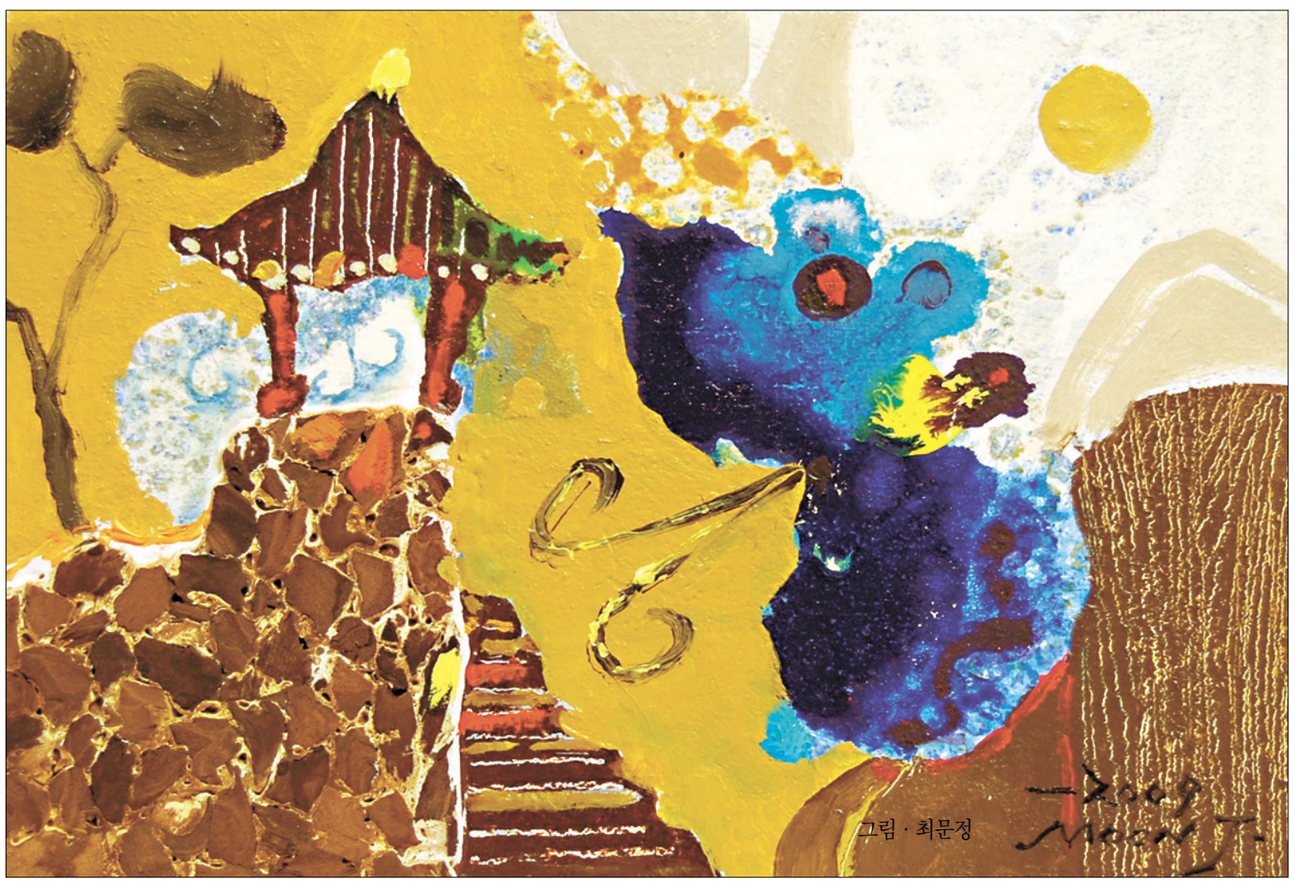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도솔암을 오르는 동안 정견 스님은 대연 거사를 마치 속가 친구 대하듯 무엇이든 숨김없이 얘기했다. 대연 거사는 그러한 정견 스님에게 호감을 느꼈다. 스님의 심성이 옹달샘의 물맛처럼 순수하고 시원했다.

“절도 지리산에 있고, 속가도 지리산에 있는데 왜 굳이 출가하셨습니까.”

“그냥 절이 좋던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스님 되고 싶어 절에 가니까 졸업하고 오라 했지요. 속가 부친도 절하고 인연이 깊었고요. 나는 스님들이 좋아 죽겠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염불소리가 나면 끝까지 들어야 했고, 스님들이 탁발하러 오시면 저 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 막 궁금해져요. 속가가 벽송사 밑에 있는 마을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스님들이 낯익었지요, 함양 이쪽에 사는 친척들도 대부분 불자들입니다.”

이윽고 도솔암에 도착하니 몸이 비쩍 마른 스님이 정견 스님을 맞이했다. 미리 휴대폰으로 연락이 된 듯 젊은 스님이 마당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늦었지만 점심공양 준비 좀 하시겠습니까.”

“저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이 공양을 준비하는 동안 대연 거사는 도솔암 경내를 이리저리 산책했다. 대롱으로 물을 받는 수각은 인법당 왼쪽에 있고, 혜암 스님이 주석했던 토굴도 보였다. 대연 거사는 정견 스님과 토굴 툇마루에 앉아 잠시 쉬었다. 작은 산자락이 인법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고, 눈앞으로는 활처럼 둥그런 지리산 능선 안으로 거대한 허공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

대연 거사는 자신도 모르게 도솔암의 풍광에 감탄했다.

‘청매 조사께서 어떻게 이런 정상에다 암자 터를 잡을 생각을 했을까!’

산 정상에 자리 잡은 암자들은 대부분 마당이 비좁아 마음이 급해지는데 도솔암은 그렇지 않았다. 마당이 넉넉하여 발걸음을 한가롭게 했다. 그런가 하면 멀리 솟아 있는 지리산의 유장한 능선들이 두 눈을 상쾌하게 맑혀 주었다. 능선 안에 담긴 일원상처럼 크고 빈 허공은 무엇에나 걸림 없게 해주는 듯했다.

누군가가 토굴 한쪽에 붙여놓은 청매 조사의 시가 절로 이해되었다.

**구름 없는 가을 하늘 둥근 거울이여**
**외기러기 날아가며 흔적을 남기는구나**
**남양의 저 노인네는 이 소식을 알았으니**
**꽃바람 천리 사이 말없이 통해지네.**
**雲盡秋空一鏡圓 寒鴉隻去偶成痕**
**南陽老子通消息 千里東風不負言**

## 대연 거사는 도솔암 오르며 풍광에 감탄
## 정견 스님은 혜암 스님 얘기에 눈시울 붉혀

청매 조사가 지리산의 산중암자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을 보다가 외기러기가 날아가자, 문득 중국의 옛 선사들이 생각나 지은 게송이었다.

중국 선사 중에 마조도일(馬祖道一)과 경산도흠(徑山道欽), 남양혜충(南陽慧忠) 등이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마조가 일원상을 그려 경산에게 보내자, 경산이 마조에게 점을 하나 찍어 되돌려 보냈던 바, 이를 전해들은 남양이 ‘흠, 경산도흠이 마조의 속임수에 그만 넘어갔구나’ 하고 말했던 것이다.

청매인오(靑梅印悟).

조선 중엽에 서산 대사의 회상에 들어가 법을 얻은 다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산대사를 따라 승병장이 되어 3년 동안 왜군과 싸워 공을 세웠고, 그림에도 뛰어나 광해군 때는 왕명으로 벽계정심(碧溪淨心), 벽송지엄(碧松智嚴), 부용영관(芙蓉靈觀), 서산휴정(西山休靜), 부휴선수(浮休善修) 등 오대 선사들의 영정을 그렸으며, 선시에도 뛰어나 십이각시(十二覺詩)와 십무익송(十無益頌) 등을 지어 승속 간에 교화를 펼쳤던 선사였다.

전쟁이 끝나자, 스님은 변산반도 월명암으로 올라가 암자를 중수하여 지냈고, 지리산 도솔암으로 숨어들어와 정진했는데, 공부는 고요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남원 등에 장이 서면 암자에서 산죽으로 만든 조리를 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로 나갔다. 조리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곳에서 참선을 했다. 소란스러운 장터에서도 화두가 잘 들리면 ‘오늘 장사를 잘했다’ 하고 화두가 순일하지 못하면 ‘오늘 장을 잘못 보았다’ 하면서 가지고 간 조리를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도솔암으로 돌아오곤 했다.

입적은 연곡사에서 했는데, 스님을 똥을 싸서 벽에 발랐다. 구린내를 풍기니 대중 모두가 스님을 피해 달아났다. 마지막까지 간병하던 부목마저 떠나려고 하자, 스님이 부목을 불러 말했다.

“너는 도인이 열반하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아라.”

스님이 열반에 들자 똥칠했던 방안에서 향기가 진동했다. 연곡사 대중들이 스님의 이적에 신심을 내어 부도를 조성하였으나 그곳에 세우지 않고 도솔암으로 옮겼다. 이후 조선 왕조와 함께 도솔암도 허물어지고 스님의 부도만 잡초 속에서 남게 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도솔암 쪽에서 산불이 난 듯 불길이 한동안 나타났다. 불을 끄려고 마을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갔으나 불난 흔적은 없었다. 세 번째에는 영원사 스님들과 함께 올라가보니 부도에 봉안된 스님의 사리에서 방광을 하고 있었다. 스님 사리에서 방광한다는 소문이 나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일본인이 부도를 영원사로 옮겨버렸다. 오르기 힘든 도솔암에 두느니 영원사로 옮기는 것이 관광에 도움이 되리라고 계산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원사로 온 스님 부도는 다시는 방광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왜군을 물리친 승병장이었던 스님이 일본인들의 장삿속을 알고 자취를 감췄다며 입소문을 내어 전했다.

스님이 남긴 십이각시(十二覺詩)는 이러했다.

**깨달음은 깨닫는 것도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니**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네**
**깨달음을 깨닫는 것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어찌 홀로 참된 깨달음이라 하리오.**
**覺非覺非覺**
**覺無覺覺覺**
**覺覺非覺覺**
**豈獨名眞覺**

점심공양 뒤, 대연 거사는 정견 스님의 안내를 받아 도솔암 주변을 산행했다. 도솔암 바로 앞에도 왕릉처럼 생긴 산봉우리 하나가 볼록 솟아 있었다. 산봉우리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을 만큼 넓게 닦여져 있었다.

“스님께서는 무슨 화두를 받았습니까.”

“출가했을 때 노장님께서 만법귀일(萬法歸一)을 주셨습니다.”

“만법귀일이 무엇입니까.” 대연 거사가 스스럼 없이 묻자 정견 스님이 웃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화두를 들면 집중이 잘 되지요. 집중을 끊이지 않게 애를 쓸 뿐입니다. 선방 다니고 하는 것이 다 집중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념으로 들어가면 번뇌 망상이 지워지고 희열이 생깁니다. 일여하게 가니까 확신이 들고요. 내 자신이 부처라는 확신 말입니다. 노장님께 고마울 뿐입니다.”

정견 스님은 말하다가 혜암 스님이 그리운 듯 눈시울을 붉혔다.

“큰스님과 정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노장님하고 열여덟 살에 만나 제자가 되었지요. 상무주암에 살 때 점심공양 마치고 나면 ‘정견아, 빨리 나와라. 길 고치러 가자’ 고 하면 곡괭이 들고 나가 길을 고쳤습니다. 밥 먹었으면 길을 고쳐야 한다. 길이라는 게 꼭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는 말씀 같았어요. 그때는 남이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진이었습니다.”

어느 새 정견 스님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혜암 스님의 가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노장님은 어느 정도 길이 고쳐지면 나무를 하도록 시켰지요. 도솔암에서 나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각안 스님도 나무하는 데는 한 지게 했지요. 땔나무가 충분한데도 노장님은 각안 스님과 나를 향해 ‘이놈들아, 나무는 많이 해놓고 밥값은 해야지. 나무를 많이 해놓으면 뒷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노장님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무를 틈나는 대로 쌓아놓고는 또 미련 없이 암자를 떠나버리시곤 했습니다. 나무를 하는 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암자에서 먼 곳부터, 아래쪽부터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야 뒷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나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산중암자에는 옛 스님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견 스님이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마다 달라요. 뒷사람을 위해 양식과 땔나무를 쌓아 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쓴 것만 채워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뒷사람이 오건 말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옛 스님들이 도 닦지 말고 사람 되라고 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혜암 큰스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노장님께서 승려대회에서 호령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해인사 큰 법당에서 사자후를 토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한밤중에 홀로 정진하고 계시는 노장님이 내 마음속의 노장님입니다. 출가해서 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릴 때였습니다. 암자에서 노장님과 한방을 썼던 암자였지요. 좁은 방을 막 헤매고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새벽에 일어났는데 노장님께서 앉아서 정진하고 계셨어요. 화두일념. 그게 딱 보여요. 그때 노장님 모습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았습니다. 수좌의 생명은 정진이지요. 그게 없으면 수좌라 할 수 없어요.”

“큰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충격이 컸겠습니다.”

“그때 저는 칠불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칠불선원에 방부를 들인 지 3일 만이었어요. 꿈속에 노장님이 나타나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꿈속이지만 그냥 갈 수 없었지요. 노장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칠불의 약수라도 떠가려고 했는데 흙탕물이 나와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깼는데 노장님께서 입적하셨다고 연락이 왔던 겁니다. 흙탕물이 나온 것은 노장님께 더 해드릴 것이 없는, 나와의 인연이 다했다는 것이었지 않나 싶어요.”

대연 거사는 갑자기 도솔암에 남아 정진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정견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재가신자도 도솔암에서 정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견 스님은 도솔암의 형편을 말하며 양해를 구했다.

“미안합니다. 여러 대중이 정진하기에는 식수도 그렇고 방사도 마땅찮지 않습니다. 이곳에 전기만 들어와도 난방이 해결되니까 재가신자 몇 명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승속을 떠나 참선공부는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식 용맹정진을 마치고 백장암을 갔더니 어디서 왔냐면서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다고 해요. 참선을 통해서 심신이 맑아졌던 것이지요.”

“정말 도솔암에 오니 신심이 나고 마음이 격동됩니다. 이런 데라면 절로 도가 닦여질 것 같습니다. 혜암 큰스님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면서도 왜 이런 곳에 토굴을 지으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정견 스님은 누구보다도 은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공부하다 죽어라’. 은사 스님에게 늘 듣는 말이지만 그때마다 절절하게 느껴지고 새롭다는 것이었다. 특별하게 애를 쓰고 정진한 분의 말이라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이었다.

〈계속〉

## “노장님 모습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았습니다 수좌의 생명은 정진, 그게 없으면 수좌라 할 수 없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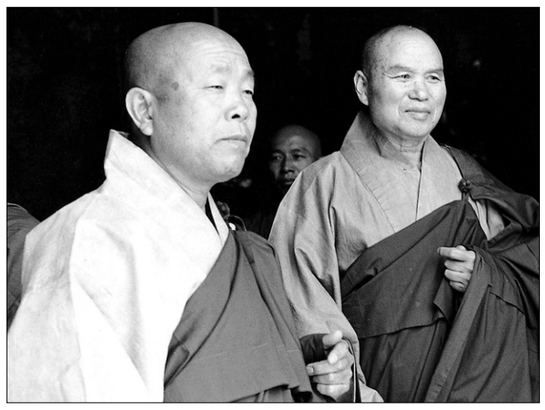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 “바보 소리 들어야 공부할 수 있다”

##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자서전 ‘누구 없는가’ 출간


스승인 故 성철 스님(오른쪽)과 함께 한 법전 스님.

성철 스님이 제자인 법전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학인이 스승에게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 불법의 대의)를 물었단 말이다. 그때 스승이 ‘죽은 사람 술상 위에 술이 석 잔’이라고 답했는데 니는 어찌 대답하겠노?”

“제가 그때 있었으면 곡을 세 번 했겠습니다.”

“니는 이제 됐다. 어떤 것을 물어도 대답할 수 있겠구나.”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스물넷에 성철 스님을 만나 태산처럼 믿으며 시봉하고 공부한 지 10년만에 인가를 받는 장면이다. 며칠 간의 계속된 공안(公案) 점검에도 막힘 없이 척척 대답한 법전 스님은 마침내 스승의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최근 발간된 법전 스님의 구도와 깨달음의 과정을 기록한 자서전 <누구 없는가>(은행나무)에서 스님은 파계사 성전암에서 인가 받던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꽉 막혀 있던 자리가 터져버린 듯했으니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척척 나왔다. 물구덩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해도 겁날 게 없었다. 노장(성철 스님)이 1천7백 공안을 다 물어도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솟았다.”

<누구 없는가>에서 처음으로 성철 스님으로부터 점검 및 인가 받는 과정을 공개한 법전 스님은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서 목숨을 건 토굴수행 끝에 체험한 득도의 과정에서 얻은 오도송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거울과 거울이 서로 비치니(鏡鏡相互照)/ 비치는 것과 그림자가 둘 다 없더라(照無於影像)/ 이것이 또한 무슨 물건이냐(此是亦何物)/ 청산이 백운 속이더라(靑山白雲裏).**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든 정진이었다. 그런 만큼 온몸으로 부딪쳐 실감한 득력(得力)은 대단한 것이었다. 무한한 힘이 솟아나오는 것을 느꼈다. 천하가 모두 내 손에 들어있는 듯 자신감이 솟았다.”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한 생을 참선정진으로 일관한 법전 스님은 1925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 1938년 백양사 청류암으로 입산해 1941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호 스님을 계사로, 설제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했다. 1949년 성철 · 청담 · 향곡 · 자운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동참해 수행의 전기를 맞았고, 1951년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 성철 스님을 은법사로 도림(道林)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1956년 대승사 묘적암에서 홀로 정진해 득력한 뒤, 서른셋의 나이에 파계사 성전암에서 성철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후 태백산에 들어가 10여 년간 홀로 보임(保任)했으며, 1969년부터 15년간 수도암에서 퇴락한 가람을 중수하고 선원을 열었다. 1996년 해인총림 방장, 2000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2002년 제11대 종정, 2007년 제12대 종정으로 추대된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에 주석하며 후학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진리를 위해 일체를 희생하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한 평생 우직하게 실천해 온 법전 스님은 스승이 던진 “누구 없나?”하는 화두와 같이 “한국불교를 청정하게 이끌 사람, 그 누구 없는가?”하는 뜻을 담아 펴낸 <누구 없는가>에서 철저한 수행정신을 거듭 당부한다.

“수행자는 바보 소리, 등신 소리 들어야 비로소 공부할 수 있다.”

누구 없는가 | 법전 지음 | 김영사 | 1만 4000원

김성우 기자

# ‘진리의 길’ 스승들의 따끔한 가르침

## 원순스님, 구도자의 수행 지침서 ‘치문’ 완역


원순 스님.

<치문경훈(緇門警訓)>은 사미(니) 스님들이 강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으로, ‘먹물 옷을 입은 구도자(緇)가 올곧은 수행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도록(門) 도와주는 스승들의 따끔한 가르침(警訓)’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치문경훈>은 스님이 아니더라도 불제자라면 누구나 생활속에서 가까이 해야 할 간절한 지침서다.



난해한 한자가 많고 경전과 어록, 사서삼경 등의 내용이 어우러져 어렵기로 소문난 이 책을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치문>(법공양 刊)이란 이름으로 펴냈다.

<치문> 3권 완역을 기념해 12월 4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원순 스님은 “<치문>은 도(道)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요,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라며 “수행의 완성을 통해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닫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책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순 스님이 풀어 쓴 <치문>은 제1권 ‘스님들이 가야 할 길’, 제2권 ‘수행은 중생의 복밭’, 제3권 ‘모두 함께 깨달음’으로 구성돼 있다.

제1권에서는 스승들의 따끔한 훈계와 면학에 대한 강조, 위산영우 선사의 ‘위산경책’을 비롯한 후학들을 위해 남긴 가르침(遺誡)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제2권은 마음에 늘 새겨두고 살아야 할 글들을 모은 잠명(箴銘), 공부에 관한 편지글을 모은 서장(書狀), 사찰 건축물에 대한 기록을 모은 기문(記文), 훌륭한 책의 서문을 모아 놓은 서문(序文), 이산혜연 선사와 산곡 거사의 발원문이 들어있는 원문(願文)으로 구성돼 있다. 제3권은 선종에 관한 글을 모은 선문(禪文), 선사들의 가르침을 모은 시중(示衆), 백시랑과 사마온공의 게송을 모은 게찬(偈讚), 황제들이 불법을 지킨다는 내용의 호법(護法), 인과응보를 설파해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내용인 전기(傳記)와 계고(稽考)가 들어 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순 스님은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정진한 후, <禪스승의 편지> <선요> <한글 원각경> <육조단경> <몽산법어> <선가귀감>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 등 20여권의 경전과 선어록을 우리말로 옮겼다. 2003년 행원문화상(역경부문)을 수상한 스님은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로서 1996년부터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 중이다.

치문 1,2,3 | 원순 풀어씀 | 법공양 | 각권 2만원

김성우 기자

# 김교각 스님이 1200년만에 귀향한 까닭은?

## 한국 불자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김지장 스님’



지난 11월 2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김교각 지장왕보살 봉안법요식’이 봉행됐다. 이 행사가 불교계 내외의 주목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794년 김지장 스님이 입적한 지 120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중국에서 조성된 김지장왕보살상이 신라 천년의 고도 서라벌이자 김지장 스님의 고향인 경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설가 정찬주씨가 김지장(696~794) 스님의 구도기를 그린 <소설 김지장>(한걸음더 刊)을 펴냈다. 책에는 ‘김지장왕보살상의 1200년만의 귀향에 모티브를 얻은 듯한 다음과 같은 예언도 보인다.

“1천년 하고도 200년, 1200년 후가 되겠지. 그때 고국의 사람들이 나를 부를 것이야.”

입적하기 전 김지장 스님이 제자인 정장 스님에게 한 예언처럼, 김지장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이 본격적으로 한국 불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소설 김지장>의 화자는 2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년의 차(茶) 연구원이다. 아내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던 주인공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불심이 깊던 아내를 위해 대원사를 찾았다가 고현 스님으로부터 중국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는다. 천이백년 전 신라의 김지장 스님이 남긴 예언의 실현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떠나는 고현 스님과 김지장 보살에 매료되어 떠나는 주인공의 중국 여행기가 소설의 한 축을 이룬다. 아울러 주인공이 추적하는 김지장 보살의 구도기는 다른 한 축을 이뤄 현재와 과거의 두 축이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김지장 스님의 생애가 드라마틱하다. 이번에 나온 <소설 김지장>은 2004년 발간된 소설 <다불>의 개정판이다.

신라 왕자 출신 김교각 스님으로 잘 알려진 김지장 스님은 출가 후 당나라로 건너가 정진하다 99세로 입적한 후, 등신불로 모셔졌으며, 지장 보살의 화신으로 존경받았다.

소설 김지장 | 정찬주 지음 | 한걸음더 | 1만원

김성우 기자

#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발표

## 불교 관련서 12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최근 발표한 올해의 우수교양도서 414종 가운데 불교관련 도서 12종이 선정됐다.

신청접수된 2,940종 중 종교, 철학, 사회과학, 문학, 역사, 문화일반 등 12개 분야 가운데서 불교관련 도서는 종교와 문학부문에 각각 6종이 우수도서로 뽑혔다. 특히 불광출판사는 무려 3종이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종교부문 총 16종의 도서 중 불교 관련서는 △선재야 선재야(문윤정 지음, 클리어마인드) △길 위의 절(장영섭 지음, 불광출판사) △불교학과 불교(권오민 지음, 민족사)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 의사(툽텐 갸초 지음, 김인이 옮김, 호미) △현대예술 속의 불교(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엮음, 예문서원) △청소년을 위한 세계 종교여행(김나미 지음, 사계절출판사)이다.

문학부문 총 86종의 선정도서 가운데 불교 관련서는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곽은구 지음, 불광출판사) △지리산 스님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천진 지음, 불광출판사)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 백팔번뇌(홍성란 지음, 조계종출판사) △밥그릇 경전(이덕규 지음, 실천문학) △삼천 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성전 지음, 마음의숲) △느림보 마음(문태준 지음, 마음의숲)이다.

김성우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 법정 | 문학의 숲 |
| 2 | 누구 없는가 | 법전 | 김영사 |
| 3 | 사는 즐거움 | 보경 | 뜰 |
| 4 | 인도에 갈 때는 숟가락을 가져가세요 | 대연 | 이스트워드 |
| 5 |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6 | 일기일회 | 법정 | 문학의 숲 |
| 7 |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 성전 | 마음의 숲 |
| 8 | 생활 속의 참선수행 이야기 | 권영두 | 운주사 |
| 9 | 그냥 무조건이야 | 대행 | 한마음선원 |
| 10 | 부처되는 공부 | 우학 | 뜰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중 14권 출간! 최초로 본공안을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황토삼백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신종 플루가 걱정되는 지금
황토삼백초가 내 곁에 있어 좋다!!

삼백초는 항암과 성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멸종의 수난을 겪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 177호입니다.

(주)천둥소리에서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귀한 식물입니다.




◆ 황토삼백초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은 발효대사과정에서 중금속, 독성물질, 잔류농약 등을 무력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이나 차를 꾸준히 드시면 힘이 넘칩니다. (차, 환, 추출액, 발효원액 등)

참고문헌 : 삼백초 건강법, 삼백초 효소건강법, 중약대사전, 당본초, 영남채약록

☎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본사 (055)945-2976, 2676, 2679
· 대구지사 010-2531-4785 / 인천지사 011-336-5843
· 서울지사 010-3119-1911

황토삼백초는 (주)천둥소리의 등록상표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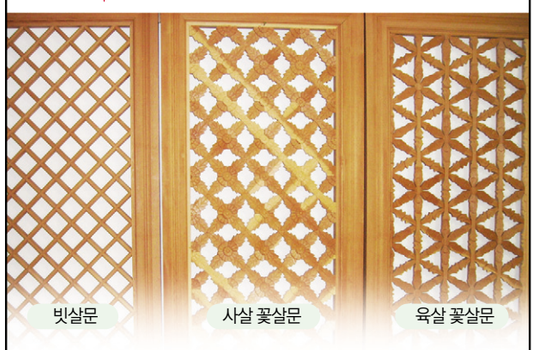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 공간 속에서 사색과 명상에 잠기다

■ 사진전 리뷰 - 문상운 '구름이 산 아래로 내려온 날'



'구름이 산 아래로 내려온 날'을 주제로한 사진가 문상운의 작품.

사진가 문상운의 '구름이 산 아래로 내려 온 날' 전시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대구 '갤러리 큐브C' 에서 열렸다. 문상운의 사진 앞에 서면 '적막함과 고요 속에서 자신을 관조' 하게 된다.

사진은 사물과 사물이 만나고 빛과 사물이 얽혀서 렌즈의 조화가 생성한 이미지이다. 그래서 사진가는 빛을 잘 제어하고 카메라워크에 의해서 자신의 사상을 잘 구현해내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문상운은 '구름'을 주제로 해 구름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풍경을 찍었다. 그는 구름이 산 아래로 내려와 만든 일회적 풍경 속에 적요와 사색을 담아냈다. 담백한 흑백의 사진들이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다.

구름은 고정돼 있지 않고 일시적이고 우연적이며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구름은 스스로 모양과 색채를 지니며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문상운의 사진 속 구름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지니고 있으며, 무심하게 떠 있는 구름이면서 그런 구름이 아닌 것이다. 작가가 자신의 미적인 주관과 조형감각을 바탕으로 대상을 재구성해 외형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시킨 것이다. '텅 빈 공간 속에 홀로 불을 끄고 앉아 있을 때 그 공간은 물리적 개념을 넘어서는 무한의 개념을 가지게 되듯이' 문상운의 사진이 주는 공간 속에서 사색과 자유로운 명상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풍경(風景)이란 그 자체의 의미보다 '인간과 자연, 세계와 나, 나와 타자' 사이의 그 관계성을 찾고 해석하는 것"이라 했다. 작가는 '선상의 풍경' '사유의 풍경' '7번국도' 등 여섯 번의 개인전을 가지면서 자신의 사진이미지들을 그렇게 구축해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흰 구름과 안개가 겹겹이 쌓여서 산과 나무가 보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번뇌망상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불성(佛性)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작가는 '체로금풍(體露金風: 가을바람에 전체가 드러나다)' 이 한 마디를 툭 던지면서 "자연을 보는 것이 바로 나를 보는 것이요, 나의 실체를 보는 것이 곧 자연을 보는 것"이라 했다. 또 작가는 "예술은 삶의 렌즈로 이해하고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자연과 인간의 삶에 천착해 구현하려는 문상운의 사진 작업을 기대하면서 갤러리를 나섰다. 장보윤(자유기고가)

#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22일까지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창균)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를 맞아 제19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을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출신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인연 짓기'라는 주제로 총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작품들은 전통불화서에부터 불교적 소재가 가미된 회화와 조각까지 장르를 구분 짓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됐다. 전시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라메르에서 12월 16~22일 열린다. (02)730-5454 이은정 기자

# 중동, 핏줄처럼 얽힌 우리 삶의 문제

## 박노해 시인 첫 사진전 '라 광야'展 1월 7~28일 서울 갤러리 M에서



광야의 고향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여인.



시리아 사막길에서 저녁기도를 바치는 이라크인들.



폭격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살흡(13세).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된 분쟁지역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단연 중동을 꼽는다. 매일매일 외신을 통해 쏟아지는 중동 소식은 아픈 역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와 많이 닮아 있다.

시인이자 평화운동가인 박노해(51)는 중동 현장에서 10년간 촬영한 흑백필름 사진을 공개한다. 박노해 시인의 첫 사진전 '라 광야'展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터키-쿠르디스탄에 이르는 중동 분쟁현장들을 기록한 사진전으로 2010년 1월 7~28일 서울시 중구 갤러리 M에서 전시된다.

박노해 시인은 "한국인에게 가장 멀고, 가장 낯설고, 가장 잘못 알려진 곳이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이라며 "한국과 닮은 중동의 문제는 '세계일화(世界一花:세계는 한 송이 꽃)'라는 말처럼, 핏줄처럼 얽힌 우리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평생을 노동해방운동가와 시인으로 살아온 박노해가 이역만리 중동을 찾아 그들의 가난과 분쟁의 현장에 뛰어 든 것도 이 때문이다. 시인이 10년간 촬영한 필름은 총 4만여 컷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라 광야'展에는 수개월간 작업을 거쳐 고르고 고른 37점만이 전시된다.

이기명 갤러리M 관장은 "기획자로서, '사진가 박노해'의 작업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이번 사진전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박노해의 이번 전시는 시적 울림을 통해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설명했다.

박노해 시인은 참혹한 가난과 분쟁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과 극적인 이미지를 향해 다가서지 않았다. 그는 먼저 그 사건이 발생한 삶의 뿌리로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렌즈에 담아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이들과 여인들의 흐느낌이 들려올 때 그저 곁에서 함께 울어주며, 총성이 그치면 아이들과 바람 빠진 공을 차며 놀아주는 일 뿐이었습니다."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삶을 희구했고 갈망했다. 그 희망은 기도라는 성스런 행위로 이어졌고, 그것은 아비규환 속에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했다. 이것이 박노해 시인이 4만여 필름을 소진하며 얻은 결론이었다.

"폐허 더미에서도 협동하며 일어서는 강인한 생활력, 서로 나누고 보살피는 인간의 위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무릎 꿇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광야의 사람들에게 저는 다만 경외의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백방에서 흐르는 냇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동일한 짠 맛으로 되고 말듯이 네 가지 종족의 계급이 출가해 불제자가 되면 모두 석씨가 된다(百川入海 同一鹹味 四姓出家同一釋氏)는 말이 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이때에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세계일화를 마음에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02)2277-2438 이은정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공장,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친환경적이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중 . 제20-2009-0015109호

기능성 접이식 방석 (휴대용)

큰스님예불/좌선용 방석
- 색상 : 황금색, 회색, 적색, 밤색
- 원단 : 벨벳 라스타 가공
- 원료 : 성형 우레탄 (철재 프레임)



▶펼을 때 / 大=154,000₩ 1200x800x80mm
▶접었을 때 500x700x80mm
▶펼을 때 / 小 68,200₩ 890x540x65cm
▶접었을 때 350x540x65mm

기능성 접이식 방석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체형에 맞게 등받이를
- 4단계로 조절이되며 일자로 펴면 방석이되고
- 특히, 108배 절 운동도 가능하게 설계되었으며
- 또한, 접으면 공간활용과 보관이 용이합니다.

신도/좌선용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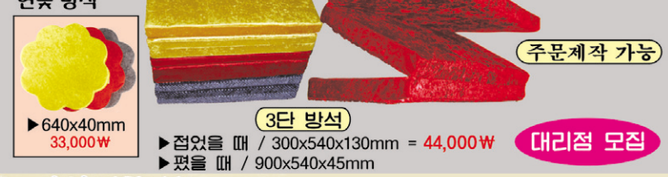


▶접었을 때 / 350x540x65mm / 66,000₩
▶펼을 때 / 880x540x65mm

성형우레탄 제작과정, 중요부품은 모두 100% 국산제품 사용

방석 속 에 사용된 통우레탄 국산제품

연꽃 방석



▶640x40mm 33,000₩

3단 방석
▶접었을 때 / 300x540x130mm = 44,000₩
▶펼을 때 / 900x540x45mm

주문제작 가능

대리점 모집

다라니퍼니처 Furniture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 031-594-7488.
FAX : 031-594-2054
농협 : 204074-52-079679 김경기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6 밥은 전략-방랑식객, 갑 아줌마 편

# 비빔밥에 대한 '아줌마적' 고찰

박 아줌마는 착하다. 그리고 양같이 순하다. 그녀가 15년 넘도록 만들어온 월간지에 수년을 기고하면서 단 한 번도 마감을 지켜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그녀의 기질에 매번 감동 비슷한 걸 한다. 마감이 매달 5일인걸 뻔히 알면서도, 걸핏하면 두해 전까지는 10일이었다는 기억을 들추어내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마감을 연장하는 필자에게 결코 성을 내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렇게 수년을 매달 마감 때면 끈끈한 정을 나눈 박 아줌마와 모처럼 약속이 잡혔다. 새해부터 연재기사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는데, 내가 제안한 아이템이 공교롭게 또 다른 필자인 S와 내용이 중첩된 것이다. 아이템을 조정하기위해 우리는 S의 사무실이 있는 마포에서 만남을 가졌다.

S는 우리를 한 비빔밥 전문점으로 안내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니 비빔밥전문점답게 오만 비빔밥의 종류가 총동원돼 있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나는 날치알 참치비빔밥을 주문하고, 박 아줌마는 불고기비빔밥을, S씨는 야채와 나물 위주로 구성된 '밥채반'이라는 메뉴를 주문했다. 그런데 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찐계란 바구니를 중앙으로 들이밀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씩 먹을 것을 권한다.

"여기 정말 특이하다. 비빔밥이랑 찐계란이랑 무슨 연관이라도 있어요? 궁합이 잘 맞는다던지 하는…."

나의 호들갑에 종업원은 빙그레 웃으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배고플까봐" 라고 한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종업원이 이번에는 테이블 위로 휴대용 가스버너를 세팅하더니 멀건 국물이 담긴 냄비를 그 위에 올린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물끄러미 바라보니, 콩나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올려놓으며 국물이 끓으면 부어 먹으란다. 콩나물국의 보온이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배려치고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는 순간, 박아줌마가 슬쩍 한마디 한다.



찐계란, 콩나물국과 함께 먹은 비빔밥.

"비빔밥값에서 8백원이 이 찐계란 값인 거고, 1~2천원은 이런 세팅 값으로 빼는 거야."

하긴 비빔밥값이 좀 애매하긴 했다. 7천원이면 7천원이고 8천원이면 8천원이지, '7천 8백원'이라고 쓰여 있던 메뉴판 가격이 생각났다. 역시 '아줌마'라는 종족들은 다르다. 실속 있고 현실적인 그녀들만의 특화된 감각과 생각 방식이 새삼 재미있어 박 아줌마를 바라보며 "역시 아줌마들은 달라"라고 웃으니, "아니 그렇잖아, 8백원이 왜 붙겠어. 이 계란값이지 뭐"라고 한다. 여자들의 수다를 말없이 응시하다 그저 찐계란 껍질 벗기기에 열중인 S의 얼굴은 "당체 여자들이란…" 하는 표정이다. 여하튼 8백원의 가치까지 살뜰히 챙기기 위해 내키지도 않는 찐계란을 하나씩 불들고 껍질 벗기기에 몰입하는데, 채 반도 벗기지 않아 비빔밥이 나왔다. 다급해진 마음에 찐계란을 벗기자마자 꾸역꾸역 입에 넣고 비빔밥을 비비고보니, 비빔밥을 담은 그릇도 그 종류마다 제각각이다. 날치알 참치비빔밥은 돌솥에, 불고기 비빔밥은 사각의 사기그릇에, 나물비빔밥은 놋그릇에 담겨져 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 그 흔한 비빔밥도 그릇에 따라 기품 있는 음식처럼 보이는데, 박 아줌마의 눈에는 '빛좋은 개살구' 같은 모양이다. 식당 밖을 나와 카페로 향하는 길에도 '아줌마 다운' 비빔밥값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솔직히 맛으로 치면 5천원짜리 밖에 안되더라. 일단 계란이 8백원이지, 그릇이나 셋팅좀 별나게 해 2천원은 그렇게 빼는 거야. 이것도 길에서 천원만 주면 한보따리 주는 뻥튀기인데, 비닐종이에 몇 알 씩 넣어 특별 서비스처럼 주잖아."

"그러게, 콩나물국만 해도 특별한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세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번거롭기만 하지."

면밀하고도 실속 있는 그녀의 분석이 구구절절 지당하게 들려 맞장구가 쳐지는 것을 보니, 이젠 나도 제대로 아줌마가 되어가는 모양이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15 복부비만

# '똥배' 단순히 배가 나온게 아니다

똥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20대 후반이 지나면서 호르몬 대사가 저하되고 이때부터 체지방이 증가한다. 그래서 30~40대에 똥배가 만들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운동량을 늘이거나 식사량을 줄여야 하는데, 계속 운동은 하지 않고 기존의 먹던 식사량을 그대로 하면 똥배(복부비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부비만이 되면 복압이 증가되어 기순환이 정체되고, 체내에 독소가 만들어지면서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이 생기게 된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 흡수 하는 작용을 하면서 노폐물을 배출한다.

대변 ·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독소가 가득 차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그 독소가 장 점막으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오염된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면서 각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식도와 위기능이 저하되면 트림, 신물, 속 쓰림, 가슴통증, 체하는 증상이 생기고 장 기능이 저하되면 식곤증, 간기능 저하, 복부팽만감 등이 생기고 대장 기능이 저하되면 변비, 설사, 방귀 등이 생긴다.

특히 건강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변을 통쾌하게 봐야한다. 가장 건강한 대변의 70~80퍼센트는 수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수분이 90퍼센트 이상이면 설사상태이고, 60퍼센트 이하이면 염소똥처럼 동그랗게 끊어지는 대변이 된다. 여성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변비는 대변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대장 속에 대변이 오래 남아있으면 수분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 변비가 되기 십상이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변 후에는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자신의 대변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독소'를 '식적(食積)'이라고 한다.

'식적'은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체내에 머무른 독소, 노폐물, 가스를 말한다. 배를 눌러보아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풍선처럼 빵빵한 느낌이 있으면 '식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비위기능이 떨어져서 소화흡수가 잘 안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식적은 이것이 심한 상태로, '적(積)'이라는 용어는 뱃속에 덩이가 생겨 아픈 병증(腹內結塊)이다. 비위(脾胃)의 정기(正氣)가 허한데에 사기(邪氣)가 자리잡거나, 음식내상이나 칠정울결(七情鬱結)로 기혈이 어체(瘀滯)되거나, 또는 한열실조(寒熱失調)로 인하여 생긴다. 상기(上氣)하면 숨이 막히고, 아랫배가 그득하고 답답하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기도 한다. 식적은 여러가지 적취증에 음식으로 유발되는 적취인데, 식체가 오래되면서 만성으로 진행하여, 몸속에 덩어리처럼 생겨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똥배'는 단순히 배가 나왔거나 살만 찐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적'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식적'은 발효한약으로 구성된 장해독단으로 근원 치료한다.

대개 100일 정도가 뱃속에 있는 '식적'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왜 100일이나 걸리는지 궁금할 것이다.

소화시키는 경로는 입→식도→위장→십이지장→소장→대장→항문 이다.

죽 늘어놓으면 대개 9m되는 파이프를 연상하면 된다. 이 경로를 통해 축적된 '식적'은 장운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100일 정도는 치료를 해야 제대로 장기능이 작동한다. 그래서 만성 소화 장애는 10년, 20년 고생하는 것이다.

늘 장속체증(식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식적'이 똥배의 원인임을 알고 똥배도 해결하고 건강도 회복하도록 하자.

*식적을 없애는 음식

콩, 팥, 된장, 강낭콩, 사과, 바나나, 딸기, 키위, 메밀, 발아현미, 통밀, 고구마, 감자, 토란, 시금치, 죽순, 양배추, 당근, 호박, 브로콜리,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김, 미역, 다시마

한양방센터 삶 대표원장 이경제 (02-576-7575)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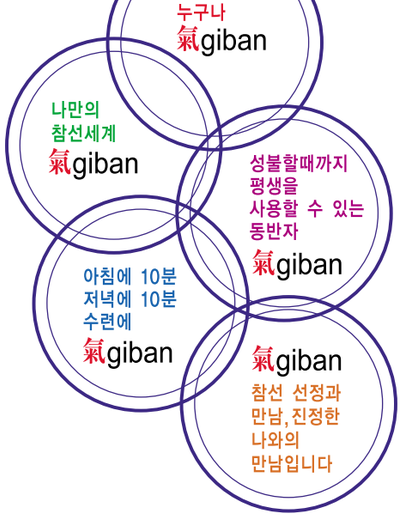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62호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빼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 불상 • 탱화

아주 저렴하게 판매
사찰에서 직접 조성합니다.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께만
판매합니다. 소량만 주문 제작해
드리므로 불교용품점에서도 판매가
불가능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불단 제작도 해 드립니다
043)857-1259

## 불자 국제결혼

- 국내/ 국제 초혼, 재혼
- 일본 45세 여성 이하 무료
- 미국 영주권 취득

이너머스웨이브
대표전화 070)8813-2265
담당 010-6310-2093

##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 역학·빙의 ·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 빙의, 전생, 우울, 가위눌림
2. 역학,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3. 속성과정 (출장지도 가능)
4. 신들림병 상담환영
5. 스님에 한해 특별 할인혜택
010-2484-5001
031)943-8094

##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행정사 (서울, 경기)
010-6569-1010

## 김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사주 ⊙운명철학상담
전국 불자님 전화, 우편상담 환영
사주학 기초부터 개업까지 책임지도
기초과정 후 간명비법 전수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번지 (3층)
종로3가역 ① 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미투리의상실 3층
010-9113-8545 김현산
02)741-8449 역리원

## 불 자 결 혼

- 초, 재혼
- 20-50대 가능
- 국내, 국제 가능

010-4485-8888
혜덕 스님
051)515-1933

##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정부정책, 마음의 진위,
사업성패, 미래예측,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것 찾기,
영가상태, 만물 만능치유, 운명개척 등
수치까지 확인.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 효능은 무궁
016-606-5658

##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 부전스님 모십니다

▷학천사 총무원
부산 영남
070-8791-7845

## 불심이 강하고 가족처럼 같이 지내실 수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696-7817
010-4368-4569

## 비구니 스님 기도도량 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832-9921
010-8916-0408

## 산세수려한 천년고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742-2057
011-9840-8571

## 절 운영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쌍문동
02)993-1892
010-5470-1892

##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사당동
010-3787-0259

## 덕유산 산하 암자에서 기도하며 지낼 40-50대 비구니 스님 또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스님 구합니다.

017-569-3722

## 부전스님 구합니다

▷경남 마산
016-428-6665

##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종교학 (불교문화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 김장에 꼭 필요한 양념의 필수!! 남해 청정해역 멸치 액젓 및 마른멸치를

미륵암에서 책임지고 직거래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멸치 액젓은 1년이상 숙성시켜
맑은 액젓 만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070-8838-3776

## 잠시 · 한 · 두달 · 100일 산사에서 쉬고 싶으신 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주인공?

031)674-7188
033)441-0664

## 불사안내

소승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불사에 도움 주시는 분에게
월하 큰스님 서예 2점을
보시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3387-1237
경북 안동 만성 합장

## 기복, 방편을 쓰지 않고 정법을 실천하는 납자입니다.

거제도나 부산 근교에
사찰이나 터를 싸게
보시하실 분 연락요.
011-9143-0098

##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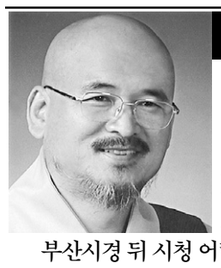

##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 스님들께는 포교당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는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암 운영에 필요한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등 부처님과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진실을 모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성취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 진정한 피안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자운정사 031)386-3967



##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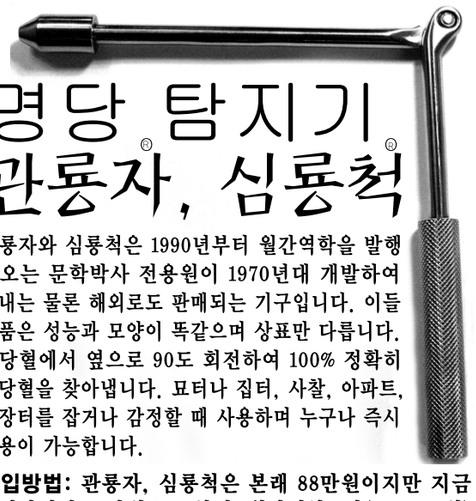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 고(古)건축, 사찰 건축전문

전문적인 건축지식과 오랜 현장경험을 통한 완벽, 책임시공 보장
전통사찰 전문. 일반사찰 전문. 부속 건축물 일체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전문
010-6405-2060
061)741-1624 / 031)581-2120

##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 정체 평형 일침요법

### 전 문 과 정 수강생 모집



주지 혜득 합장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시 : 1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1박 2일 실습위주 집중교육)
- 보 시 금 : 120만원 (선착순 12명만)
-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0-13-072143 (예금주: 보금정사)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보 금 정 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536-6번지
053)474-5959 / 010-3535-9797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정륜사
-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962-2
- 법 명 : 심공 성덕
- 법 명 : 치공 정월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법하

## 당뇨. 비만 Diet

###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지하철역1분)

- 위치 : 대구
- 법당 : 20의 30평
- 요사 : 13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조정가)

- 위치 : 경북
- 법당 : 60평 ● 요사 :60평
- 부속건물: 4동
- 납골당 분양중
- 부지 : 3800평
- 가액 : 2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150평
- 인법당 : 45평
- 명당터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선원
- 부지 : 90평
- 법당 : 7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 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18평
- 요사 : 40평
- 가액 : 5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찰 및 토굴안내

지리산 아름다운 절
- 대지 총평수 : 288평
- 목조법당(와가) : 20평
- 요사채 외 3동
- 지리산 덕천강 자락 산세, 풍광
- 가액 : 1억 2천(은행 5천 포함)

부산 바다가 보이는 사찰(3층)
- 총 대지: 약 108평
- 법당(와가) 30평, 공양간 30평
- 요사채 방 8개, 삼성각
- 법당 뒤편 산(공원)
- 가액 : 3억 8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 사찰안내(전세)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소재
- 부지 : 15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신축)
- 요사 : 35평
- 가액 : 전세금 1억원
- 특징 : 법당 신축비 3억 5천만원 소요됨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1만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기타 : 산신각, 석불 등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어우러진 청청지역의 기도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구역 지하철 1분거리
- 번개시장, 교통시장, 귀금속거리 중앙
- 동성로 입구에 위치, 포교최적
- 4층 약 30평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800만원

010-2446-2626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반산초등학교부근, 등산로길
- 3층건물에 2층
- 평수 : 30평
- 가액 : 2천만원, 월 20만원 (가격 조정가능)시설비 약간

051)782-0110
010-3101-1151

## 사찰(종무원)안내

- 위치: 대구 중심 요지(지하철역)
- 건물전체(3층), 주차장 등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최고시설(법당, 종무원, 후원, 난방 등)
- 전체 7,0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010-6780-6271

## 지리산자락 고요한 암자

- 총 650평
- 대지 320평
- 건물 : 황토건물 4동
- 수행 정진 하실 분
- 가액: 1억 5천만원

055)882-0319

##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 땅 250평 ●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2억 5천만원

011-9765-5302

##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전철 3백미터 대로변)
- 평수 : 30평(4층의 3층)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75만원 시설비 3백만원
- ※ 원목 불단 3조, 운각 3조, 바닥 전기필름시설, 즉시 법회 가능

02)762-0039

##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 가능)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 가액: 1억 7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연산면
- 법당 18평, 대지 112평
- 요사채 2동
- 가액: 1억 3천만원

016-742-2122

##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율현마을 751번지
- 평수: 대지 250평, 법당(40평),
- 이층 산신각,요사채 20평
- 별장으로 사용 가능함
- 가액: 상담후 결정

055)277-3569
011-847-1556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2번출구
- 4층 건물중 3층(50평)
- 삼존불 청동불, 최신 인테리어 시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45만원(부가세별도)
- 시설비 6천만원

010-5851-4984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 보살) 신중, 산신
- 가액: 전세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488-820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법당 : 23평(불사중)
- 요사채 33평(준공)
- 대지 280평
- 산신각, 창고
- 원하는 금액에 양도

010-3553-7897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면적 65평
- 방 4개, 다용도실, 최고시설
- 삼존불 냉난방 완벽시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최저가 인도

018-622-9865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
- 평수 54평(현 법회중)
- 4층건물 중 3층(관리비 無)
- 시설A급, 법당1실, 방 4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올 전세 가능) 시설비 저렴하게 보시

055)372-3563
010-2553-882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5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3천만원(전세가능)

011-816-9104
011-815-9104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 건물: 방4, 주방2, 거실1, 욕실1
- 법당 15평
- 가액: 1억 8천만원 (융자 5천만원 가능함)
- 사정상 급 양도, 주인직접

011-792-8969

##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 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 요사채3, 방 3,
-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가액: 4억
- 주차장 확보 (주인직)

017-516-0773(주지스님)
010-3550-6771(보살)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대지 3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9평, 주지실 별도
- 요사 24평, 요사채 아파트식구조
- 조경 되어있고, 법당 시설 완벽
- 가액: 1억 9천만원 (은행융자 5천만원 가능)

010-4193-3366

##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 평수 대지 388여평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약사여래불 대세지보살, 칠성
- 소불 100불, 완벽한 법당으로써 즉시 법회가능
- 사찰내 주차가능 IC에서 2분거리
- 사찰 앞 경관이 좋으며 산 경치가 수려하며, 등산로를 끼고 있다
- 가액: 2억

010-9418-593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 상가건물 1층, 전체 2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세 33만원

010-3107-1244

##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약 80%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명당가 평당 3만,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함

010-7325-125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시화 신도시 정왕동 E마트사거리
- 대형공원과 아파트 대규모 단지로서 포교최고지역
- 4층건물중 4층, 전체 약 110평, 옥상전체, 화장실및 복도 전체사용
- 법당: 삼존불, 약사여래불, 신중단, 영단, 인등단(관음인등 108불) 큰방 3개, 사무실 1개, 창고1개
- CCTV설치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시설비 8천5백만원

010-4340-886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서 5분거리 최고지, 마을 뒷편
- 대지 150평, 법당 16평(단청)
- 스님방 별도 2, 실내화장실
- 공양실 16평(방2, 실내화장실1)
- 주차장 양호, 비품대 일체 양도함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0-3367-2072

## 암자사찰터

- 위치 : 경북 영양군 관내
- 일월면 답 정남향 893평
- 입암면 전 약수터 920평
- 영양읍 전 언덕위 925평
- 가액: 평당 4만원 사바사 주지 덕원

054)682-8888
011-538-2211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011-452-8374

##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27억 5천만원 (금액조정불가)

010-6227-5965

##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인근 25분 거리
- 부지 14,855평
- 법당(목조건물, 3포집)
- 요사채 1동
- 도량주변 기암괴석 및 명당 부지 많음
- 가액: 6억 (조절가능)

010-8373-3711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 동사무소 앞
- 대지 85평, 단독주택, 텃밭있음
- 방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법당1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 아담한 고급시설비 절반값 650
- 몸만 오시면 모든 법회 즉시 가능함

011-458-2955

##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공원 입구
- 대지: 108평
- 건평 2층 104평
- 철골조
- 가액: 14억
- 동북권 개발 지역

010-3124-3952

##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 대형포교원(전세및양도)

- 위치 : 부천신도시 고속터미널 부근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 220평. 14층 중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1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 임대 2억 9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융자포함 양도가능)

011-707-5552

##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재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북부역 (위치 아주 좋음)
- 4층건물에 2층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즉시법회 가능
- 평수: 실 37평, ●법당, 방2,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등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32)666-0424
010-9494-9713

## 서울도심포교원

- 위치 : 서울역 10분 거리, 갈월동 버스 정류장
- 법당 : 약 20평
- 4층건물에 3층 법당, 방 2, 부엌, 화장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법당시설 잘 되었고, 불기 및 주방기구 일체

011-9105-0024 (현경)

##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 대형포교원(전세및양도)

- 위치 : 부천신도시 고속터미널 부근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 220평. 14층 중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1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 임대 2억 5천 시설비 절충가능(융자포함 양도가능)

011-707-5552

##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랍

010-2753-7089

762-231904.1.191:40PM페이지1(1,1)



# "출가는 내 한평생 속박당하기 싫어 이루어진 일"

## <47> 유가의 이단자 탁오(卓午) 이지(李贄)거사

명대(明代) 중후기(中後期)에 양명학(陽明學)의 흥기에 따라 관료사대부들이 점차 불교, 특히 선학(禪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지(李贄: 1527~1602)와 원굉도(袁宏道: 1568~1610) 두 거사이다.

양명학은 본래 송대 이학(理學)을 집대성시킨 주희와 동시대인인 육구연(陸九淵)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왕양명(王陽明: 1472~1529)에 이르러 크게 부흥해 명대 중후기의 사상계를 주도했던 사조이다. 그에 따라 흔히 '육왕(陸王: 육구연과 왕양명) 심학(心學)'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미 주희에 의해 완전한 '선학(禪學)'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조사선 사상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양명학은 상당히 송대에 사상적 정점을 이룬 조사선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지만, 그에 대한 관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명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거사로서 이지 거사를 고찰해 본다.

이지 거사는 흔히 '유가의 이단자', 혹은 '모순과 갈등의 철학가'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거사의 일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팽제청의 <거사전> 권43에 거사의 전기가 실렸으며, <석감계고략속집(釋鑑稽古略續集)> 등에 거사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가 기재돼 있다. 그에 따르면, 거사는 복건성 천주(泉州) 진강(晋江) 사람이다. 거사의 원래 임(林)씨였지만, 가정(嘉靖) 31년(1552)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이(李)씨로 바꿨다. 자는 굉보(宏甫), 이름은 재지(載贄)였으나 목종(穆宗)의 휘(諱)를 피해 '재(載)'자를 빼어 '이지'로 했고, 호는 탁오(卓午), 온릉(溫陵)거사, 백천(百泉)거사, 탁오노자(卓吾老子) 등을 자칭했다. 거사는 하남(河南) 공성(共城)의 교유(敎諭)를 시작으로 관료생활을 했다. 남경 국자감 박사, 북경 예부(禮部)의 사무(司務), 남경 형부원외랑을 역임한 후, 운남(雲南)의 요안(姚安)에서 지부(知府)를 맡았다. 만력(萬曆) 16년(1580) 거사의 나이 54세에 요안의 지부를 사임하고 그대로 계족산(鷄足山)에 들어가 '용장(龍藏; 대승경전)'을 열람하며 몇 년간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불교공부에 몰입했다. 그 후, 어사 류유(劉維)에 의해 호북(湖北) 황안(黃安)으로 쫓겨 가 친구 경정리(耿定理)에게 의탁해 생활했지만, 그가 죽자(1584) 다시 마성(麻城) 용담호(龍潭湖)에 머물며 절을 짓고서 생활했다.

만력 16년(1588) 거사는 유가에 대해 '이단(異端)'임을 자처하며 스스로 삭발하고 관복을 벗어던져 승려의 모습도 갖췄지만 정식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스스로 '출가'를 주장했지만, 평생 거사의 신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성에서 거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는데, 그 신분과 성별을 따지지 않았다. 특히 '여자들은 견해가 짧아 도를 배울 수 없다'는 말에 대해 거사는 "사람에게는 남녀가 있고 견해에도 역시 남녀가 있지만, 법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더욱 못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과부 등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사대부들이 거사를 '좌도(左道)'라고 비판했다. 거사는 웃으며 "내가 참다운 좌도라면 바로 관(冠)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옛날에 벗었던 관복을 다시 입었다.

당시 어사 마경륜(馬經綸)은 자주 거사를 찾아와 <역경(易經)>의 뜻을 물었고, 거사를 스승으로 삼아 지극히 예우해 황벽산(黃蘗山)의 북관(北館)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통주(通州)에서 장문달(張問達)에게 혹세무민했다는 죄목으로 탄핵 당해 옥에 갇히고, 거사에게 원적(原籍)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했다. 이에 거사는 "내 나이가 일흔 여섯인데, 죽을지언정 어찌 돌아가겠는가?"라고 하며 칼을 빼앗아 자결했다. 마경륜이 예를 갖춰 통주 북문 밖에 안장했다.(<거사전> 권43)



그림 · 김홍인

### '분서' '장서'란 제목의 책부터 이단의 성격 엿보여
### 모든 것이 속박이라도 계율만은 속박 아니라 밝혀

이와 같이 거사의 일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는 거사의 사상과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거사는 평생 동안 불교와 관련된 저술뿐 아니라 경학 역사 철학 소설과 희곡 등 다방면에 걸쳐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불교와 관련된 저술은 <화엄경합론간요(華嚴經合論簡要)>(<만속장>권5), <반야심경제강(般若心經提綱)>, <정토결(淨土訣)>, <만속장>권108) 등이 있고, <장자해(莊子解)> 등의 도가와 관련된 저술과 <이탁오비점황명통기(李卓吾批點皇明通紀)> 등의 역사와 관련된 저술이 있다. 하지만 거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태워버려야 할 책'이라는 의미의 <분서>와 '묻어버려야 할 책'이라는 의미의 <장서(藏書)>가 있다. 거사의 책은 제목부터 이미 '이단'의 성격을 엿보게 한다. 특히 <분서>의 서문에는 "근래 학자들의 병폐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고질병을 까발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태우려는 것"이라 말해 '분서'라는 제목을 단 이유를 밝히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거사가 출가한 이유를 <분서> 권4에서는 "너희들은 다만 이렇게 말한다. 출가해 승려가 되는 것이 성불하는 길이고, 그것만으로도 재가자들 보다는 훨씬 우월하다고 말이다. 지금은 나도 출가한 몸이지만, 설마하니 그것이 어찌 남보다 뛰어나서일까? 나의 출가에는 실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출가가 좋은 일이라고 여겨 출가한 것도 아니고, 또 출가하지 않으면 수도할 수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었다. 설마하니 집에 있다 해서 수도할 수 없었겠느냐? 나의 출가는 다만 내 한평생 남에게 속박 당하기를 싫어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거사의 '출가'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다. 이른바 결코 '속박 당하기 싫어함'으로부터 '출가'를 했음이 엿보인다. 아마도 거사의 안목에는 정식으로 수계(受戒) 받는 것조차도 '속박'으로 느껴져 스스로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만 거사는 '지계(持戒)'를 상당히 강조했다.

<분서> 권4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부처는 바라밀을 설파했다. 바라밀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계율을 준수하라는 지계도 그 중 하나이다. 부처는 계 · 정 · 혜의 세 가지 중에서도 계행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라는 한 글자는 정녕 쉽게 말할 도리가 없다. 계에서 정이 생겨나고, 정은 혜를 만든다. 혜는 다시 계에서 출발하니, 혜가 아니라면 계는 소멸되고 만다. 그렇다면 정과 혜는 성불의 근원이요, 계는 또 정 · 혜의 근원이 된다…. 석가모니 부처는 성불 뒤에도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그분의 계행이 한결 같았던 것은 대중이 다 아는 바이다. 만약 부처님이 '이런 계행이 헛된 것이고 계행이 부처에게 속박일 뿐'이었다고 말했다면 득도해 성불한 다음 계율을 깨고 파계해도 무방하리라. 절을 버리고 왕궁으로 돌아갔던들 안 될 게 무엇이었으랴?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찢어진 가사를 걸치고 거듭 바리때를 움켜쥐었으니, 어째서 그리하셨을꼬?"

여기서 거사는 계행을 극도로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다른 모든 것은 '속박'으로 여기는 거사였지만, '계율'은 결코 '속박'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계라는 한 글자는 모든 오묘함의 관문이고, 파계라는 한 단어는 뭇 재앙의 근본"이라고 지극히 강조했다.

거사의 불교사상은 기본적으로 이통현(李通玄) 장자의 <화엄합론(華嚴合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분서>권4에는 "<화엄합론>은 정밀하고 미묘하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여서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또 하나의 '화엄'"이라고 극찬을 했던 것으로부터 짐작된다. 그렇지만 <거사전>에서 거사가 "공종(空宗: 반야를 중시하는 종파)에 귀의했음"을 밝히고 있고, 또한 <분서> 권2에서는 "즉심즉불(卽心卽佛)"의 선사상을 논하고 있어 화엄을 바탕으로 반야와 조사선까지 두루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사는 <분서> 권4에서 "염불은 서방 아미타불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본다면 바로 서방에 태어남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견성(見性)이란 자성아미타불(自性阿彌陀佛)을 보는 것이다. 자성아미타불을 보았다면 바로 성불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자면, 거사는 송대 선종으로부터 출현한 '유심정토(唯心淨土)'의 사상과 유사한 정토관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거사는 당시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정주(程朱) 이학(理學)에 대하여 '거짓 도학[假道學]'으로 규정하고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뒤에 육왕 '심학'에서의 '이학'에 대한 비판과 조사선의 사상적 관계를 논하는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청대의 팽제청은 <거사전>에서 거사에 대해 평하기를, "내가 탁오 거사를 논하고자 살펴보고서 그 행적에 놀랐다. 그의 행적은 바로 세상의 병을 꾸짖기 위한 것으로, 거사는 실제로 스스로 행하였다. 거사의 저술을 읽고서는 감동을 받았다. 오호라! 거사는 근본을 알았구나. 거사는 출가했지만 계를 받지 않았으니, 다시 관복을 입는다고 해서 흠이 되겠는가? 그 격한 행적이 이와 같으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했다. 명대 전체적인 불교의 쇠퇴기에서 이지 거사는 독특한 행적을 통해 거사불교를 부흥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⑰ 초원시명도

# 문인문화에 대한 중인층의 동경과 차

조선시대(약1392~1550)에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산수, 인물, 화훼, 영모 등 다양한 화목의 그림들이 제작됐다. 각 화목을 대표할 만큼 뛰어난 화가들은 있었지만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년~?)처럼 다양한 화목에 두루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는 드물었다. 말년의 김홍도는 그동안 구사했던 화려한 기교에서 벗어나 졸박함 속에 그림의 참뜻을 담고자 하는 초월적 경향을 보여준다.

간송미술관 소장, 김홍도의 '초원시명도(蕉園試茗圖)'는 고즈넉한 언덕의 파초 한 그루를 배경으로 한 수수하면서도 고상한 풍취의 작품이다. 이국적인 정취를 드러내는 파초는 불에 탄 뒤에도 속심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다 해 기사회생(起死回生)을 상징하며 불교의 팔길상(八吉祥)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넓은 잎사귀는 떨어지는 빗소리를 감상하기에 좋고 시원한 그늘은 한가로워 옛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자연히 그림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했다. 그림은 화면 중앙에 큼지막한 파초를 배치함으로써 파격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다. 파초의 형태를 연한 묵으로 그려내고 진한 먹색의 잎맥을 은은히 번지도록 해 김홍도는 비를 맞은 후의 파초 잎을 청정한 느낌으로 담아냈다. 그늘이 만들어진 자리에는 주변의 돌을 그랭이질 삼은 서탁(書桌)이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 표현이 완고한 선비의 꿋꿋함을 상징하는 듯 질고 투박하기만 하다. 서탁에 놓인 경책과 작은 원형의 벼루와 먹, 서화 두루마리와 거문고, 투박한 찻잔 세 개는 은일지사의 취향과 미감을 전해주고 있다. 그림의 오른편에는 더벅머리 동자가 질화로에 무쇠다관을 올려놓고 쪼그려 앉은 채 부채질하며 화력을 조절하고 있다. 그 표정에는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익히 보았던 순박함이 그대로 살아있다. 차 준비가 한창인데 이 차의 주인은 근방의 어딘가에 잠시 산책이라도 나간 것일까. 사슴이 귀를 쫑긋거리며 바라다보는 어디쯤에서 다가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김홍도, '초원시명도', 지본담채, 37.8x28.0cm, 간송미술관 소장.

당시에는 이처럼 산거처사를 소재로 한 그림이 많았는데 이는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문학의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명대 문사 도륭(屠隆)이 지은 <고반여사(考槃餘事)>에는 산에서 생활하는 산인(山人)의 생활과 취미의 즐거움을 적고 있는데, 선비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수행의 방식과 함께 산거의 생활 중 필수품으로 서(書) 첩(帖) 화(畵) 지(紙) 묵(墨) 필(筆) 연(硯) 금(琴) 향(香) 다(茶) 분완(盆玩) 등을 열거하고 있다. 조선 후기 선비들이 지닌 은자적인 삶에 대한 지향은 이러한 서재문화와 서화고동(書畵古銅) 취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후 이러한 문화는 점차 중인들에게까지 확산됐다. 18세기 시인으로 활동한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추재기이(秋齋紀異)>에는 문인의 삶을 동경한 한 중인의 일상이 묘사돼 있다. 골동품 수집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서울의 손 노인이 빈방에 홀로 쓸쓸히 앉아 단계석(端溪石) 벼루에 고묵(古墨)을 갈아 묵향을 감상하고 한대(漢代)의 자기에다 좋은 차를 담아 차향을 음미하며 만족해한다. 그는 "춥고 배고픈 것쯤 무슨 근심이랴"하며 자족하는데, 이웃이 그를 동정해 밥을 가져오자 "나는 남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 없소"라고 하고 손을 저어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일화는 당시 문인문화에 대한 중인계층의 동경과 함께 차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한다. 좋은 차란 골동품 다기에 담아 마실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계급적 상징성을 선명히 드러내는 고급문화로 인식됐던 것이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 속에는 어찌된 일인지 당시의 번잡한 세태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에 사용된 투박한 필선은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천박함도 어리석은 소유욕도 없이 그저 담담하기만 하다. '초원시명도'는 아마도 당시의 유행을 쫓던 이의 주문에 의해 그려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림은 세태를 담아내는 듯 그것을 의연히 초월함으로써 문인 정신이 갖고 있는 본래의 참뜻과 차가 지닌 정취의 원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⑭ 사천왕과 소나무



눈이 내린 사천왕문 지붕 위에 소나무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장성 백양사. 사천왕이 서 있는 사천왕문은 사찰을 지키고 악귀를 내쫓아 불도를 닦는 이들로 하여금 절집이 신성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세워진 대문이다. 절집엔 법당까지 이르는 길에 몇 개의 문이 있다. 그 문들은 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드나들지는 못한다. 특히 사천왕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다. 지금도 우리가 합장을 하고 편히 드나드는 사이 사천왕은 합장한 불제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악귀를 쫓고 있을 것이다.

들고 나야 할 곳에는 '문'이 있다. 들고 날 일이 없다면 문도 필요 없을 것이다. 부처님 만나는 일도 쉼 없이 들고 나야 하는 일인가보다. 지붕 위의 소나무 그림자가 지붕을 내려와 법당으로 가고 있었다.

## 詩가 있는 도량

**■ 좌광우도**

넙치의 눈으로 보든 도다리 눈으로 보든
똑 같은 세상 두고 왜 서로 흘겨볼까
박인 눈 다르다 하여 시비(是非)마저 다르랴

(우리 사회의 좌파 우파 간 극심한 대립. 어쨌든 사물을 왼쪽 눈으로만 보면 왼쪽으로 보이고, 오른쪽 눈으로만 보면 오른쪽으로 보일 수밖에…)

**■ 사무사(思無邪)의 삶**

청상(靑孀)의 다듬이 소리에 홍낙엽(紅落葉) 흩어질 쯤
쥐똥 같은 별빛 따라 삶의 좌표 찾아가면
속세와 절연한 청산 사무사로 묵도(默禱) 중

**■ 겨울 섬산**

간 부은 돌쇠 너석 한 입에 깨문 거암(巨巖)
눈 쌓인 붉은 노송 팔뚝 하나 공양하면
잠항(潛航) 턴 푸른 대붕(大鵬)새 적멸(寂滅) 차고 오르네

–한상철 시조시인

## 옛 판화의 세계

# 백낙천이 법을 배우다 낙천참문(樂天慘聞)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인 백낙천이 항주 자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 유명한 조과선사를 만나 법을 묻는 장면으로 나무위에서 수행하시는 조과 선사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판각됐다. 당나라 때의 석도림은 속성이 반씨이며 부양 사람이다. 그는 장안 서명사의 복례 법사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화엄경>을 배우고 그 후에 경산의 국일 선사를 찾아가 마침내 정법을 얻게 됐다. 도림 선사(道林禪師, 741~824)는 특이한 수행방법으로 참선을 했다. 선방에서 대중과 함께 면벽의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명한 날이면 경내에 있는 고목의 소나무 높은 가지 위에서 좌선을 했다. 그것은 참선 공부를 하다가 졸면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공부 방법이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화 연간에 백낙천이 외직으로 나와 이 고을의 태수가 됐다. 그는 스님의 명성을 듣고 인해 산에 들어와 예알하고 스님에게 물었다. '선사께서 머무시고 있는 곳은 매우 위험합니다.' '태수의 위험은 더욱 심합니다.' '저는 벼슬이 강산을 진압하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업화와 서로 교접해 식성이 멈추지 않으니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백낙천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 입니까?'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많은 선한 일을 봉행하는 것입니다'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그런 말은 할 줄 압니다.' '세살 먹은 어린 아이도 비록 말할 수 있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백낙천은 마침내 예배를 드리고 떠났다."

우리는 불법의 이치가 이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과 선사가 당대의 최고 지식인에게 주신 법문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중선봉행(衆善奉行)하라'는 말씀이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도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불법을 몰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팔십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듯이 어차피 인생살이 자체가 힘든 것이라는 각오로 출발한다면 불법을 향한 걸음은 한결 가볍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낙천참문(樂天慘聞)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 삼베샤워타올 – 각 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대행 스님



# 생각나면 나는 대로 그냥 용광로에다가 넣어버리세요

오늘도 영원한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항상 한자리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나날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면 또 오늘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날은 추워지는데 법당이 마땅치 않아 여러분을 춥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송구스럽군요. 어떡하든지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양회관을 사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당을 지을 동안 말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개개인이 이 공부를 안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정신계의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은 보이는 데서 서로 잡아먹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육체를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잡아먹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도 먹히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치열하게 살고 있죠. 어떤 때는 사실 쓴웃음을 웃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그렇게 비참한 때도 있죠. '모른다면 차라리 괜찮을 것을….' 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는 거는 스스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 넓게 마음을 쓰고 좀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처님 도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묘해서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란 얘기죠.

찰나찰나 나투면서 돌아가는 이 한 생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짧다고 생각하면 아주 짧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깊이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속에는 모두 자기가 산 대로, 산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다시 나올 것인데도 어떠한 모습을 쓰고 나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련하게 지금 발버둥이치고 가는 길이죠.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얼마나 진실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모가 나는 것도 둥글게 행할 수 있고 둥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요다음 생에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다음 생이라야 얼마 안 가면 다음 생입니다. 몸을 벗었다 하면 영혼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니까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영혼이 있기 이전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면 안 되리만큼 돼 있죠. 그래서 '순간 몸을 벗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금방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래.' 한다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영원토록 길은 돼 있고,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는 이 길 속에서 헤매고 돌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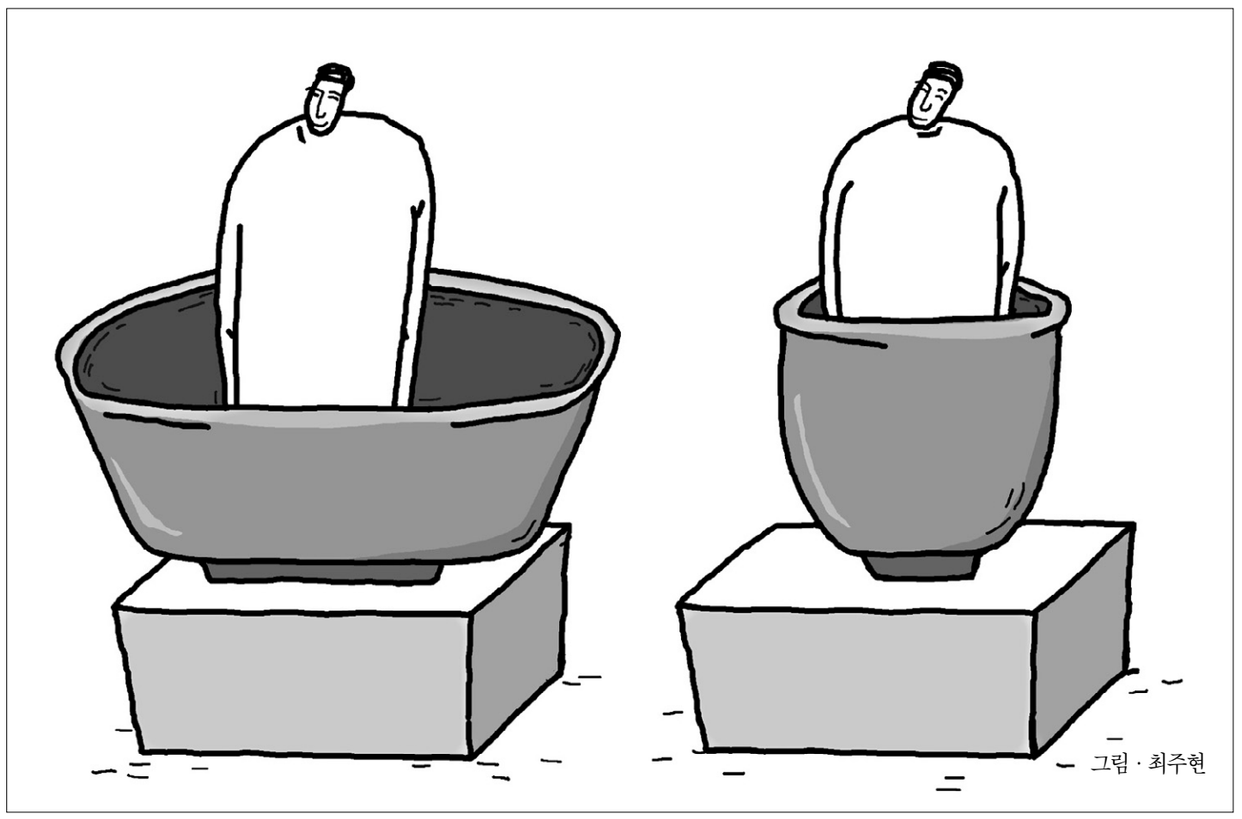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는 물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도를 닦아서 물 바깥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고비가 또 있죠. 물주머니를 벗어나야 되고, 공기라는 이름 하의 주머니 속에서 또 벗어나야 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면 전체 속에서 또 벗어나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길다고, 아주 하염없이 기니까 우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한 찰나니까요. 한 찰나라는 건,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보다도 한 찰나의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 년 전, 몇천만 년 전의 한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한생각과 맞먹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몸체 하나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체 하나가 우주라면, 우주 속에 별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살고 작용을 하고 돌아갑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으니까 내 한 몸을 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십시오. 천차만별의 모습들, 생명들,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둘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공(空)이 색(色)이다, 색이 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있어야 속에 생명들이 살고 생명들이 살고 있어야 몸이 있듯이, 둘이 아닙니다. 생명들이 없다 해도 내 몸이 없을 것이고 내 몸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어디 둘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체들은 어디서 와서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살게 됐는가? 내가 인연들을 지어서 그렇게 형성시킨 겁니다. 내가 인연들을 짓고 내가 형성시키고 내가 지금 움죽거리고 가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연구해서 만들었다면 그 기계를 누가 만지며 누가 작용하게 하는 겁니까? 기계 만든 사람들이 다 작용을 해서 움죽거리게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형성시킨 이 몸뚱이를 우리 자체가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 끌어가고 끌어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를 형성시켜 놓고 바로 자기가 그 형성시킨 모습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작용시키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거기에다 부합을 시키는 거죠. 이건 자연의 진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사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딱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고 내가 얘기했죠.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 이건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 다 수집이 돼서 입력이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요만큼도 여축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 틈에 선지(善知)도 있지만 악행을 범하는 그러한 업식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국가에서 별 사람들이 다 살듯이 이 안에도 별의별 마음, 의식들을 가진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것도 있고, 자기 집을 빈집을 만들어 가지고 갖은 영계를 다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끌어들여서 미치게 만들고, 요즘 가지 각색의 병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들어오죠. 그거를 이름해서 영계성이니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원대로 반드시 이 세상을 또 살아야 하니까, 이거는 곰곰이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밤이나 낮이나 한번도 내 개인을 생각한 예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으로서 어디 구경을 나간다든가, 내가 딴 사람들처럼 어디 좀 바람을 쐬러 다닌다거나 이런 점도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떡하면 쉽게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그 업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거를, 자꾸 꼬리가 꼬리를 물게 오히려 꺼내 가지고 생각을 해요. 안 나는 생각도 일부러 말입니다. 일부러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나중에 끄트머리에는 커다랗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죠. 보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듣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만나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먹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다니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죠. 다니면서 그냥 놓고 다니죠? 다니는 것을 끌어안고 다닙니까? 다니는 대로 뒷발자취를 떼어 놓고, 보고 만나는 것도 끌어안고 다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 가지고, 오히려 생각 생각을 해 가지고 뭉쳐 놓고선 이걸 답답하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생각나면 나는 대로 놓으라고 했는데, 나는 대로 그냥 용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고 그렇게 해도 놓질 못하는

☞26면으로 계속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한방(韓方)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예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중-6224

참선용맹정진 안내
부산 화명동 참선도량 여래선원에서
아래와 같이 전국의 재가불자와 함께
용맹정진을 개최합니다.
새해와 함께 5일간의 장좌불와 정진은
불자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주는 환희요,
소망일 것입니다. 인연을 갖추십시오,
귀중히 모시겠습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29일 오후8시~
2010년 1월 3일 오후6시
■ 준 비 물 : 법복, 바루, 세면도구
■ 참 가 비 : 8만원
■ 접 수 처 : 여래선원 총무팀
051) 362-0339
010-4546-5797
■ 접수마감일 : 2009년 12월 24일
여 래 선 원
부산 북구 화명동 2315-8번지 금강빌딩 4층
(수정 전철역 1번출구)

불교대학 선학원
범음범패 제2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0년 1월 25일(월요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1회 /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교육내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39위, 화청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법고
49재및 천도재
각단불공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승려 및
재가불자
■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도동44번지 불광사
불교대학 선학원
원장 일해스님
접수 및 문 의 053)986-1080
011-9361-5566

buddhanews.com

# 만 발자국 뛰는 거보다 한생각 하는 게 더 빠르다

☞25면에서 계속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놓고 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가니까 자기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지 나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바깥으로 사는 거나 안으로 사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그 모든 생명들이 누굽니까, 그게? 자기 몸뚱이 안의 자기 생명들이고 더불어 같이 살고 있고, 더불어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혼자 만나는 겁니까, 어디?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그냥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 혼자 만났다고는 할 수 없죠. 혼자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산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들었다고 할 수도 없죠. 혼자 똥 눴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잔다고 할 수도 없고, 매사 게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생각, 자기가 산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항상 남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내 몸뚱이 하나도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인데, 하물며 이 우주 천하가 다 더불어 같이 살지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으라고 놓으라고 하니까, 놓기는커녕 놓는 것까지 들고 있어요. 주인공을 찾으라니까 "주인공! 주인공!" 입으로만 부르는데, 진정코 말없이 통신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느 분은 "주인공! 주인공!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하, 참!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름을 찾지 말고 형상을 찾지 마라. 이름도 형상도 네 이름 네 형상이다."라고요.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 하죠? 그거를 잘 생각해서 새겨 보세요. 저 형상은 바로 자기 형상이요, 저 마음은 자기 마음이요, 생명도 자기 생명이요,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이죠. 그래서 법당에 들어오면 같이 하나로 몰아서 놓고 내가 예배 올리고, 나갈 때는 같이 몰아서 안고 예배 올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이죠. 이리로 가도 둘이 아니요, 저리로 가도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필코…, 요즘 이름도 알 수 없으리만큼 병 증세가 많이 나오는데, 병 증세뿐만 아니죠. 가혹한 악행이나 풍기가 문란하고 옹졸한 뭐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늠름하게 살 거를,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정신계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한생각에 만 리를 뛸 수 있는데 이 몸으로 한 발짝을 떼어 놓는 게 그게 뛰는 겁니까? 만 발자국을 뛰는 거보다 한생각 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무(無)의 세계, 즉 정신세계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지, 느껴보세요!

이렇게 가까워요. 스위치를 누르기 이전이 불이 들어오기 이전이고, 스위치를 눌러 가지고 볼 때는 불이 들어온 현실세계예요. 그렇게 빠른 세상을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세계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앞으로 우리 이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겁니까? 악행이나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보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모두 생기는 결과라고 봅니다. 내가 한마디만 더 하죠. 그리고 질문받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이가 적을 때 얘기죠.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 사는 거를, 그때도 그렇게 지켜보려고 지켜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고 못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침입한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뭐를 하나 갖다 줬다면, 하다못해 성냥을 하나 갖다 줘도 그냥 빈 접시를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걸 본 거예요. 빈 접시 주는 법이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반드시 지켜서, 위로 충성할 줄도 알고 밑으로 다스릴 줄도 안다 이 겁니다. 아, 그 정신력이라는 것은 투철해요, 아주! 남한테 미룰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분수를 지킬 줄 아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떡하면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없이,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아주 충실히 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만큼밖에 못되니까 여기 이 자리의 소임을 맡은 거다. 또 나보다 훌륭하니까 윗자리를 맡은 거다.' 그렇게들 하는 거를 볼 때…, 또 요만한 애들도 장난감을 하나 줬다 하면 그 이튿날은 반드시 다른 장난감을 갖다 줘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무섭구나! 아주 철저하게 무섭게 다루어졌구나! 야,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아하, 이 법칙이 다 부처님한테서 간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하여튼 부처님의 법을 아니 갖다 쓴 게 없어요. 행전을 각반으로 썼고, 우리 그때의 도포를 하오리로 변경해서 썼고, 우리 오조가사를 사무라이 종받이로 만들었고요. 우리네 발우공양을 가져다가 자기들 공기밥으로 변경했고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렇게 충실히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사명 대사나 서산 대사의 그 묘한 광대무변한 법을 보고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주 그때서부터 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정신력이 투철한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500년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내 집을 제대로 간수해야죠. 지금 무슨 병, 무슨 병이 들었느니, 나는 누구한테 당했느니 이런 소리 하기 이전에, 내 집부터 잘 간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부터 내가 자유스럽게 다뤄 놔야 그것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내 정신을 뺏기지 않게 돼서 내 몸이 나빠지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내 가정을 지키지 않느냐, 내 국가를 지키지 않느냐, 내 국가 안의 국민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 껍데기가 돼 가지고도 빈 껍데기를 또 잡느라고 애쓰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루바삐 마음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때 보면 어느 신도는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그냥 나가요. 그래서 나는 빙긋이 웃죠. 왜냐하면 '허, 저 말없이 하는 거에 맛을 들였구나!' 하고요. 이 부처님 법은 말 없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전달이 되죠. 일체 만물이 다요. 말로 하면 말이 늘어 가서 봉변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말 없이 말을 한다면 늘어 가지도 줄어 가지도 않아서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이 도리를 하루속히 체험하고 풀어 나가려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아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네 나무가 딴 나무에서 찾으면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다지고 또 다지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계(五戒)를 저는요, "술 아주 먹지 마라, 도둑질 아주 하지 마라." 이러진 않았죠. 왜 그렇게 바꿨느냐 하면, 술을 먹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내가 많이 먹어서 내 몸을, 여러 생명들이 사는 집을 망가뜨리지 말고 적당하게 먹어야 약주가 되지, 만약에 적당치 못하다면 망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몸에도 해로워서 결국은 빨리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가정까지 파괴가 돼요. 가족들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 이렇게 나쁜 일이 어딨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마라."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좀 여유가 있는 물건을 내가 딴 사람에게 줘도 도둑질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줘도 그게 도둑질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허허허…. 그런데, 내가 남을 줘도 도둑질인데, 이거는 도둑질이지만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도둑질 아닌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도리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가친척들이 있는데 말을 잘해서 이쪽 집 거를 저쪽에다가 갖다 주는 수도 있죠. 그거는 말 도둑질을 해서 주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말 도둑질이라 하더라도 둘이 아닌 사랑으로써 맺어지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둑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말을 잘못해서 연결이 돼서 싸움이 나게 하지 말고, 싸움이 나서 의절한 사람도 이쪽에다 말을 할 때는 저쪽 말을 잘 해 주고, 저쪽에다 말을 할 때는 이쪽 말을 잘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다 잘못되지가 않는 것인데, 외려 이쪽 말을 저쪽에다가 안 좋게 해 주고, 저쪽에다 이쪽을 안 좋게 말을 해 주고 이러니까, 점점 더 응어리가 커져서 죄업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죠. 그게 말로 해서 짓는 구업(口業)이죠, 구업! 입으로 짓고 입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하는 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공한 자체도 공했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마저도 공했기 때문에 답답한 것마저도 놓으면은 아주 편안해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이 어떠한 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일은 조그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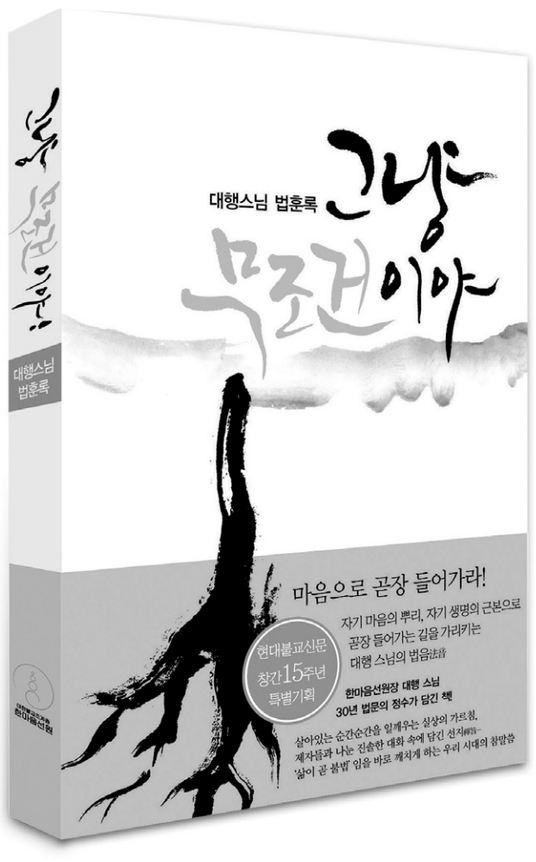
어떤 분이 오셔서 "은행에서 차압을 당해서 이제는 옴짝없이 다 뺏기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젠 애들하고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귓속에다 대고 얘기해 줬죠. "당신만 알고, 당신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 그럼 될 거야." 그랬어요. 그 사람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라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그 입자가 나가는 걸 보살이라고 하죠, 얼른 쉽게 말해서. 부처님 한생각에 보살 천백억이 나가서 응신(應身)이 돼 주느니라, 이렇게. 그거를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니까 부처님 원자 안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두 제각기 다 자기 소임을 해 준단 얘기죠. 그걸 거짓으로 생각을 해선 안 돼요.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계로 들어가니까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되죠. 심성을 꼭 넣어야 정신계하고 물질계하고 똑같이 중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이 돼서 문제가 된 거지 심성과학이라면 어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병이 많이 오고 그러는 것도 이 모두가 주인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 집을 지키려면 주인을 둬야 내 집을 지키죠. 집을 비우고서 어디 나가려면 집 지키는 사람을 꼭 하나라도 놔두고 가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아요?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또 '주인공! 너 집 좀 지켜 줘.' 하고선 나가는 사람도 있습디다, 있기는. 허허허…. 그랬더니 고스란히 그냥 있더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이 개개인 집이 한 몸의 집인데, 집주인이 있어야 세균성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이거를 다 막고 대치를 하죠. 그런데 주인이 없다면 대치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어야 한다, 반드시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흡수돼서 자기 나무에게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진실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만 얘기하죠. 질문들 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2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 특별기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부산대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대응방안

지난 수세기에 걸친 지구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인류에 의한 환경재앙으로부터 지구 전체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동참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표적인 회의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 협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07년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제4차 기후변화보고서를 통해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4.5도이며, 지구온난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2100년까지 기온이 4~6도 상승할 것이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금세기 안에 대기중의 온실가스농도를 450ppm 이하로 안정시켜야 하고, 산업화이전과 비교하여 2℃ 이하로 온도상승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구온도가 3~4도 상승하면 극지의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을 상승시켜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지가 사막으로 바뀌며, 지구상의 생물종의 절반이 멸종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협약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2개국 1만 5000명의 대표단과 그동안 참가하지 않았던 105개국의 국가정상들이 참가하여 지구촌의 환경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류 공멸의 위기를 앞두고도 자국의 득실만을 따지는 국가 이기주의로 인하여 회의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책임이지만, 지금까지의 온난화는 산업화과정에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각 국가별로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구환경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다 확실한 태도를 드러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감축량에 대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선진국의 경우 역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총량감소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총량목표설정이 어려운 중국 ·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한 탄소강도(carbon intensity)를 저감시키도록 하여 전체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재원과 기술지원에 대해서도 각 국가별로 분담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온난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부적으로는 선진국임을 홍보하고, 내용적으로는 개도국 노릇을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구환경에 대한 국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축량을 현재 제시된 2005년 대비 4%가 아니라, 보다 강화된 감소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분명히 앞으로는 저탄소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와 산업전체에 대한 구조적 변화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불교계 안에서도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찰에너지 효율화방안의 강구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등을 바탕으로 한 불교계 내 생활양식의 정립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기후협약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지구전체의 공존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지금의 우리들만이 아니라, 미래의 후대들도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社說

### 어린이 포교에 희망을

불교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당연히 어린 불자들에게 미래가 달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단이 그 중요한 어린이 포교에 진력하지 않고 있다. 나름대로 종단의 예산을 배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새싹포교의 현장은 그리 뜨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어린이청소년포교에 종단적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한 다양한 종책을 개발하고 그간 펼쳐 온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을 승계해 효율적인 포교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스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각 종단 지도자들의 인식변화다. 당장 급한 현안들에 가려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이는 종단의 힘을 결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도 지도자들의 굳건한 의지가 없으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돌이켜 보면 어린이청소년포교는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밟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각종단의 어린이 포교 관련 예산규모를 보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다.

이번 위원회의 구성이 종책 개발과 포교 현장을 독려하는 처방을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종단의 지도자들과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위한 씨뿌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길 바란다.

### 템플스테이에서 희망 설계를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이는 새해가 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는 해와 오는 해. 시간의 흐름이야 분절되는 것이 아니지만, 시와 날과 달 그리고 해를 나누어 사는 인간의 행로는 시간을 따라 간다.

연말이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주변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이 상례다. 그뿐 아니라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계도 이즈음의 필수의례다. 한 해가 지기 전에 꼭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성찰이다.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다가오는 새해를 살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다. 냉정한 자기점검 없이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분위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사찰이다. 마침 전국의 100개가 넘는 사찰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사찰을 찾아가 내면을 닦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에 준비된 프로그램에 동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찰에서의 대중 생활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템플스테이는 정착 단계를 지났다. 각종 프로그램들이 참여자들을 만족시키고 있고 사찰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연말연시 사찰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 보기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 | | | |
|---|---|---|---|
| 편집국 | (02)2004-8234~55 | 회사홈 현불닷컴 | www.hyunbul.com |
| | FAX (02)737-0698 |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 www.buddhanews.com |
| 광고국 | (02)2004-8213~7 | 불교포탈 부다피아 | www.buddhapia.com |
| | FAX (02)737-0696 | 쇼핑몰 현불삼닷컴 | www.hyunbulshop.com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 12월의 테마-유종의 미

새해를 맞아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고 각오를 다졌던 2009년이 어느새 달력의 마지막 장만 남기고 있다. 마지막 한 장만 남긴 2009년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하는 후회를 남기면서도 2010년을 맞이할 준비로 마음이 설레인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 마다 새로운 발원과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러나 시간 자체에는 그러한 연월일이 새겨져 있지 않다. 시간은 아무런 의식이 없다. 덧없이 흘러 갈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맞이하며, 이 달이 가고, 새달이 오고, 묵은해가 기울고 새해를 맞는다. 이것이 우리 삶의 테두리이다. 현대불교 교학의 태두 중 한분이셨던 故 고익진 교수는 이를 두고 "모든 중생은 시간의 제약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던, 돈이 많건 적건, 능력이 있건 없건, 남자건 여자건, 잘생기고 못생기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덧없이 흘려가는 시간에 사람이 그 어느 일점을 잡으면 거기서부터 시작과 끝이 설정된다.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실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故 고익진 교수는 "부파불교부터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시간의 실체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즉 불교에서 시간의 부정은 지혜의 눈에 비친 세계이며 열반에 머물지 않은 중생이 시간의 세계에 던져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 속에 던져진 중생에게 집착의 활동은 잠시도 쉴 새가 없다. '시작(始)'에는 필연적으로 '끝(終)'이 있지만, '끝(終)'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집착을 한다. 집착은 곧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끝납'은 다시 '새로움'이 되고, '새로움'은 다시 '끝납'이 되어, 처음과 끝이 무한하게 반복이 계속된다. 그리하여 중생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다(無始無終)'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관에 대해 故 고익진 교수는 원효 스님의 서술을 소개하고 있다. "허공이 무량하므로 중생 또한 무량하고 3세가 무제(無際)하므로 생사 또한 시종(始終)이 없다. 중생에 시종이 없거늘 부처에 시종이 있겠는가, 만일 부처에 처음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부처가 없을 것이나, 가르침이 없으면 수행이 없으리니 성불 또한 있을 수 없다. 수행이 없는 성불은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에 처음이 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부처에 처음이 없지만 그렇다고 일찍이 중생이 아니었던 부처는 없다. 중생 또한 끝이 없지만 한 사람도 뒤에 부처가 되지 않을 부처는 없다. 부처와 중생이 이렇게 전전(展轉)해 무시무종(無始無終)인 것이다."

기축년을 맞이하며 했던 각오를 지키지 못한 회한과 후회,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으로 2009년을 보내며 또 다시 경인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발원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아닐까? 삶이 있기에 괴로움이 있고 이 괴로움이 있기에 해탈이 있지 않을까?(生卽苦 苦卽成)

염석훈
아세아항공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새로운 滴天髓풀이
[제❶권]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징의를 철저하게 비교분석하여 그 동안 밝혀내지 못 했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한글세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쉽고 매끄럽게 번역했다. 그리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였을 뿐 아니라 천미와 징의에 예시된 수많은 명조마다 사주의 구조와 운의 좋고 나쁨을 일일이 명쾌하게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독학(獨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천미나 징의에 나오지 않는 자평 명리학의 이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2권, 3권도 곧 출간예정입니다.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56쪽 / 정가 4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韓國人의 新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청산 김성진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값 3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